금주의 법구-〈법구경〉
잡초가 밭을 망치듯
성내는 마음이 사람을 망친다
성내는 마음 벗어나면 그 복은 끝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7호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포켓몬GO' 열풍 '불교GO'도 될까

[이슈] 증강현실+포켓몬, 불교계 과제는?

세상이 '포켓몬GO'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포켓몬GO'는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가 만든 애니메이션 '포켓몬'과 구글 지도정보를 기반한 증강현실(AR)이 결합한 게임이다. 한국에서는 정식서비스가 되지 않지만 속초와 양양 일부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낙산사를 비롯한 이 지역 사찰에도 때 이른 인파가 몰리고 있다.

증강현실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이 기존 문화와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지금, 불교계가 신기술 개발에 맞춰 전통문화 콘텐츠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켓몬GO, 포교에도 활용 가능

'포켓몬GO'의 열풍에서 잘 만든 게임이나 영화, 프로그램 하나가 포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양양 낙산사의 경우 '포켓몬GO' 게임 중 몬스터가 나오는 '포켓 스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포켓몬 성지'가 됐다.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게임을 계기로 낙산사를 찾게 된 이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김득중 낙산사 종무실장은 "이번 포켓몬GO는 홍련암, 의상대, 부도탑 등 문화재에 포켓 스탑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한다"며 "외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찰에 관련 내용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산사 前주지 무문 스님은 이런 열풍을 포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무문 스님은 "일반인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켓몬GO에서는 종각, 부도탑 등 간단한 명시만 있지만, 이를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이미 '증강현실' 도입했지만

불교계에서는 불교IT기업인 '다나'가 2011년 '연등' 앱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연등보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문화재청도 2015년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불국사 안내 앱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16년 6월 29일 국정감사에서는 불국사 앱의 다운로드건이 2288건으로 당초 목표의 0.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나의 '연등' 앱도 다운로드가 5,000여 건에 불과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전달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재미, 소통 등의 요소와 결합해야 하기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콘텐츠 개발, 꾸준한 후원 절실

불교계 IT기업 다나 최대종 대표는 "불교 콘텐츠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포켓몬GO의 열풍은 20년 넘게 지켜온 캐릭터의 힘"이라며 "불교계는 이를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노력에 대한 꾸준한 후원이 미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불교콘텐츠 관련 상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에서 '콘텐츠 분야'가 지난해 수상자를 내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명법 스님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후원, 이를 알아보는 안목, 또 이를 활용하는 불자들의 관심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개별적인 개발 후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색을 뛴 외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심사, 지원하는 불교계 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켓몬GO 성공요인은

포켓몬 애니 시리즈 성공 견인
불교계 관련 콘텐츠는 '황무지'
"콘텐츠 육성 네트워크 구축해야"

포켓몬GO 불교계 영향

양양 낙산사 때 아닌 인파 몰려
불교 포교 활용가능성 드러나
"기성문화 신기술 접목 관심을"



팥빙수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름다운동행은 7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팥빙수와 센터운영지원금을 보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날 만든 팥빙수를 들고 불자들에게 그 시원함을 전하고 있다. 이번 팥빙수 전달은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핫(HOT)한 여름, 쿨(COOL)한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보시를 시작으로 전국 아동센터 50곳에 30만원 상당의 제빙기와 팥빙수 재료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사드 배치, 분열 · 갈등 초래할 것"

불교계 시민단체 15곳
21일 국방부서 규탄 집회

환경평가 배제 절차 지적
반민주 정책에 한 목소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단체 15곳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 15곳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하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7월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것 △북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적합한지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 △국내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국내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환경평가를 배제한 채 강행된 사드배치는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정치 · 지역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중국 · 러시아와 관계 악화도 우려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서 사드배치는 한반도가 신냉전체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등 보복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부처님께서 '보살은 오래도록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경전문구를 인용하며 "사드배치 등 군사력 증강만이 효용성 있는 방어수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문 스님과 법일 스님 등 단체 대표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가 불교계시민단체들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자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 이영철 신대승네트워크 수석공동대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쉼'의 의미부터 여름산사 · 축제까지… 여름 섹션 '休' 별지 12면 발행

인도 '나란다 대학' 세계문화유산 등재

40차 세계유산위서 결의

세계최초의 대학인 나란다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나란다 유적을 비롯한 2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위원국 21개국 및 세계유산협약 위원국 중 108개국 대표단 약 2,0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총 34건에 대한 세계유산 심사가 이뤄졌으며, 중 문화유산 12건, 자연유산 6건, 복합유산 3건 등 총 21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총 814건, 자연유산 총 203건, 복합유산 총 35건으로, 165개국의 1,052건이 됐다.

이중 이번에 등재된 인도의 '나란다 마하비하라 고고유적(나란다 대학)'은 불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인도 비하르주(州) 파트나 남서쪽, 옛 마가다왕국의 수도 왕사성(王舍城) 북쪽에 있는 나란다 유적은 쿠마라굽타 1세(415~454)가 오늘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나란다 사원을 창건한 이후 역대 굽타왕조에 의해 증축 · 확대됐다.

이곳에는 많은 승려 · 학자가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7세기에 유학온 중국 승려 현장은 승려학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기술했다. 처음에는 유식학파(唯識學派), 다음에는 밀교(密敎)의 교학(敎學)을 연마하는 학문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2세기 말 이슬람에 의해 파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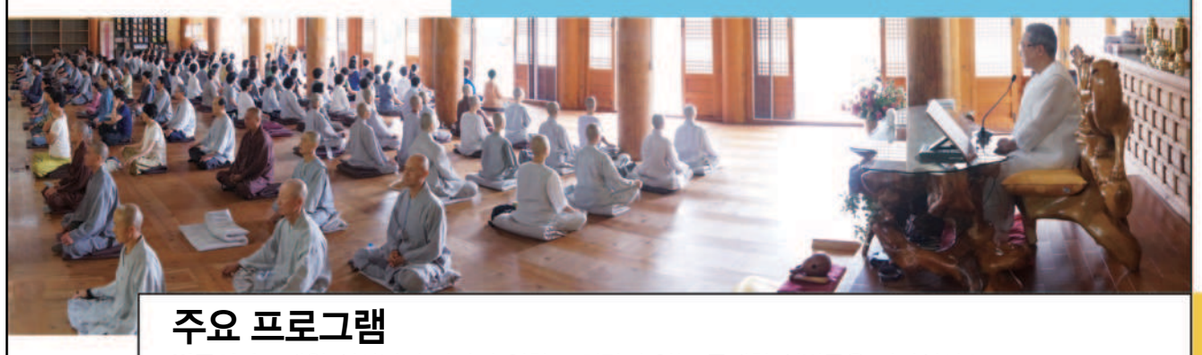
1915년 인도 고고학조사단에 의해 발굴돼 남북 500m, 동서 250m의 사역(寺域)에 사각형의 수도원, 5동의 사찰, 10동의 승방(僧房) 등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중국의 '저장성 화산 암각화 문화경관',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작품들 : 근대운동에 대한 탁월한 기여'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터키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UN 안전규정에 따라 7월 17일자로 종료됐으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세계유산 운영지침 개정 논의 등 나머지 의제는 오는 10월 초 파리에서 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내년 7월 중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불조정맥 제78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8/12(금)부터
8/15(일)까지
3 박 4 일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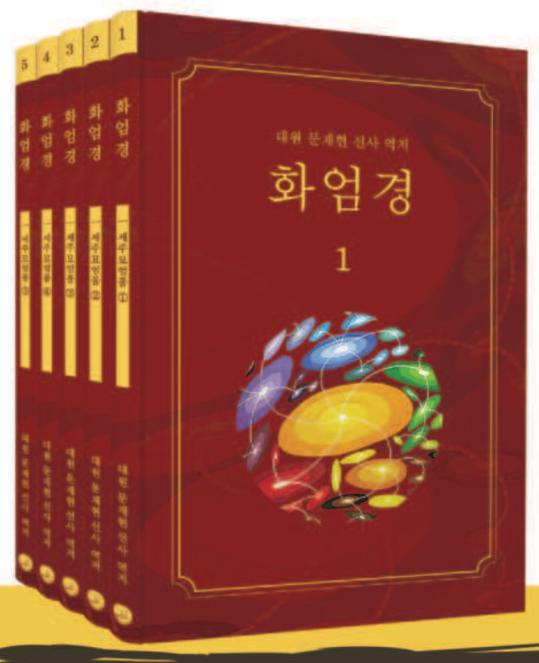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1~5권 무료공개

전자책 1,2,3,4,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차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국보·보물 소개展 신규 대상 매년 개최

문화재청–국립중앙博 합의

신규로 지정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내년에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국보·보물로 새로 지정된 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첫 특별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특별전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여러 분야의 중요 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사립 기관이 보유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장자에게도 자신이 소중히 보관해 온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던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비신(碑身)'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선·행복창조캠프, 포교원 신규 인증 받아

'중독 치유' 보완 후 재심사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하는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에 '자비선'과 '행복창조캠프'가 신규 인증됐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인증위원회(위원장 혜거)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관계를 열어주는 감정조절 명상 자비선'과 '행복창조캠프'를 심의 인증했다.

포교원에 따르면 자비선사의 자비선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행불선원의 행복창조캠프는 모든 존재가 불성에서 창조된 것이며, 일체가 곧 '나'이고 '부처'임을 바탕으로 한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잣나무숲 명상 리셋 7단계'와 '행복창조 12선(選) 스토리텔링'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한편 위원회는 청소년과 현대인들을 위한 중독 치유프로그램에 대해 불교적 가치를 보완해 추후 재심사하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선암사 소유권 두고 조·태 갈등 '재점화'

순천지원 14일 태고종 승소 판결… 조계종 항소·태고종 성명

비구·대처 간 분쟁 이어진 선암사
순천지원 조계종 등기 불법성 지목
조계종 "종단 정통성 판례 위배돼"
태고종 "대처 법통 인정해야" 환영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정면 충돌했다. 광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계종이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7월 20일 성명을 통해 "7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법통을 이어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찰은 태고종선암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조계종 선암사 측이 태고종 선암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인 1972년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함부로 바꿨다"며 "이에 태고종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가 함부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꿔놓은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순천지원은 조계종선암사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불법 등기를 했으니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또 "조계종 측과 소유권 다툼을 한 부동산은 △대웅전·팔상전 등 22개 건물 및 전각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사사지 8,086평 토지 △같은 리 산 48-1 임야 등 3건"이라고 명시하고 "앞서 열거한 부동산들은 원래 선암사가 신축했거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해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지난 1971년과 1972년에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측은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반박과 항소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순천지원 판결 근거인 통합종단에 대한 태고종 선암사 대중들의 반대결의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국불교 정통성이 비구종단에 있음을 밝힌 판례를 뒤짚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원 스님은 "조계종 선암사가 1962년 문교부 등록문건과 1965년 전라남도의 조계종 가입 확인문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태고종 선암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같은 경우인 봉원사 소송에서도 조계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법원 스님은 이어 "2011년 순천시로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선암사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합의를 깨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측 변호인 김봉석 변호사는 "오히려 조계종으로 선암사가 등록한 적법한 증거는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 등록시 문교부가 확인해준 문건 등 훨씬 많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사찰인 순천 선암사는 비구·대처 분규가 진행된 1950년대 이후로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립해오고 있는 곳이다.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이후 조계종 측은 선암사를 조계종으로 등록했으며,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을 완료했다. 통합종단 참여를 거부한 선암사 대처스님들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 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당시 '조계종 선암사' 측 주지 스님이 1972년 문화공보부장관의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점유를 태고종 스님들이 해왔기에 선암사는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지만 점유권은 태고종에게 있는 사찰이 됐다. 지속되는 분쟁에 정부는 1970년 승주군수에 이어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정부의 관리 속에 사찰정재 망실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함께 인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4년 태고종 선암사 측은 1972년 조계종 선암사로의 소유권 변경 절차가 부당함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7월 14일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주일·노덕현 기자

"3200여 종단 사설사암 분담금 납부해야"

조계종, 19일 분담금 공청회서 '사설사암' 문제 수면위로

공찰 비해 적은 분담금 부과돼
향적 스님 "사설사암 개념 폐지"
교구행정력 향상 선행 지적 나와


조계종은 7월 19일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의 중앙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담금에 대한 개편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편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선 사찰의 분담금 형평성, 특히 공찰과 사설사암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 대표는 "분담금 문제는 공찰에 비해 사설사암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받는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사설사암의 입장에는 창건 후 종단 지원없었음에도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설사암 난립에 따른 지역불교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종길 동화사 종무실장은 "동화사가 본사인 9교구는 131개 중 사설사암이 93개이며 38개 공찰이 전체 85%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사설사암에 대한 명확한 분담금 지침 등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구본사에서 분담금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도 "공찰과 사설사암의 개념 자체를 폐지해야 조계종 발전에 비전이 있다"며 "320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 사설사암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해인사의 경우도 사설사암이 공찰보다 많다. 문제는 본사 행사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사유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재원 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은 분담금 현실화가 교구중심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광전 스님은 조계종의 성격이 연합체이며 현 집행부가 교구중심제를 표방한 만큼, 목적사업에 교구공영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광전 스님은 이어 "현행 분담금 제도도 예산, 즉 총매출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경비를 제한 순소득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한 사찰 종무실장도 "현재 1명이 말사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 협조를 잘해주는 사찰(사설사암)도 있지만 맞지 않는 재정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사찰이 많다"며 "사실상 관리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이어 조계종은 9월 중 2차 공청회를 열고 10월 입법예고, 종무회의를 거쳐 11월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네 번째 연임'

조계종, 19일 4기 위원 19명 위촉장 전달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4기 연임이 확정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7월 19일 4기 화쟁위원단 19명을 위촉했다. 4기 위원장은 1·2·3기에 이어 도법 스님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 흥선 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 흥선 스님, 혜조 스님, 이성구·조형일·신호승·정웅기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2010년 봉은사 직영 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화쟁위원회가 벌써 4기를 맞았다"며 "이후 '화쟁'을 화두로 여러 사회문제에 접근하며 역량 부족을 느꼈지만, 이 사회에 '화쟁'이란 갈등 해결법을 알린 것만으로도 성과라 생각한다. 화쟁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장서 4기 화쟁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불교에서 '사바세계'는 갈등이 없는 세상을 뜻한다. 갈등이 없다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은 행복해 질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사회 갈등을 다루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4기 화쟁위는 더욱 끈기 있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종단이 (화쟁위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활동 소회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 합시다. 佛子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 靈位를 모시고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사부대중이 문도의 단결과 정진을 위하여 당호 건당식과 대가사 불사 회향을 기념하여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 日時 : 佛紀 2560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 場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 문의 : 055)672-4394

三師 證明法師

달제 지운 큰스님 (제주 극락암 조실) / 대허 만선 큰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 몽산 관일 큰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

종 정	법련 덕범	문화원장	혜안 행석	제주종무원장	혜봉 행범	진주종무원장	혜안 행석
총무원장	혜봉 행범	중앙포교원장	행화 상욱	제주총무국장	한산 영건	거제종무원장	행화 상욱
종회의장	삼봉 행현	국제문화원장	도명 행원	직할종무원장	남송 덕산	마산종무원장	대비
종회부의장	정철 행철	감찰원장	법타 행춘	서울인천종무원장	만봉 행민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련
승정원장	자인 행림	포교사회회장	대명 행경	양산종무원장	원봉 행주	총무원사무총장	남송 덕산
중앙선원장	대성 행문	포교사회부회장	청정. 청량	창원종무원장	벽봉 행수		
호법원장	원봉 행주	일본동경종무원장	만공 행덕	밀양종무원장	대명 행경		

고성 대무량사 도일 행청 / 진동 미륵암 구산 행안 / 산청 약원암 대력 / 마산 천수사 대륜 행선 / 제주 극락암 법해. 덕봉 / 제주 대산. 성타. 덕봉. 덕화 / 산청 종현 / 통영 해암 / 거제 대유 / 일본 보림 / 창원 반야. 일광 / 마산 묘심. 대련. 정심 / 진주 명성 / 마산 성수 행광

外 門徒一同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長 俞禹植 혜봉 행법 합장

불교인재원 무료 강좌 마련

7월 29일부터 10주간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7월 29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서 '어려운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제1기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종교는 무엇이며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부처님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기 △불교 가르침 이해하고 실천하기 △업과 윤회, 공과 선 이해하기 등 불교입문자들을 위한 주제로 열린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을 비롯해 박윤흔 불교인재원 고문,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45명 모집하며, 청소년과 청년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이와 함께 '생활참선 입문과정 제17기 강좌'를 8월 11일부터 11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서 진행한다. 증명법사는 고우 스님이 맡으며,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강의한다. 선착순 30명 모집에 회비는 15만원(만 30세 이하 무료). 1661-1108

윤호섭 기자

불교환경연대 새 출발 생태 순환사회 만든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 등 취임

불교환경연대가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보고회 및 불교환경연대 임원 취임식'을 거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4월 3일 영산강 하구둑서 100일 수행길을 시작하며, 회향 이후 본격적인 조직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3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단체의 근간이 되는 비전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로의 전환'이다. 생명 · 순환 · 지속가능성 · 협동 · 수행을 5대 핵심가치로 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숲과 생태 사찰위원회 △강과 습지 생명위원회 △기후 에너지 국제연대위원회 △녹색불교 교육연구 위원회 △홍보 출판 위원회 등 5개 분과별 사업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불자 선수들의 '금빛 승전보' 기대합니다

리우올림픽 D-10 불자 선수 누가 뛰나

24개 종목 200여 선수 출전
대회 목표 '금10-10위' 세워
4연속 10위권 내 성적 기대

4년마다 찾아오는 세계인의 축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6~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24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금빛물결을 선사할 계획이다. 선수단은 1976 몬트리올올림픽(50명) 이후 최소 규모지만 대회 목표는 10-10(금메달 10개 이상 · 종합순위 10위권 내)으로 잡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5위(금13 · 은8 · 동7)를 차지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이후 4회 연속 종합 10위권 내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역대 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만큼 이번 대회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불자선수로는 배드민턴 이용대, 레슬링 김현우, 사격 진종오 · 김장미, 양궁 기보배 · 김우진 · 이승윤, 펜싱 김지연 · 신아람 등이 있다.

배드민턴 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 선수는 동료 유연성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노린다. 화끈한 경기력으로 최근 국제대회서 1위를 싹쓸이 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터라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용대 선수는 옴자 목걸이를 6년째 착용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그는 지난 6일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이제는 목걸이를 안 차면 불안할 정도로 소중한 물건이 됐다. 스님들의 좋은 말씀도 힐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올림픽서 레슬링 66kg급 금메달을 거머쥔 김현우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2012년 당시 부상투혼으로 금메달을 확정짓고, 한쪽 눈이 퉁퉁 부은 채 감독과 맞절을 올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이번 대회에는 체급을 올려 75kg급에 도전한다. 과거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 그이기에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사격 간판 진종오 · 김장미 선수 등 불자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사격은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진종오 선수는 이번 대회 한국선수단 남자 주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베이징올림픽서 1개, 런던올림픽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3연속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불심 깊은 그의 어머니가 사찰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런던올림픽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하며 '신데렐라'라는 별칭을 얻은 김장미 선수는 2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명실상부 세계최강 한국양궁 에이스 기보배 선수는 선수단 결단식서 "라이벌은 내 자신"이라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0년 아시안게임 단체전과 런던올림픽 개인 · 단체전서 금메달을 따내며 금자탑을 쌓았다. 최근 대회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남자양궁을 대표하는 김우진 · 이승윤 선수 역시 각종 대회서 금메달을 휩쓸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런던올림픽서 금메달을 비롯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펜싱 역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나선다. 2012년 당시 막내급으로 금메달을 따낸 김지연 선수(사브르)는 이번에 맏언니 역할을 맡았다. 런던올림픽 때 없었던 사브르 단체전이 생겨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또한 런던올림픽서 명백한 오심으로 동메달을 놓쳐 아쉬움을 삼킨 신아람 선수(에페)도 메달 획득을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

펜싱종목 두 선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면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기계체조와 역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서 불자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청소년이여, Be the Buddha!"

조계종 포교원 · 은정 재단
9월 3일 제 8회 나란다축제

동국대서 개막… 軍서도 열려
미션 수행 · 우리말 독송 신설



청소년들의 신행활동을 증진시키고,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교리대회인 나란다축제가 올해는 재미를 더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나란다축제가 9월 3일과 4일, 28일 등 총 3일에 걸쳐 동국대를 비롯해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Be the Buddha'.

올해는 기존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회향마당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외에 △미션을 수행하라 △우리말 독송대회가 새롭게 선보인다. '미션을 수행하라'는 동국대 교내에 설치된 미션 장소에서 팀원이 주어진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불교교리 문제를 푸는 예능요소를 가미한 코너다. '우리말 독송대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우리말 예불문을 독송하는 것으로 신행활동 확산 일환으로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단독으로 준비하던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사찰 및 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메인행사가 펼쳐지는 3일에는 오전 11시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범종을 울려라 일반부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 오후에는 신규 코너 등이 진행되며, 회향마당 이후 동대문 특설무대로 이동해 댄스경연대회를 실시한다. 4일은 전국 군법당서 군장병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열린다. 축제서 지급되는 총 장학금은 8700여만원. 접수는 8월 26일까지 홈페이지(eunjung.or.kr/quiz)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소년 국악인재 육성을 위한 '제2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도 3일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다. 성악 · 기악 · 무용 ·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장학금은 1천여만원. 시상은 당일 현장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8월 19일까지. (02)515-9351

윤호섭 기자

불성 · 여래장 사상은 어떻게 변용됐나

금강대 불문연, 8월 6~7일 국제 학술세미나

"만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은 인도에서 기원돼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불성 · 여래장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용 · 변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첫날에는 △시모다 마시히로 도쿄대 교수의 '인도불교사에서 여래장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의 '다시 한 번 기체설(基體說)에 관하여'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과 몇몇 유가행파 문헌들에 공통된 세 비유' △카노 카즈오 고야산대 교수가 '인도에서 〈보성론〉의 수용'을 △쿠라나시 켄이치 타이쇼대 교수가 '금강승에서 여래장 사상'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로버트 H. 샤프 버클리대 교수가 '불성과 초기 선(禪)'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중국불교와 티베트 불교 속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 △도르지 왕축 함부르크대 교수의 '롱소빠의 여래장 사상' △클라우즈 디터 마테즈 비엔나대 교수의 '제8대 까르마파 미꾀도르제의 여래장과 객진번뇌의 관계에 대하여' △더글라스 덕월스 템플대 교수의 '티베트에서 여래장의 기반' 등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금강대 불문연 소장은 "여래장 사상은 인도에서 기원됐지만 인도보다는 티베트와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미친 영향이 더 심대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여래장 사상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수용 · 변용사를 문헌학 · 지역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지역사회 선도하는 중심사찰로 변모”

Interview

내소사 진성 스님

지역사암연합회 결성 추진
사회현안 관심 두고 소통
사라진 지역연등제 되살리고
다문화가정 포교에도 앞장

“내소사가 부안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부안의 경제문화협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문화 창달에도 중심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내소사가 지역사회 공헌을 화두로 삼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21일 내소사서 만난 진성 스님〈사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내소사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고충을 함께하며 발전해왔다. 내소사 주도로 주민들과 실시해온 석포리 당산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내소사 선지식인 해안선사와 혜산 스님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해 수학여행을 후원하기도 했다.

“부안에서 내소사가 차지하는 역할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것을 지역주민과 나누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내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역사회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내소사는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마을이장단과 권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부안은 수년 전 방폐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갈라져 한동안 갈등을 겪었다. 이런 아픔을 교훈삼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소사가 중재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것이다.



진성 스님은 이 일환으로 부안사암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스님들이 상의하며 사찰과 지역사회 가교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사암연합회는 예비 모임을 거쳐 조만간 결성될 예정이다. 부안사암연합회를 통해 1990년대 중반까지 봉행됐던 부안지역 연등제도 다시 살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거 지역문제로 대두됐던 방폐장 논란은 주민들의 화합을 깨트리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옛 이야기처럼 가볍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소사가 앞장서 부안사암연합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내소사는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지역 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내소사 당산나무에 던진 동전과 사부대중의 모연을 통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에도 나선다. 아울러 최근 시작한 의상봉 공군부대 법당 지원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또 부안경찰서와 부안해경을 위해 정기법회를 열고, 경승실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접촉 중이다. 이처럼 내소사는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 갖고 참여하면서 원만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요즘은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교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포교가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포교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내소사가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한편 내소사는 현재 종단과 24교구의 1년간에 걸친 실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진성 스님은 주지가 아닌 사찰관리인으로 부임해 있지만 “누가 주지가 되더라도 내소사가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대표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암사 청년회 “회원 모두 하나로”

7월 16일 창립법회… 초대회장 남청우



불암사 청년회는 7월 16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초대회장으로는 남청우 씨가 임명됐으며, 총 회원은 40여명이다.

이날 남청우 회장은 “올바른 경전해석을 통한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청년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 법회 활성화를 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친교를 나누는 청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우리는선우, 불교학당 30명 수료

3개월 과정, 철학 · 경영학 등 배워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유필화)는 7월 18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서 ‘불교학당 종강식’을 개최했다.

5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 불교학당은 철학 · 경영학 · 콘텐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불교와 결합시켜 강의했다. 이날 종강식서 재가불자 30여 명이 수료증과 상장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연꽃생협, 백화점식 기부행사 진행

지역복지시설에 의류 · 필수품 6000여점 전달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전준호)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한부모 보호시설 · 여성보호센터 · 노숙인 쉼터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백화점식 기부행사’를 개최, 취약계층에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연꽃생협은 여성의류 및 생활필수품 6000여점을 홈페이지에 공개, 복지기관 이용자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신청받아 해당 시설에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장병들 마음에 평화 · 온기 가득하길”

조계종 군종교구, 제1항공여단 비천사 낙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14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육군 제1항공여단 신축법당 비천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하남시사암연합회장 학명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법사, 박기연 제1항공여단장, 경기지역 포교사단 및 불자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천사는 2013년 컨테이너 시설로 조성된 법당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남시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포교사들은 매주 법회를 주관해오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신축공사를 시작한 비천사는 2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0㎡ 규모의 법당과 대중방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낙성법회서 하남시사암연합회장 학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축법당이 들어선 만큼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부처님 법대로 사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법사는 “이 법당이 군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온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기연 제1항공여단장은 “오늘의 불사 인연공덕으로 부대 무사고와 안전비행을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부 · 포교 동시에! ‘1석 2조’ 나눔

아름다운동행, 아이들에게 사천왕 노트 1200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 팥빙수도 함께 선물

아름다운동행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함께 기부하고, 불교문화도 전파하는 ‘1석 2조’ 나눔행사에 나선다.

어린이들에게 팥빙수를 선물하는 ‘HOT한 여름, COOL한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어린이 1200명에게 팥빙수와 함께 사천왕 노트를 전달한다. 사천왕 노트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이 템플스테이 홍보관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 180만원을 기부해 마련했다.

이명희 템플스테이 홍보관 매니저는 “보시함에 모인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을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하던 중 아름다운동행을 알게 됐다”며 “올해 초까진 수익금 및 보시금을 직접 기부했지만, 아이들이 불교문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사천왕 노트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천왕 노트를 통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알고, 이와 더불어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 비치된 불교문화사업단 보시함.

템플스테이 홍보관 담당 태허 스님은 “사천왕은 절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처럼 사천왕 노트가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역아동센터 50개 기관을 선정, 7월 22일 30만원 상당의 팥빙수 세트와 사천왕 노트를 배분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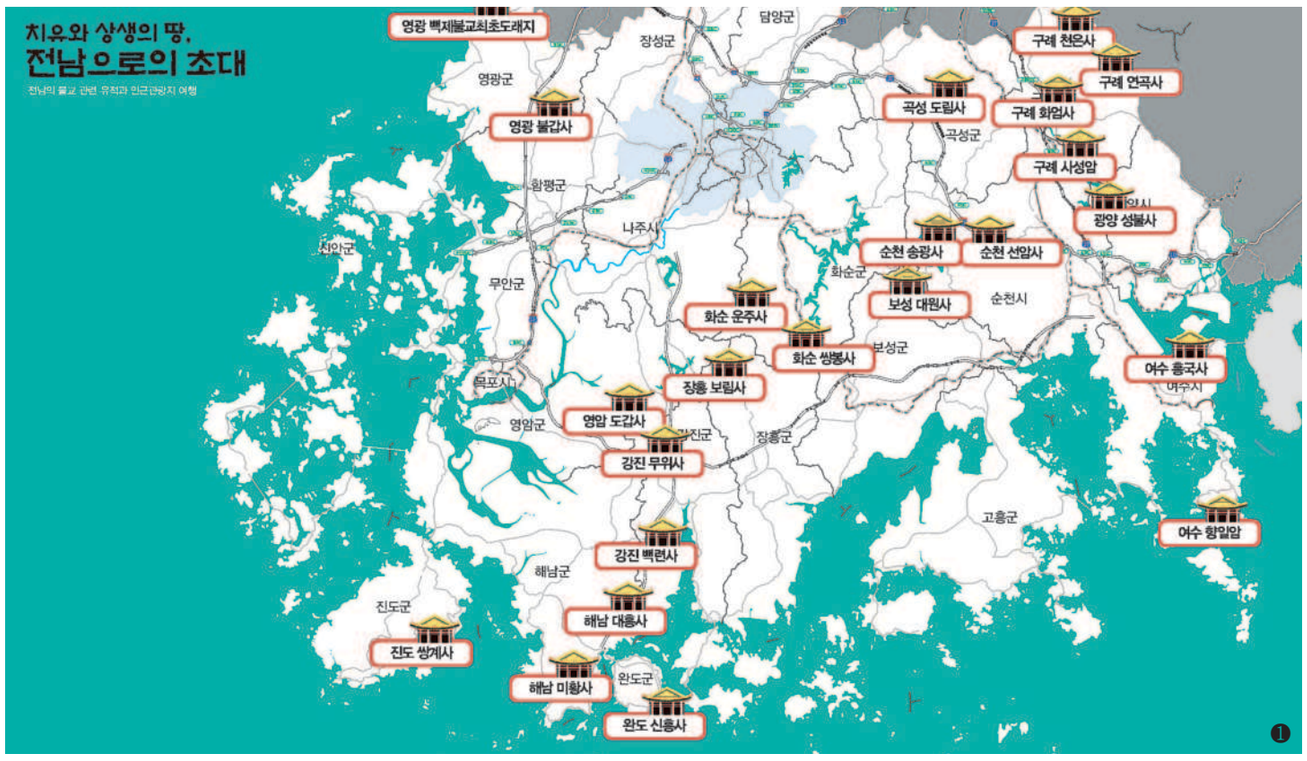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7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 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 (빠른우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 (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Tel : (+86)25-85811079
Fax: (+86)25-85811078
E-mail: overseas@njucm.edu.cn
Website: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교학처 : (02)511-2026,2027
Fax (02)511-2028
학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❶ 불교순례길 31코스에 포함된 사찰 24곳 지도
❷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❸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벽화(국보 313호)
❹ 관음기도 도량 여수 향일암
❺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도윤 탑비(보물 170호)

불교 유적 따라 남도 '구석구석' 순례를…

전라남도청, 불교 순례길 31코스 선정

풍성한 먹을거리와 다채로운 기차여행 코스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전라남도가 이번엔 '불자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7월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불교 순례길 31코스를 선정 · 발표하고, 불교 유적 중심 관광 자원 개발에 착수했다. '치유와 상생의 땅, 전남으로의 초대'란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불교 순례길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17곳을 포함한 도내 사찰 24곳 및 먹거리 코스를 함께 제공, 숙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청 관광과는 먼저 전남 북부 · 동부 · 중서남부 3개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코스로 나누어 총 31코스를 구성했다. 현재는 시범운용단계에 있지만 향후 31코스를 수정 보완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이다. 순례길 홍보자료 및 전자책 발간도 예정 중이다.

안기홍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찰과 그 주변에 힐링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많아 순례여행의 적지"라며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심신휴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경상권에 비해 비교적 불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성 백양사 · 구례 화엄사 · 여수 흥국사 등 천년고찰들이 대거 위치하고, 순천 송광사 · 강진 백련사 · 해남 대흥사 등에선 고승석덕이 많이 배출돼 불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다. 특히 수려한 산세를 따라 자리한 사찰들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채 고즈넉한 멋을 뽐낸다. 이 가운데 역사 · 관광 · 건축학적 가치를 고려해 잘 알려지지 않거나 특색 있는 불교 유적지 4선을 추천한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제는 384년 침류왕이 즉위한 후 불교를 삼국 중 2번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 영광 법성포로 들어와 불갑사를 세웠다고 한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가리킨다.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을 1998년 영광군 학술고증(동국대)이 사실을 입증했고, 전라남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있다.

관광지엔 △간다라유물관 △탑원(塔園) △부용루 △사면대불이 조성돼 있다. 대부분 마라난타 고향인 간다라 지방의 건축 양식서 착안됐다.

전남도청 측은 "일주문의 역할을 하는 물루를 비롯해 불탑과 탑원은 간다라 지역의 탁트히바히 사원의 주탑원을 본떠 만든 것"이라며 "간다라 유물관에는 2~5세기 경 불전도 부조 및 불상 등을 전시해 대승불교 발원지인 간다라 지역의 불교 문화 예술의 특징적 요소를 살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북부 코스' 중에서도 △당일 영광 코스 △1박 2일 영광-장성 코스 △2박 3일 영광-장성-화순 코스서 만나볼 수 있다. (061)356-6008

곡성 도림사

절에 오르는 길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나마 풍류를 즐기고 싶다면 곡성 도림사를 찾아가자. 동악한 남쪽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이 바로 도림사 계곡인데, 너럭바위 위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노송과 폭포가 절경을 이룬다. 특히 9개의 너럭바위에 새겨진 선현들의 문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년)에 원효대사가 화엄사를 나와 지은 사찰이다. '도림(道林)'이란 이름은 통일신라 헌강왕 2년(876년)에 도선국사가 절을 고쳐지을 때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이 숲처럼 모여들었다 하여 붙여졌다. 현재는 응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채 등이 남아있다.

도림사는 인근에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섬진강 천문대, 압록유원지 등 관광지도 다양해 새로운 관광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061)362-2727

먹을거리 · 인근 총망라 관광지도화
템플스테이 연동해 숙박걱정 해결
수정 · 보완거쳐 '관광상품화' 계획

구례 화엄사 · 천은사 · 연곡사

도심생활에 지쳤다면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사서 템플스테이는 어떨까? '동부 코스'에 포함된 구례 사찰들은 대부분 템플스테이를 운용한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휴식형 상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편의에 따라 △1박 2일(성인 4만원, 학생 3만원, 초등생 2만원) △2박 3일(성인 8만원 · 학생 6만원 · 초등생 4만원) △3박 4일(성인 12만원 · 학생 9만원 · 초등생 6만원)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완명상, 108배, 스님과 차담 등으로 구성된다. (061)782-7600

천은사는 휴식형과 체험형 2가지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체험형은 매월 둘째 주말 1박 2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성인 5만원이다. 또한 휴식형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1박 2일에 성인 참가지 8만원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사찰 예절, 명상, 스님과의 대화, 달빛걷기, 사랑나눔 54배, 오색차명상, 금강송 숲길 걷기 등이다. (061)781-4800

연곡사는 가족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4인 가족 참여시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자율형'은 예불 · 공양 · 운력시간을 제외하면 사찰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1박 2일 성인 5만원, 학생 3만원. 2박 3일 성인 8만원, 학생 5만원. 매주 주말 가능한 체험형은 주요 사찰 체험 외에도 108배, 명상, 스님과 차담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박 2일 성인 5만원, 학생 3만원이며 2박 3일 성인 8만원 학생 5만원이다. (061)782-1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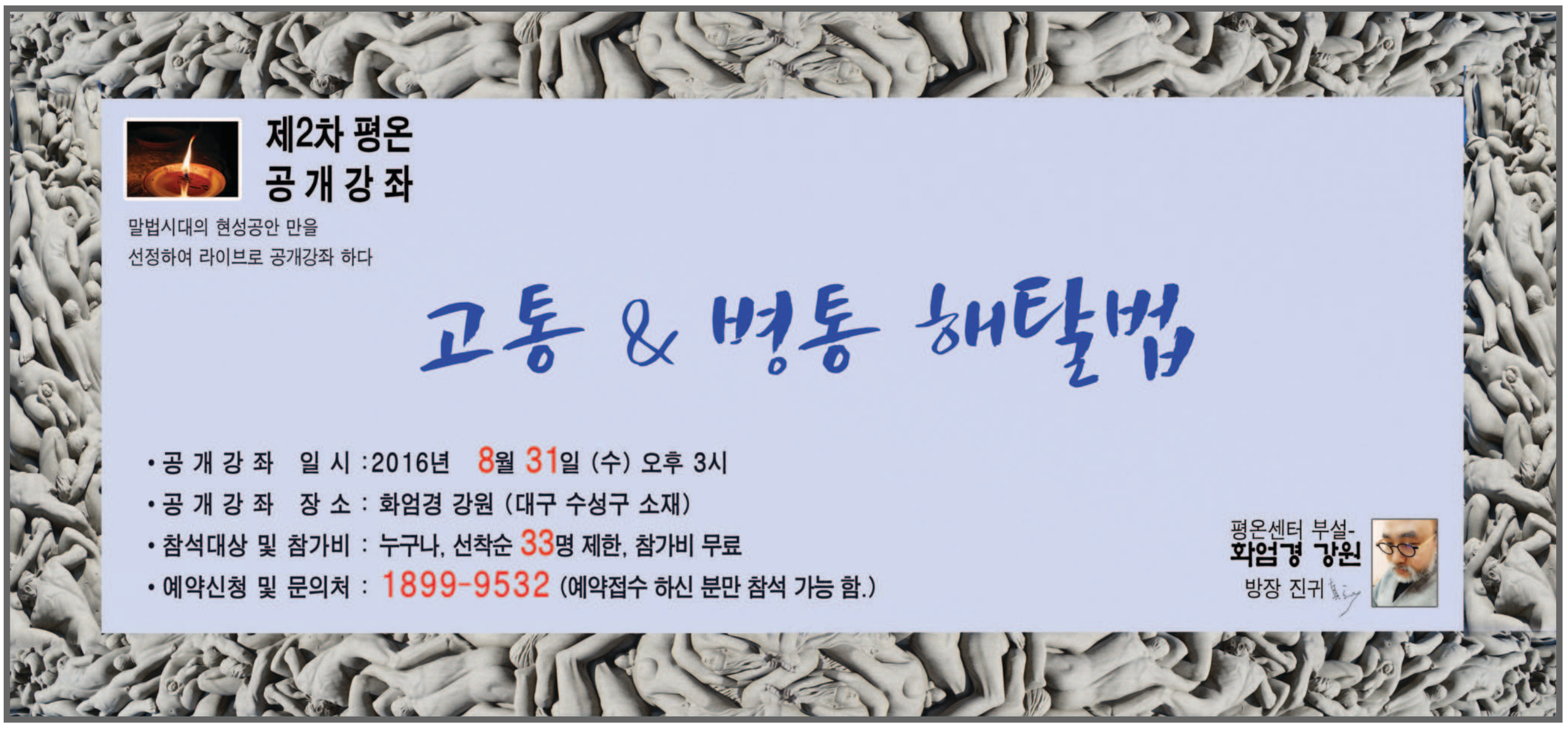
강진 무위사

살아있는 불교 역사의 산실을 느끼고 싶다면 강진 무위사로 가자. 월출산 동남쪽에 자리한 강진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해 '관음사'라 이름 지었다. 이후 조선 명종 10년(1555)에 현재 무위사란 이름을 갖게 됐다. 무위사에는 국보 제13호 극락보전, 보물 제507호 선각대사탑비, 보물 제1312호 아미타여래삼존좌상, 국보 제313호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가 보관돼 있다. 극락보전은 세종 12년에 지었으며, 법당 내부서 아미타삼존불과 29점 벽화가 발견된 바 있다. 지금은 불상 뒤 한 점만 남겨두고 나머지 28점은 전시관에 보관 중이다.(061)432-4974

박아름 기자

전라남도 불교순례길 31코스

북부	· 당일코스	영광 :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장성 : 백양사, 장성호관광지, 장성편백 치유의 숲 곡성 : 도림사, 섬진강 기차마을, 태안사 화순 :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쌍봉사
	· 1박 2일 코스	영광-장성 :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칠산타워, 불갑사, 필암서원, 장성호 관광지, 백양사 곡성-화순 : 태안사, 압록유원지, 섬진강 기차마을, 도림사, 쌍봉사, 고인돌 유적지, 운주사
	· 2박 3일 코스	영광-장성-화순 :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불갑사, 백양사, 운주사, 쌍봉사 곡성-화순-장성 : 태안사, 도림사, 운주사, 쌍봉사, 백양사
동부	· 당일	구례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순천 :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 송광사, 낙안읍성 광양 : 성불사, 광양 매화마을, 장도박물관, 구봉산 전망대 여수 : 흥국사, 오동도, 향일암, 해양엑스포공원
	· 1박 2일	구례-순천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사성암, 송광사, 선암사 순천-광양 : 송광사, 선암사, 성불사 광양-여수 : 성불사, 흥국사, 향일암
	· 2박 3일	구례-순천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사성암, 송광사, 선암사 순천-여수 :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향일암
중·서남부	· 당일	보성 : 대원사, 태백산맥문학관, 보성다원 장흥 : 보림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천문과학관 영암 :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농업박물관 강진 : 무위사, 백련사, 고려청자 박물관 해남 : 대흥사, 고산윤선도유적지, 땅끝 전망대, 미황사 완도 : 신흥사, 완도타워, 장보고 기념관 진도 : 쌍계사, 운림산방, 세방낙조, 용장성
	· 1박 2일	영남-해남 : 도갑사, 도기박물관, 하정웅 미술관, 대흥사, 미황사 해남-완도 : 대흥사, 고산윤선도 유적지, 두륜산 케이블카 영남-강진 : 도갑사, 무위사, 강진다원, 영랑생가, 백련사 장흥-강진 : 보림사, 천문과학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무위사
	· 2박 3일	영남-해남-강진 : 도갑사, 땅끝전망대, 두륜산 케이블카, 백련사, 무위사 장흥-강진-해남 : 보림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강진다원, 가우도, 청자박물관, 고산윤선도유적지 강진-해남-완도 : 무위사, 가우도, 청자 박물관, 장보고기념관, 신라방세트장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지혜 일어나지 않아”

참불선원 강좌… 불교와 정신문화세계

前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도일 스님

최근 인문학 강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주제, 일목요연한 명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스스로 탐구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정체성을 잃은 대한민국의 문화 사대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7월 18일 참불선원 인문학 강좌서 ‘불교와 정신문화세계’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었다. 문화의식 없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라며 “깊이 있는 삶을 위해 불교를 탐구할 것”을 조언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도일 스님은…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득도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향기 잃은 우리문화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개발도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인식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춘 철학이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를 둘러보십시오. 과연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성인 독서량은 1년에 9권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책만이 아닌 만화책까지 포함한 권수입니다. 국민들이 교양을 별로 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왜 필요할까요? 그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교양을 자랑하려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사람다움’을 공부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의 토대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문명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 나들이를 할 때면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이 세상 미남미녀가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강남대로를 걸으면 키도 크고 늘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태가 부유하고 아름다운데, 그만큼 얼굴이나 옷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길거리를 걸으면 그곳엔 아무런 문화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얼굴은 뜯어고칠 줄 알면서 정작 본인이 사는 곳은 뜯어고칠 줄 모릅니다. 얼굴만 예쁘면 되고 자기가 사는 거리, 도시의 표정은 바꿀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놓고 유럽에 가보면 좋다고들 합니다. 그 도시들도 현지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가꿔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버리고 남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뛰어난 점을 무엇을 통해 보여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마을 구석구석에 조그만 신사들이 많습니다. 대만에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토지신 사당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우리 길을 걸으며 맥도날드만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국에는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를 즐기러 우리나라에 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을마다 성황당과 마을 어귀를 지키는 당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교회와 바꿔버린 셈입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굿판을 보면 깜짝 놀라면서 속된말로 환장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무당굿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몇날며칠을 이어서 말입니다. 무당은 요즘말로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온갖 악기가 동원됩니다. 우리 국악과 판소리, 민요의 근원은 굿에 있습니다. 한국이 몇 백년간 전통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세계인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음악입니다. 우리 국악은 전 세계에 견줘도 뒤지지 않을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지만 우리는 굿을 단지 미신으로 치부하며 우리 손으로 문화를 없앴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아차 싶은 마음에 굿하는 사람들을 무형문화재에 지정했지만 명맥이 많이 끊겼습니다.

절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사미계를 받았던 1975년도에만 하더라도 절은 각 종지에 따라 각자 모양을 소박하게 유지했습니다. 화엄종은 해당하는 종지에 따라 절의 모양을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 내부에 들어오면 저절로 지혜와 신심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배려하며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면서 교리는 잊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절이 지닌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게 됐습니다.

불교문화 탐구 중요하다

인문학 공부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한국식 공부법 토대에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영어유치원은 기본이고, 일부 학부모들은 유아들에게 한문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최신 지식을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치지만 아직 불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줄곧 미래에 불교만큼 중요한 학문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교를 믿는 아인슈타인 박사 또한 21세기 이후로 종교적 가치를 지닌 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

연평균 성인 독서량 9권정도 밖에
교양 · 자국문화서 멀어진 국민의식
문화적 소양 없음을 깊이 반성하고
불교 탐구해 지혜얻어야 강국 도약

사람들은 흔히 “불교가 좋다는 건 아는데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점이 서양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반면 서양인들은 어려울수록 덤벼듭니다. 온 국민이 같이 탐구합니다. 선진국민이 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탐구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자녀를 똑똑하게 키워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문화적 교양의 토대를 잘 다져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넓게 볼 줄 모르는 경주마가 되고 맙니다. 어떤 TV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노는지 보니 라면 끓여먹고 게임을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식 없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른들,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문화적 소양이 없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 만찬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선 ‘고려불화대전’을 전시 중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문화적 교양을 쌓은 전 세계 내빈들도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연발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우리의 문화 중 많은 부분은 불교미술품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고려’에서 출발합니다. 고려는 불화, 도자기(그중에서 청자), 팔만대장경이란 값진 문화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들 유물의 예술성은 가히 최고의 경지입니다. 고려를 미워한 중국의 소동파 시인조차도 청자를 쓰려거든 고려 것이어야 한다고 칭송했을 정도입니다.

고려 때 도공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하나 긋고 절 한 번 올리며 완성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요즘 일부 젊은 작가들이 영혼 없이 그리는 불화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신을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흔히 조선의 미를 질박하고 소소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위정자들의 거친 예의와 문화적 수준이 반영되어 ‘변질된 미’일 뿐입니다. 우리 전통 예술품이 얼마나 섬세하고 감각적인지 우리 스스로 되새겨 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과응보’의 교훈 잊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문화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균일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헤아려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해 잊어버린 탓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너무나 쉽게 죄를 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을 겁내는 사람들, 죄를 많이 지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이면에는 이런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아랍테러로 서방세계가 곤욕을 치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랍세계에 행한 잔혹한 일들에 따른 업보입니다. 행동에 따른 결과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법하는 불교적 세계관은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보조 국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고 한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 불교는 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도덕률과 책임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넙죽 엎드려 빌기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우리 선인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문화를 창조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불교의 지혜를 배우고 퍼뜨려야 합니다.

차주 강의 소개

주제 : 법화경과 명상인문학
강사 :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문의 : 1577-369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14~2015.7.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3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5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6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9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10	깨달은 절수행이란?(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청견스님	다르마킹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불법 진리 체득"



날마다 새날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 1천원



불교명절에 담긴 고유 의미 설명
기념해야하는 의미 자세히 해설
불법 자각하는 중요한 밑거름
인생 새 계기 삼는데 안성맞춤

저자인 법륜 스님〈오른쪽 사진〉은 해마다 정초, 입춘, 백중, 동지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에 이르는 불교 명절마다 이 날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왜 불가서 이 날들을 기념하는지 법문을 해왔다. 스님이 전하는 불교 명절과 문화 속에 담긴 이야기는 불자는 물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집중한다.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혹은 자신의 생일, 기념일에 의미를 담아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삼아보고 싶은 사람들, 조금은 다른 삶을 시도해 보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이 펼쳐들면 좋은 책이다. 법륜 스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은 '불법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불법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 같음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교의 명절을 통하여 불법의 의미, 불법의 위대함, 불법의 소중함,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숙여진 고개가 세워지고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고 감았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세상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여자라서, 대학을 못 나와서, 신체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혼자 살아서, 피부 빛깔이 달라서 라는 등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계기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을 통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한다. 원래 그 진실, 진리 그대로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이 천명한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대로 존귀하다'는 말대로 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참 뜻이 되는 것이고 불교 명절의 현대적 의미가 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 명절의 본래 의미들〉

1. 정초=행복 첫단추 끼우는 기도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는 '나 혼자만'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좀 더 넓게, 크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과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2. 입춘=깨달음의 새 길목 시작

입춘 뒤에는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얼음이 녹습니다. 입춘 뒤에 내리는 비가 구석진 곳의 눈을 녹이듯, 고비를 넘긴 수행자는 실수를 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3. 봉축=나를 사랑하는 자, 붓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연등 달고 행사하는 것은 축하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이보다 우리 스스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말문이 틔고 허리가 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새로 태어나는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4. 출가일=돌아갈 집 불살라라

결혼해서 직장 생활 하고, 부모나 자식과 같이 살아도 가족이 귀찮지 않고, 돈을 벌든 안 벌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는 삶, 같이 살 때 행복하고 이별해도 슬프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출가의 삶입니다.

5. 성도일=길을 열어 함께 가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더라도 부처님 혼자만 해탈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열반에 드셨으면 성도일이 부처님에게는 좋은 날일지는 몰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후,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6. 열반일=여래, 깨달음의 지혜

열반은 '제일 기쁘다'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가장 괴로운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면 살아 있는 다른 날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전부 다 기쁨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7. 백중=참회하고, 법을 깨치라

붓다는 진리를 깨쳤기에 삶과 죽음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만 출렁거리는 바다처럼 물끄러미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꺼이 잘살다가 파도가 일어났다 사그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가 되면 아무 두려움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 역시 이 도리를 깨친다면 즉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8. 동지=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동지에는 봄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을 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추위가 아직 남았지만 이제는 봄이 올 가능성이,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지는 우리의 문화가 되었지만 수행자라면 마땅히 수행적 관점에서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한의 추위가 앞으로 남아 있지만 동지를 지나면 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수행적 관점에서도 동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주일 기자

기도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답

틱낫한 기도의 힘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 불광 펴냄 | 1만 3천원



저자는 이 책에서 평소 기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 다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진솔히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품곤 하는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가 선명히 다가온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난 후에는 기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떨림이 느껴진다. 그럼 그 다섯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하나, 기도는 정말 이뤄지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기도는 이뤄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의 차원에서 보면, 진실한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집니다.

둘, 기도를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인가요?

-믿음,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기도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셋, 기도가 이뤄 내는 건 무엇인가요?

-기도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기도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무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 믿음이 약하면 기도에 효험이 없을까요?

-기도가 만들어 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하더라도 기도는 분명 효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무언가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무언가를 바꿔 놓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자기 안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지요. 물론 믿음이 강하면 변화는 더 클 것입니다.

다섯,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불교에서는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조상님이든 해든 달이든, 모든 것은 기도하는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아울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기도를 떠받치는 세 기둥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마음챙김(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온전히 알아차리기), 집중, 깨달음이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 수행을 통해 이르게 되는 신비하고 고매한 경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물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나와 하느님, 나와 부처님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나는 물론이고 소나무, 달, 별에게도 그 분들이 지닌 사랑과 마음챙김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마음챙김, 집중, 깨달음이 함께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에 마음챙김과 집중과 깨달음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존중이 참된 종교의 가르침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㊽ 영감대왕을 물리치는 손오공 일행

요괴 도사들 물리쳐 거지국 스님들 구하고, 다시 내딛는 구법의 길, 날은 저물어 쉴 곳을 찾는데 800리 폭을 가진 강이 가로막는다.

이름도 거룩한(?) 하늘로 통하는 강, 통천하(通天河)란다.

아득한 심정으로 강가 마을을 찾으니 제법 큰 마을이 나오고, 마침 제 지내는 소리가 들린다. 반갑게 찾아드니 진가장(陳家莊),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제 이름이 죽을 사람을 위해 미리 지내는 제란다. 들어보니 사연이 기구하다.

통천하에 수신(水神)이 있는데 이름하여 신령스럽게 감응하는 영감대왕(靈感大王)! 이 신이 해괴하다. 해마다 우순풍조(雨順風調)하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또 해마다 동남동녀 하나씩을 바쳐야 된다네.

떳떳한 신이 아님이 분명하구나. 일행이 머무른 집, 제 지내는 집 진가장 형제의 자녀들, 형님의 딸 아우의 아들 그것도 외동딸 외동아들이 제물로 뽑혔다네.

피할 길 없는 재앙에 피눈물 흘리며 죽음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제를 지낸단다.

현장법사의 자비심과 손오공의 영웅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손오공은 남자아이로 둔갑하고 저팔계는 여자 아이로 분장하여, 제물이 되어 사당에 오른다. 밤 늦자 으스스한 찬바람 불고 영감대왕 현신이요! 손오공의 여의봉에 날아가오!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으련만, 빗맞았소!

영감대왕 놀라 달아난 뒤, 고기비늘만 몇 개 남은 걸 보니 물고기 요괴가 분명하다오!

맛있는 동남동녀 기대하고 갔던 영감대왕 분기탱천, 복수를 꿈꾼다.

휘하에 있는 쏘가리 할멈이 꾀를 낸다. 영감대왕 기뻐하며 그 꾀에 따른다.

술법을 부려 휘이익~~~드라이아이스 확확확!!! 800리 통천하를 두껍게 얼려버린다.

갈 길이 바쁜 손오공 일행, 아들 딸 살려준 은혜에 기뻐하는 진씨 형제 배웅 받으며 얼어붙은 통천하를 건넌다. 당연히 준비된 함정! 중간에 얼음이 좌좌작!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거기에 용마까지 재주를 부려 벗어나지만 현장법사야 재주 없는 것이 재주! 풍덩 빠져 요괴한테 붙들려 간다.

세 제자가 구하려 여러 번 쳐들어가지만 손오공 무서운 재주를 두려워한 요괴, 물속 궁전 문을 튼튼히 걸어 닫고, 진흙으로 성벽까지 쌓고 버티니 수가 없다.

결국 급하면 보살님! 손오공 남해로 날아 관세음보살님 찾는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거동이 수상타. 손오공 기다리게 해놓고 뒷산 대밭에 가셔서 대껍질 벗겨 물고기 바구니를 만들어 오신다. 그리고 휘익, 통천하로 함께 돌아와 물고기 바구니를 물속에 던져 넣고는 이상한 게송을 읊조리신다.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남아라!남아라!라!"

그리고 건져 올린 대바구니 금빛 찬란한 금붕어 한 마리가 담겨있다. 바로 요놈이다!

통천하에서 야료를 부린 요괴의 정체가 바로! 원래 관세음보살 거처의 못에 살던 금붕어가 매일 머리 내밀고 경전 읽는 소리 듣더니 수행하여 신통을 얻었단다.

큰 비에 물이 넘칠 때 도망쳐 요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단다. 어쩐지 관세음보살님, 왜 왔느냐 묻지도 않고 뭘 잘못해서 그리 되었느냐 구박도 않고 대뜸 대바구니 들고 달려오시더니 지은 죄(?)가 있으셨구나!

아무튼 이리하야 통천하의 어려움은 해결되었는데 그때 금붕어 잡아내시던 보살님 모습을 그린 것이 세간에 전해져서 33관음 가운데 어람관음(魚籃觀音)이 되었다나?

전번엔 선재동자의 이력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어람관음의 내력까지! 서유기 한번 읽으면 불보살님의 경력 이력! 환하게 알게 되겠네!

거지국에서 손오공의 활약은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술법대결이 제법 볼만했는데…. 그런 거 다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요.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간단히 줄거리만 말해보죠. 머리 자르기, 배 가르기,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를 두고 술법을 겨루지요.

손오공은 머리가 잘리자, "머리야 오너라!"하고 머리를 불러요. 그런데 호력대선이 술법으로 토지신을 움직여 머리를 붙들고 있게 해요. 그러자 손오공은 "네가 안오면 내가 가지!"하는 식으로 "자라나라!"하면서 목을 늘려서 머리에 붙여버리죠. 호력대선도 이에 응하여 머리를 잘리는데, 손오공이 술법을 부려 털 한 오리로 개를 만들어 머리를 물고 달아나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머리가 돌아오지 않아 호력대선은 죽어버리죠. 다음 배 가르기…. 손오공은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고선 다시 찬찬히 정리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붙어라!" 한마디에 끝! 녹력대선이 이에 맞서서 역시 배를 가릅니다. 손오공이 역시 술법으로 매를 만들어 내장을 가로채 달아나버리죠. 그래서 내장 잃은 녹력대선도 죽죠. 다음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 손오공에게 이정도야 일도 아니죠. 천천히 목욕을 즐기다, 대추씨만 하게 변해 솥바닥에 붙어 죽은 척까지 하네요. 그래서 좀 소동이 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긴 생략! 마지막 남은 양력대선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손오공이 술법을 부려 몸을 숨기고선 가보니, 강이 가로막네요. 강폭이 자그마치 800리나 된다는 통천하! 그리고 앞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약한 강의 신이 살고 있지요. 영감대왕(靈感大王)이라는. 영감을 얻었다는 바로 그 영감입니다. 신령스런 감응이죠. 그런데 이 영감대왕이 삿된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주면서, 무언가 부당한 갈취를 하는 신인 것이지요. 신이 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재의 격이 높아서 신인 것입니다. 만약 신이 꼭 우리 인간들의 거래관계처럼 무어 얼마 받으면 거기에 얼마 준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신의 격에 맞겠어요? 그건 장사꾼이지요. 신의 격에 맞는 모습이라면, 받지 않아도 무한히 베푸는 사랑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의 사랑을 불을 막 때는데 기름이 차가운 거예요. 살펴보니 북해의 냉룡(冷龍)이 술법을 부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하는 짓이야!" 하는 손오공의 호통에 용은 달아나고, 양력대선은 기름에 튀긴 양? 애구~~. 잔인한 표현으로 삭제! 그렇게 되어 호랑이, 사슴, 양이 변한 요괴도사를 물리치고 떠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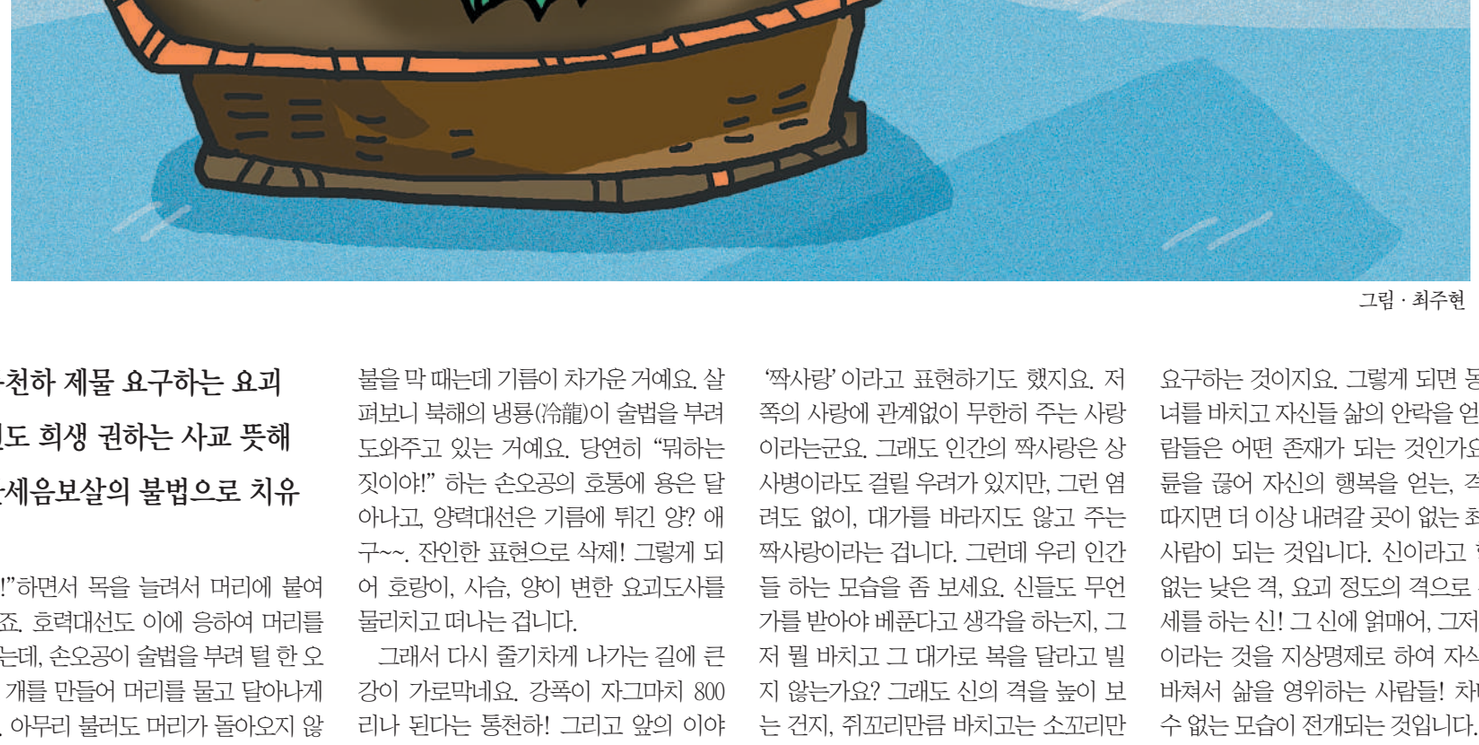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통천하 제물 요구하는 요괴
신도 희생 권하는 사교 뜻해
관세음보살의 불법으로 치유

그래서 다시 줄기차게 나가는 길에 큰 강이 가로막는다. 강폭이 자그마치 800리나 된다는 통천하! 그리고 앞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약한 강의 신이 살고 있지요. 영감대왕(靈感大王)이라는. 영감을 얻었다는 바로 그 영감입니다. 신령스런 감응이죠. 그런데 이 영감대왕이 삿된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주면서, 무언가 부당한 갈취를 하는 신인 것이지요. 신이 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재의 격이 높아서 신인 것입니다. 만약 신이 꼭 우리 인간들의 거래관계처럼 무어 얼마 받으면 거기에 얼마 준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신의 격에 맞겠어요? 그건 장사꾼이지요. 신의 격에 맞는 모습이라면, 받지 않아도 무한히 베푸는 사랑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의 사랑을 '짝사랑'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저쪽의 사랑에 관계없이 무한히 주는 사랑이라는군요. 그래도 인간의 짝사랑은 상사병이라도 걸릴 우려가 있지만, 그런 염려도 없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는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신들도 무언가를 받아야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저 뭘 바치고 그 대가로 복을 달라고 빌지 않는가요? 그래도 신의 격을 높이 보는 건지, 쥐꼬리만큼 바치고는 소꼬리만한 복이 오기를 바라지요. 하하. 그게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의 격을 낮춰 보면서 신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습 같아요. 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된 참된 믿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격도 높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천하의 수신은 정말 격이 낮아도 너무 낮은, 정말 요괴 수준의 신이네요. 자신이 베푼 것의 대가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네요. 동남동녀(童男童女)라니요.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지극한 사랑을 끊는 잔혹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동남동녀를 바치고 자신들 삶의 안락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천륜을 끊어 자신의 행복을 얻는, 격으로 따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낮은 격, 요괴 정도의 격으로 신 행세를 하는 신! 그 신에 얽매어, 그저 생존이라는 것을 지상명제로 하여 자식들을 바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남의 이야기로 넘길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나 사교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교 집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는 사람 목숨의 소중함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더라구요. 영생인지, 천국인지 몰라도, 그것을 위해 남을 해치고, 결국 생명까지 해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영감대왕에 의존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어요?

마침 머문 집이 제물로 바쳐지는 동남동녀의 집이었으니! 우리 정의의 사도들, 손오공 삼형제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 회에 그 활약을 보기로 해요.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합창단으로 어린이 포교 활력 'UP'

7월 17일 관음사 '단이슬 합창단' 연습 현장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단이슬 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했다. '부처님의 감로수(甘露水)'를 의미하는 단이슬 합창단은 어린이 뿐 아니라 젊은 학부모의 신심도 북돋우고 있다.

7월 17일 관음사 환희정 1층서 진행된 단이슬 합창단 연습 현장은 아이들의 맑은 음성으로 가득 찼다.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해 힘들 법도 하건만 아이들은 한 시도 흐트러짐 없이 연습에 임했다. 시종일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찬불가와 동요를 불렀다.

정필윤 지휘자(신라대 성악 교수)는 불교적 가르침 뿐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까지 고려한 곡들을 선정했다. 또한 "칭찬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교육철학으로 합창 지도에 임하고 있다.

최예원 학생(남성초 · 6)은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신이 난다"며 "특히 '산에서 야호 하듯 발성해라'며 입모양을 짚어주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배우기 매우 편하다"고 말했다.

정서하 학생(오션초 · 3)은 "칭찬을 받으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웃었다.

합창단은 포교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실력도 갖추기 위해 탄탄한 기본기를 닦고 있다. 정 지휘자는 입모양 뿐 아니라 발음 그리고 발성 까지 꼼꼼히 지도한다. 정 지휘자는 "합창에 필요한 정확한 음을 내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소프라노 · 앨토 등 다양한 파트도 나눠 전문성을 갖추겠다"며 "아이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7월 3일 창단… 70여명 참여
자모회 총 33명까지 구성돼
어린이 · 부모 포교 '동시에'
전문 지휘자 지도로 실력까지

7월 3일 창단한 단이슬 합창단은 현재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지만 유치부도 참여가 가능하고, 앞으로 졸업생과 연계해 중 · 고등부로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연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관음사 환희정 1층에서 진행된다.


부산 관음사가 7월 3일 단이슬 어린이 합창단을 창립했다. 사진은 7월 17일 관음사 환희정 1층에서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

'단이슬 합창단' 창립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어린이 불자가 늘어나고, 자모회 회원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합창단 자모회는 총 33명으로 차량 및 공양, 청소까지 모두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김봉진(38) 자모회 부회장은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해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다"며 "자모들끼리 친목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절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합창단 창단은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전폭적 지지로 가능했다. 지현 스님은 단복을 비롯해 수강료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30년 전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지만 200명에 이르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20명 혹은 10명으로 줄었다"면서 "어린이 합창단 창립 후 많은 아이들이 다시 절을 찾는다.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부처님이란 것을 알려주려면, 먼저 절에 오게 해야 한다"며 포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정수사, 저소득 난치병 환우 돕기 나서

7월 14일 부산교육청에 성금 3000만원 전달

부산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이 지역 저소득 난치병 학생들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원광 스님은 7월 14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학생 치료비와 생활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픈 학생들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한편 원광 스님은 2004년에도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이 실시됐으며, 이외에도 홀몸노인 무료급식 · 재해재난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이 7월 14일 저소득 난치병 질환 환자 학생들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아프리카 선생님들, 대구 능인중고 방문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 등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과 아프리카 케냐 현지 교육 지도자 4명이 7월 14일 불교종립학교 능인중 · 고등학교(이사장 자현)에 방문했다. 탄하 스님 등은 학교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활동 안내, 영어수업 참관, 급식 참관 등에 임했다. 또한 뇨타 레오나르드 은구기 영화초등학교장 등 케냐 교육 지도자들은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조상승 능인고 교장은 "케냐 선생님들의 이번 방문으로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국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과 아프리카 케냐 현지 교육 지도자 4명이 7월 14일 불교종립학교 능인중 • 고등학교에 방문했다.

한편 능인중 · 고 학생들은 직접 모금한 성금 130여만 원과 헌옷, 신발 등을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본생경'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제10회 청소년 명상 캠프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아신사사나)는 부처님 본생경을 주제로 한 영어캠프 '제10회 청소년 명상 캠프'를 개최한다. 총 2차에 걸쳐 8월 3~7일과 8~12일 경주 내남면 박달로 마하보디 선원서 진행된다.

지도 법사는 악가삿도 스님이 나선다. 악가삿도 스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 '3가지만 알면 되는 쉬운 독해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별 토론 및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측은 "부처님 본생경은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언어, 청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은 장려한다. 반면 악한 마음, 불순한 언어 사용, 어리석은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영어 뿐 아니라 본생경 주제 중 '올바른 언어 사용'이란 세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중 ·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이다. 회비는 15만원. (054)746-9750

하성미 기자

삼광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28~29일 미니올림픽 등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7월 28~29일 '어린이 하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템플스테이서는 물총놀이 · 제기차기 · 징검다리 · 방석 쌓기 등 미니올림픽을 비롯해 촛불발원,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삼광사 측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절에 대한 친숙함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명예경찰 소년단은 7월 25일 삼광사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연꽃 만들기, 탑돌이, 명상 등 참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051)808-7111

박아름 기자

우리문화 연구원, 2016 전주 연꽃문화제 개최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 공연 · 체험프로그램 '다채'

전주 덕진공원서 연꽃의 향연이 펼쳐졌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이사 성우, 금산사 주지)은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2016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덕진공원 호수에 활짝 핀 연꽃을 배경으로 열린 이번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첫째 날인 16일엔 식전행사로 전통 무용과 훌라춤 공연, 에델바이스 백밴드 공연, 혜광 스님의 색소폰 연주, 사물난타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개회식 후에는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 · 군산 그린비 합창단 · 참좋은 우리절 합창단 ·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불교 합창제가 이어졌으며, 가수 편승엽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주 연꽃가요제 예선과 본선이 열렸으며, 연꽃 사진 촬영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밖에 행사장 곳곳에서 연꽃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연차 시음, 염주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굴렁쇠 굴리기,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은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2016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남원선원사는 시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으며 전주 황방사와 남고사는 전주비빔밥을 제공했다.

전주 연꽃문화제는 금산사를 주축으로 (사)우리문화연구원을 발족하고, 연꽃문화제를 불교문화 알리기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청암봉사협의회

회 장 김영홍

총 무 김애준 감 사 최명희

이 사 김도연 김선자 김애자



사단법인 청암봉사협의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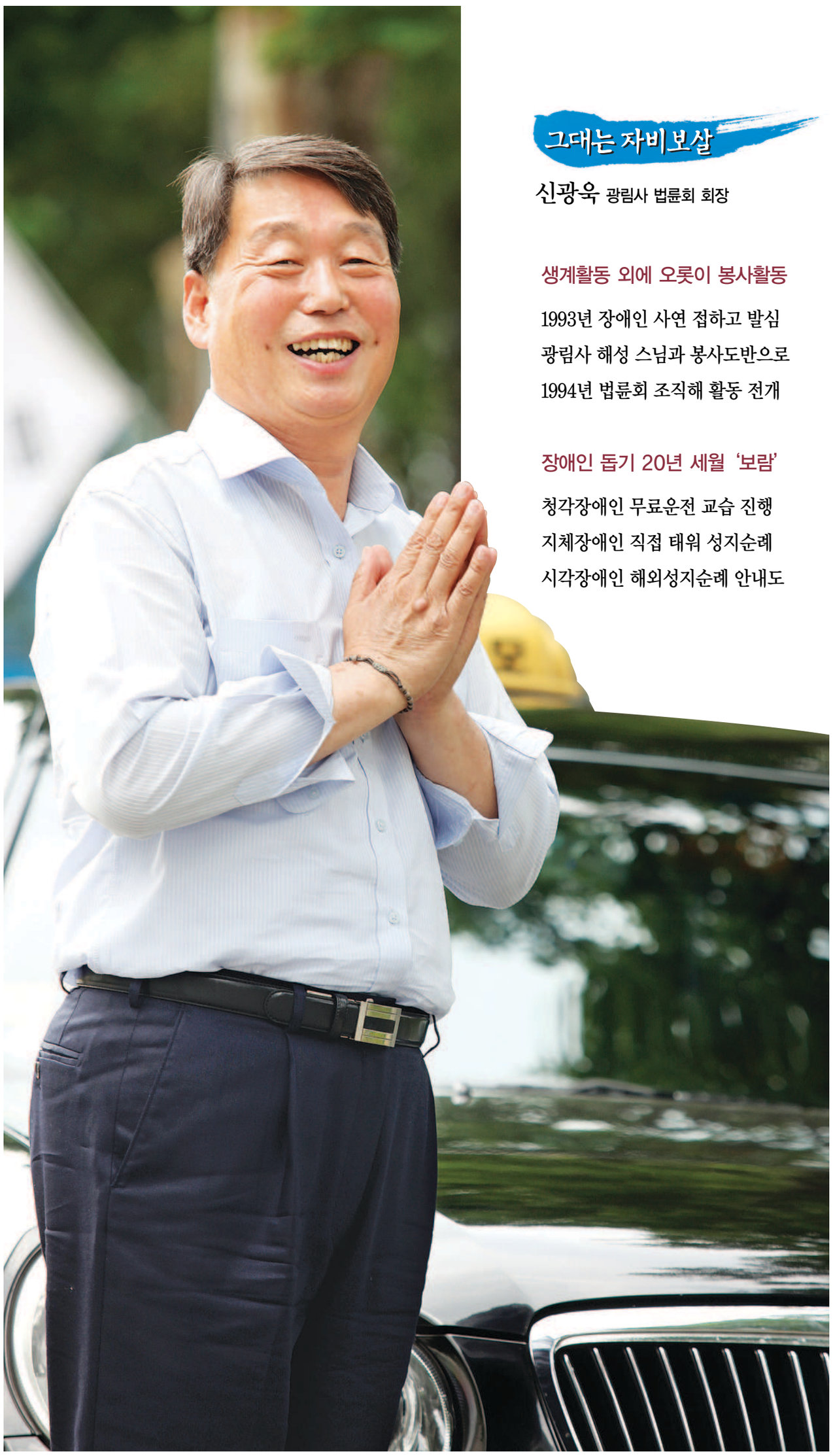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그대는 자비보살

20년 장애인들의 손과 발…

신광욱 광림사 법륜회 회장

생계활동 외에 오롯이 봉사활동

1993년 장애인 사연 접하고 발심
광림사 해성 스님과 봉사도반으로
1994년 법륜회 조직해 활동 전개

장애인 돕기 20년 세월 '보람'

청각장애인 무료운전 교습 진행
지체장애인 직접 태워 성지순례
시각장애인 해외성지순례 안내도

"물질로 나눌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베풀면 되지요. 운전이라도 잘하니, 장애인들의 발이 돼야겠지요."

이제 막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한 중년의 신사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다. 어느 직장이었으면 이미 퇴직해 손자들의 재롱을 받을 나이인 65세에도 이 신사는 '아직 한창'이라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렇다. 이 신사의 직업은 택시기사다. 끼어들기와 급정거 등이 판치는 서울 도심을 그는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운전해나갔다.

올해로 33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신광욱(법명 無二 · 65) 씨의 이야기다. 그는 택시 운전을 하며 송과 광림사 연화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20년 넘게 펼치고 있다. 청각 · 지체장애인을 거쳐 이제는 시각장애인까지. 장애불자들의 '눈과 귀, 발이 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움이 느껴진 7월 18일 송과 광림사 연화원에서 그를 만났다.

라디오서 장애인 사연 접하며 발심

신 씨가 택시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은 33년 전인 1983년부터였다. 1952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상경했다. 다들 그랬듯 시골에서 입 하나 줄이기 위해서였다. 특전사에 다니다 1976년 제대한 그에게는 생계유지가 화두로 다가왔다. 혈혈단신인 서울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잡은 것이 핸들이었다. 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유망직종이었다. 다행히 군생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력이 인정돼 처음부터 개인택시를 몰게 된 행운아닌 행운을 얻었다.

홀로 택시를 몰아야 하는 택시기사에겐 라디오가 친구다. 1993년 라디오에서 우연히 광림사 해성 스님의 인터뷰를 듣게 됐다.

"불교가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과 홍천 수태사에 어려서부터 다녔지요. 1980년대 택시운전을 하며 강동구 마하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평소 불교방송을 즐겨 들었어요. 1993년 2월 강부자 씨가 진행하던 '피안을 향하여'에 연화원 해성 스님이 출연하셨어요. 장애인들을 돕자는 구구절절한 말씀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해성 스님은 당시 불자들이 교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을 직접 찾아 수행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런 필요성에도 장애인들은 사찰에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씨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스님에게 전화를 해 포이동 연화원 법당에서 만났다. 신 씨의 원력은 자신 혼자만의 봉사로 끝나지 않았다. 함께 다니던 불자 택시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1년 동안 모임 이름조차 정하지 않은채 봉사활동을 전개하던 신 씨와 동료기사 10명은 1994년 5월 5명을 시작으로 '법륜회'를 출범시켰다.

장애인 태우고 전국사찰 누벼

법륜회는 청각장애인 성지순례 도우미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남양주 불암사를 비롯해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여주 신륵사 등 전국사찰을 누볐다. 신 씨와 법륜회의 청각장애인 봉사활동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지체장애인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청각장애인들만 데리고 가지 말고 함께 가자는 요청이 몰려왔어요. 평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사찰에 아예 가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요."

신 씨는 이에 1995년부터 지체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성지순례 전 법륜회 회원들은 지체장애인들의 집주소를 받아서 찾아가 택시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장애인시설, 특히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되지 않았던 당시 사찰환경으로 인해 지체장애인들이 용변을 볼 때면 법륜회 회원들이 2~4명씩 붙어 도와야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폐를 끼치기 싫은 지체장애인들은 굶기도 했다.

"하루는 지체장애인들이 성지순례 전날 저녁부터 굶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가고 싶다는 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해성 스님은 "그만큼 말로만 듣던 사찰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이 성지순례 며칠 전부터 설렘으로 잠을 못잔다고 한다. 사찰에서 법문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애인들도 많다"고 첨언했다. 스님은 "이들의 성지순례는 법륜회 거사님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휠체어 편의시설이 없어 지체장애인 한 명당 4명씩 붙어 휠체어를 들고 법당까지 나르곤 했다"며 신 씨 등 법륜회원들의 노고를 전했다.

택시기사로서의 생업과 봉사자로서의 삶을 함께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되어 있다. 이 일정을 맞추고, 중요한 행사가 쉬는 날에 맞지 않으면 일을 쉬기도 했다.

"예전에는 네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공부하고, 사전답사를 해야 했지요. 틈틈이 쉬는 날에 하려다 보면 한 번 성지순례 준비하는 게 3주가량 걸립니다."

법륜회 모든 회원들은 생계가 달린 택시운행을 멈추기도 하고 자비를 행하며 장애인들을 수송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원력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다. 여기에 법륜회 부인들로 구성된 보현회가 점심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을 하며 도왔다. 매년 10차례 성지순례와 봉사를 진행했으며 동참 택시가 30여대에 달하기도 했다.

장애인음악회 효시된 용주사 순례

당시 법륜회 회장을 맡고 있던 신 씨와 해성 스님은 두 차례 성지순례 후 색다른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바로 사찰에서 장애인 음악회를 여는 것이었다. 1996년 수원 용주사 성지순례를 앞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 씨는 "장애인들이 단순히 사찰을 보고, 법문을 듣고 오는 것 보다, 스님과 사찰의 대중들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추억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불

신광욱 씨는… 1952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1968년 상경했다. 1976년 특전사 제대 후 택시 운전을 하게 됐으며, 1993년 광림사 해성 스님이 출연한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장애인들의 사연을 듣고 봉사자로 나섰다. 동료 택시기사들을 모아 광림사에서 법륜회를 조직해 성지순례 도우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륜회가 진행하는 '중증장애인 세상보기'는 1996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우수상을, 2003년 장애인먼저실천본부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을 돕느라 술을 마시지 않아 건강해졌다는 신 씨. 그의 모습에서는 6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젊음이 느껴진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자비 싣고 달리는 '택시 보살'

자로서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문제는 사찰 측의 허락이었다. 지금도 남아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

"사찰음악회가 지금과 같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어디 신성한 사찰에서 음악을 부르냐는 호통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을 데려와 음악회를 한다니 더욱 그랬지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습니까."

신 씨는 "겨우 허락을 받아 음악회를 여니 오히려 사찰의 스님들이 더 좋아했다. '읍읍읍' 이렇게 말도 되지 않지만 소리를 내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성지순례 도우미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륜회 회원들은 불교교리 공부 등 불자신행모임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택시 차량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쓰였다. 신 씨를 비롯한 법륜회 회원들은 만공 스님 법문 테이프 등을 돌려 들으며 운행 중에도 교리공부를 했다.

해성 스님은 이런 법륜회 회원들을 위해 정병조, 故김상현 교수, 동봉 스님 등 불교석학들을 초청해 이들을 위한 불교강좌를 열었다.

신 씨는 "저희 운전기사들이 어디가서 이런 공부를 하겠냐"며 "교수님들이 운전기사 10여 명을 앞에 두고 거의 일대일 강습을 해주셨다. 이때 불교에 대한 생각이 정립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무료 운전교습, 가장 기억에 남아

신 씨와 해성 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8년 청각장애인들에게 무료 운전교습을 했을 때의 일이었다.

신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간 곳이 경찰서"라며 웃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애인들이 무면허 운전을 해 적발되어 신 씨가 참조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광림사 해성 스님이 면허를 딴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당시에 청각장애인들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광림사 해성 스님이 경찰서로 가곤 했다. 당연히 해성 스님의 기사 역할을 맡기도 했던 신 씨도 경찰서를 자주 가게 됐다.

"사연을 들어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계속 떨어지니 포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청각장애인들은 실주행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어 면허만 따면 되는데 말이죠."

해성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은 어학능력이 떨어져 문장구조 파악 등이 안된다. 실생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책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신 씨를 비롯한 법륜회 회원들과 해성 스님은 장애인 운전교습소를 차리기로 했다. 복지라는 개념이 막막했던 그 때 신 씨와 해성 스님은 구청으로 가 장애인 교습용 차량, 운전강사, 제반경비 등을 광림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습 자격을 획득했다.

문제는 차량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종단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종단사태가 일어나며 이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법륜회와 해성 스님은 차량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송파구에서 열었다. 이 찻집에는 많은 이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동국대 수화동아리 손짓사랑이 수화노래발표회를 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사연이 소개되며 후원금이 모였다. 차량을 마련하고 첫 교습소를 열자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교습 신청이 이어졌다.

"상도동에서 온 한 장애인은 90번을 떨어졌다고 했어요. 응시원서를 보니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스티커가 빼곡했습니다. 함께 지내다보니 눈썰미는 있는 친구인데, 교본만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스터디하고, 실제 주행도 꼼꼼히 가르쳤죠."

이런 식으로 면허를 딴 서울지역 청각장애인들이 400명이 넘는다. 8년 가량을 진행해 2007년이 되자 면허를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면허를 따게 됐다. 이후 신청자가 줄어 드문드문 진행되는 교습소 운영에 광림사와 법륜회는 교습소를 구청에 이관했다.

해성 스님은 "많은 장애인들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또 "종교간 인식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며 "다른 종교를 가진 장애인들이 처음에는 운전교습 접수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종교는 개종을 해야 가르쳐주는데 혹시 불교로 개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 고 했고, 이에 감동받은 장애인들이 각자의 교회와 성당에서 사연을 소개해 스님이 이들 종교활동에 초청받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봉사활동 전개

법륜회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 4회 가량 사찰순례를 진행하고 참석회원도 5~10명 수준으로 줄은 상태다.

신 씨는 "경기가 예전보다 나빠져 택시기사들의 생계문제가 커진 것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다"고 했다. 45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신 씨만 하더라도 현재 65세다.

"예전에 봉사자로 활동하시던 분이 나이가 들어 휠체어를 타고 봉사를 받는 분으로 돼서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체장애인분들은 힘 써야 할 일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원력만은 그대로다. 2013년 구성된 조계종 장애인 전법단 캄보디아 성지순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며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술 마시고 놀지 않았을까요. 봉사를 하고 나서 인생을 흐지부지 보내지 않으니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찹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장애인 도우미를 하고 싶다는 신 씨. 신 씨는 후배 세대들에서도 봉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일터인 도심을 향해 애마의 시동을 걸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96년 진행된 지체장애인들과 목아불교박물관 관람.


2011년 장애인 나들이에서 활동하는 신광욱 씨.

세월 흘러도 봉사 의지는 '청춘'

동료봉사자들 고령자가 대부분
지체장애인서 시각장애인 돕기로
"봉사하니 오히려 건강합니다"


신광욱 씨가 20년 도반인 해성 스님과 밝게 웃고 있다.

전법일기

감동 선물한 젊은 의경

경찰병원에는 경찰가족과 젊은 의경들이 많이 입원해 있다. 그 중에서 오래 전에 입원했던 한 전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이 청년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경과가 호전되면서 일반병실로 옮겨왔다. 병실을 순회하다가 만난 그는 시위를 진압하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 법당을 찾아왔다. 그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큰 아픔을 겪게 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앞으로 하반신 불구 장애인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듭니다."


그림 · 박구원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는 자기 근본인 불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무척 마음이 아프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청년과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장 누구보다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을 그가 안쓰러워 힘이 될 만한 이야기와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의기소침해있던 청년의 눈이 반짝이는 듯했다. 그때부터 그는 좌절감을 떨쳐내고 자신의 불성을 믿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매일 밤마다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굴러내려 화장실을 기어다니며 힘을 길렀다. 또 휠체어를 직접 잡고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병실 복도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런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조금씩 발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두 달 가까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원 이후 장애 진단을 받아 부대로 복귀하지 못한 채 제대해 고향인 충청도에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다리를 다쳤던 그 청년이었다.

"스님! 지금 밖에 잠시 나와 보세요!"

들뜬 목소리로 다급하게 나를 찾기에 전화를 끊고 병원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청년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는데 두 다리로 멀쩡히 걸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순간 감동이 밀려왔다.

"축하해요!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이게 다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든 재활과정을 거쳤는지 얘기를 들었다. 그는 제대 후 자신의 불성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활에 임했다고 한다. 무척 지난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특히 여겨 새 차를 선물해줬다고 했다.

청년과의 반가운 재회를 마치고, 얼마 뒤 다시 전화를 받았다.

"스님, 저 태권도 사범이 됐어요. 이제는 미국에 도장을 차려서 태권도를 알리려 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그에게 나 역시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처럼 바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다.

오늘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환자분들이 많다.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충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길 서원해본다.

성범 스님(서울 경찰병원 경승실장)





아홉 가지 마음의 머무름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사람들의 마음이 외부세계로부터 받는 자극과 유혹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자극을 받거나 유혹을 당하면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다. 지관(止觀)의 수행은 이러한 동요를 막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원효는 자신의 신론소(해동소)에서 〈유가론〉의 말을 인용,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멈추는 아홉 가지의 예를 제시하였다.

①**내주(內住)** : 외부의 세계와 얽힌 객관대상 때문에 일어난 산란한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아들여 마음을 안으로 안정되게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등주(等住)** : 처음에는 대상세계에 얽매인 마음이 거칠게 동요해서 평등하고 원만하게 머물 수가 없으나 차츰 그 대상세계에 대해 하나하나를 차별적으로 보는 생각을 없애 간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정화하는 방법들을 써서 거친 생각들을 억누르고 미세하게 하여 한곳으로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③**안주(安住)** : 만약 마음이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평등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을 방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깥세계로 흩어지려는 기미가 있으면 다시 마음을 모아 안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④**근주(近住)** : 마음을 안으로 집중시키되 바깥세계를 멀리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이 머문다 하는 뜻에서 근주라 한다.

九住, 평화로운 마음 상태
사마타 수행을 적극 권장

⑤**조순(調順)** : 여러 가지 모양(相)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 등 오근(五根)이 일으키는 번뇌와 탐(貪)·진(瞋)·치(痴) 등 해로운 생각과 남(男)·여(女) 등의 모양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은 선정을 방해하는 화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고, 공연히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조절하여 순하게 하므로 조순(調順)이라 한다.

⑥**적정(寂靜)** :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과 시기, 질투, 원한, 해침 등 모든 악(惡)을 찾아다니는 번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이러할 때 악을 찾아다니는 번뇌를 퇴치하려는 힘으로 마음이 흘러 흩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정이라 한다.

⑦**최극정(最極靜)** : 조순이나 적정의 경우가 나타나지만 생각이 잘못되면 다시 동요가 생기고 그것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다시 그것을 계기로 애써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지극히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를 최극정이라고 한다.

⑧**전주일취(專住一趣)** :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노력함으로써 조금도 결함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삼매(三昧)가 생기는 것을 일컬어 오로지 한 가지에 머문다는 뜻에서 전주일취라 한다.

⑨**등지(等持)** : 한없이 여러 차례로 닦고 또 닦아 그렇게 닦은 것이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되어 이제는 별도로 방편을 써서 노력함이 없어도 자유로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쓸 수가 있게 되므로 이를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증지라 한다.

이상의 구주(九住)는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외부의 경계를 의식하면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욕구에 따라 중생의 마음은 흔들리고 분열된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를 위해 기신론에서는 사마타의 수행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 없이 사물에 대한 정확하고 투철한 관찰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사마타(止)에 의한 관찰법 비파사나(毘鉢舍那 :觀)를 네 가지로 구종심주에 이어 설명하고 있다. 능정사택(能正思擇)과 최극사택(最極思擇), 주변심사(周遍尋思), 주변사찰(周遍伺察)의 4가지인데 능정사택이란 곧 올바른 사유분별로 모든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을 말하고 최극사택이란 대상세계를 보고 지극히 깊이 사유분별하여 그 본성인 진여를 가려내는 것이다. 주변심사는 지혜로운 눈으로 외적인 양상을 남김없이 관찰하는 것이고 주변사찰은 객관적 사물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를 남김없이 관찰해 내는 것을 말한다.

걸인은 해탈을 위한 '일대사 인연'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㉚ 보살이 기다리는 것들

勝解脫品第五 (승해탈품제5)

菩薩思惟。常所愛勝解脫者來覺悟我。彼來者不為財寶。為欲成就我大事故來。菩薩或為人王。修諸功德者來而白王言。有乞者來。王ǽ 念言。此言乞者乃是勝解脫來。我今得之。王自念言。我今不為貪著王位。為欲利益一切眾生。不應空居王位。應修施果滿足°而彼使者乃是覺悟我者。凡為乞者甚難為顏。心懷 恥言色變異。菩薩ǽ知其意而安慰言。若有所須隨意而求。乞者— 得財物心大歡喜。施者受者二俱歡喜如涅槃樂。(보살사유。상소애승해탈자래각오아。피래자불위재보。위욕성취아대사고래。보살혹위인왕。수제공덕자래이백왕언。유걸자래。왕즉념언。차언걸자내시승해탈래。아금득지。왕자념언。아금불위탐착왕위。위욕이익일체중생。불응공거왕위。응수시과만족。이피사자내시각오아자。범위걸자심난위안。심회참치언색변이。보살즉지기의이안위언。약유소수수의이구。걸자기득재물심대환희。시자수자이구환희여열반락。)

번역

수승한 해탈에 대한 품 제5

보살은 "늘 사랑할 바, 수승하게 해탈한 이가 와서 나를 깨우쳐주리라. 저 오는 사람은 재물과 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큰일을 성취시키고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이 혹, 사람들의 왕이면, 여러 공덕을 닦는 이가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왔습니다"하면, 왕이 즉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구걸하는 사람은 수승한 해탈이 왔다는 것이니 내가 지금 얻으리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왕위에 탐착하지 않으리니, 일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자 하노라. 헛되이 왕위에 머무르지 않으리니, 응당 보시와 과보를 만족하게 닦으리라. 저 심부름 하는 이도 나를 깨닫게 하는 이로다"라고 합니다. 무릇 구걸하는 이가 심히 어려워하는 낯빛과, 마음에 부끄러움을 품고 말이나 얼굴색이 변하면, 보살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평안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만약 바라는 바가 있으면 뜻대로 구하세요" 합니다.

구걸하는 이가 기왕에 재물을 얻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보시하는 이와 받는 이가 둘이서 같이 기뻐하니 열반의 즐거움과 같습니다.

해설

열 반 (涅 槃)은 산 스 크 리 트 어 'nirvana(니르와나)' 의 음사이다. '번뇌의 불을 끈 상태' 를 의미하며, 해탈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는 〈승만경〉에서는 해탈로부터 열반에 이른다고 한다.

보살은 열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모든 번뇌의 불을 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곧 해탈이며, 열반의 즐거움 얻는 것을 의미하는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보살은 기다린다. 그 수승하게 해탈한 이가 자신에게로 와서 깨우쳐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할 이, 그 일대사 인연이 바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제바라보살은 힘주어 말한다.

그리하여 구걸하는 이가 구걸하는 것을 얻어 즐거워하면, 비로소 보살도 즐거워한다. 보살은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얻은 것처럼 구걸하는 이를 얼싸안고 기뻐한다. 그 기쁨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의 종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는 120여개의 선원(禪院)이 있고 결제 때마다 2300여 명의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精進)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간화선(看話禪)이라며 간절심으로 화두정진(話頭精進) 하고 있다. 그런데도 깨달음을 이룬 자의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고 30, 40년을 한결같이 선원에서 수행하는 구참 납자들은 늘고 있다.

닭이 1천 마리이면 그 중에 봉(鳳)이 한 마리라는 옛말은 한국 불교계에선 전설로 박제된 지 오래이다. 깨달음을 이룬 뒤 숨어사는 선지식이 있을는지는 모를 일이나 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지식(善知識)은 아닌 것이다.

깨달음을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 숨길 일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은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선지식들의 행위에 대해서다. 명예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과 조직과 재물관리에 속물근성을 벗어 버리지 못한, 해탈자로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집착을 벗어버린 초연한 모습은 커녕 세력화, 집단화를 지향하며 생활의 고급화에 안주(安住)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화선 제일주의로 굳어진 수행풍토에서 왜 20년, 30년, 40년의 외길수행 길에서 깨달음은 더디고 햇수의 연륜(年輪)만 길어지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타성과 인습에 젖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간절심 부족에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참 스승이 없음이요 선문답(禪問答)을 통한 절차탁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선원의 화려함, 배부름에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는 불(佛)·법(法)·승(僧)이다. 이는 자유(佛)와 평등(法) 평화(僧)를 의미한다. 꾸밈과 조작, 집착을 벗어버린 자연인의 삶이 자유인의 세계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헐떡이지 않으며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쓴 소리를 해야겠다. 불교는 열려있는 종교이다. 승가(僧伽)는 화합과 평화를 의미한다. 불교신앙의 생명력은 자비실천에 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찰은 열려 있으나 스님들의 의식구조는 닫혀있고 막혀있다. 그 대표적 문제점은 큰 사찰일수록 문중(門中)중심의 세속화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찰 출신의 승려가 아니면 주지도, 승가대학장도 율원의 율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원의 선원장에 조실과 방장에 이르기까지 당해 사찰 문중이 아니면 언감생심 접근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이니 그 폐쇄성에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프디 슬픈 일이다.

어느 대학이 있다고 치자.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학과장도 교수도 총장도 될 수 없다면 그런 대학의 장래는 먹구름으로 뒤덮여 두 동강이 날 것이 뻔하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웃기는 대학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웃기는 일이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덕목으로 삼는 열린 불교의 대표적 종단에서 버젓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둘레를 넓히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깨달음 수행, 관습적 안일함서 벗어나야
움직이는 수행으로 '간절심' 을 모으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신본주의(神本主義)적인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아니라 심본주의(心本主義)적 자력신앙(自力信仰)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과 〈법화경〉의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 은 자비실천을 으뜸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열린 불교처럼 승가의 정신세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기본 자세에서 관습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안거의 연륜에서 움직이는 수행으로 간절심을 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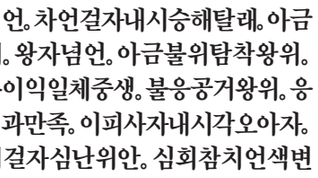
하여, 선지식이라면 사찰 키움과 허명(虛名), 허세(虛勢)에서 벗어나 참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돼야한다. 명예와 재색(財色) 주변에 서성이며 제도권에 안주(安住)하는 이름뿐인 선지식들은 수행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턱걸이를 즐기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깨달음은 해탈(解脫)을 의미하며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이룬,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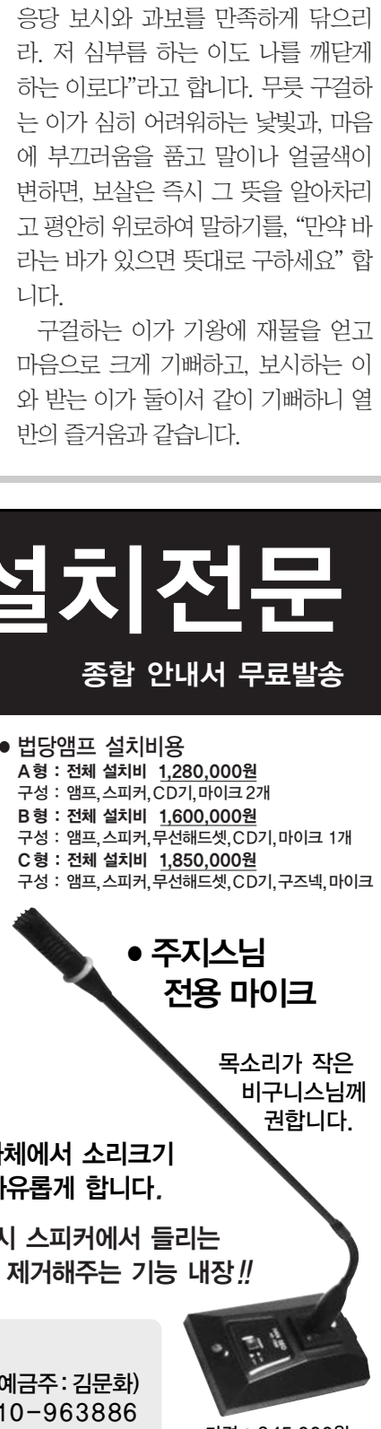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德治로 백성 교화한 선비… 말년에 속진 떠나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㉖ 백담 구봉령

백담 구봉령(栢潭 具鳳齡, 1526~1586)은 시문에 능했으며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이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시문으로 남겼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의 품성은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의연하게 처신했던 것에서 드러난다. 조실부모한 그에게 소학의 문리를 얻게 한 것은 그의 외종조 권팽로(權彭老)다. 이후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문하에서 수학했기에 그의 학문적 연원은 튼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비교적 평탄한 환로(宦路)를 걸었다. 퇴계의 문하에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이후(1546년), 156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를 거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등을 역임했다. 또 1564년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한 후 수찬, 호조좌랑, 병조좌랑을 거쳐 1577년 대사간에 올랐다. 이듬해 대사성을 거쳐 이조참의, 형조참의를 거치는 동안 그의 탁월한 경륜과 지혜는 나라에 실익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더구나 〈국조인물고〉에는 그의 학문에 대한 식견과 열의를 "그의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음에 눈으로 한 번 훑어보면 외우곤 하였다. 널리 백가(百家)를 섭렵하여 소상히 알고, 그런 후 다시 육경(六經)을 널리 관통하여 그 요체를 간추려 끝을 맺고, 이를 아름다운 행실로 표출시켰다"고 하였다. 이미 그의 인물됨은 성동(成童, 15~6세) 때부터 드러났으니 이는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세에 〈논어〉를 읽었는데 '밥을 먹음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食無求飽 居無求安)' 고 한 대목에 이르자 감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능히 자립(自立)하지 못하는 까닭은 배불리 먹는 것과 편안히 사는 것이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능히 자신의 분수에 맡기어 구함이 없다면 어떤 일인들 성취할 수 없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깊이 생각하며 되풀이하여 학습하였으므로 얻는 바가 있었다.

그가 감탄했던 구절은 〈논어〉 1권에 나오는 내용이다. 공자께서 "밥을 먹음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食無求飽 居無求安)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도 있는 자에게 나아가 (시비를) 바르게 한다면 호학한다고 말할 만하다(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구봉령은 "밥을 먹음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食無求飽 居無求安)"고 한 내용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니 이는 그의 입지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그의 뜻은 학문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그가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부임했을 때에 순리로 백성의 쟁송(爭訟)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발현했으니 이러한 사실은 〈국조인물고〉에 "백성 중에 형제가 서로 소송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공이 순리로써 그들을 타이르니, 두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자책하면서 결국 서로 돈목(敦睦)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백성을 덕치(德治)로 교화했던 그의 목자(牧者)로서의 자질은

권팽로·이황 문하서 수학
국가 요직 두루 거쳐
승려와 인연 시로 남기고
茶에도 조예 깊은 문인

일찍이 〈논어〉를 읽고 감탄했던 대목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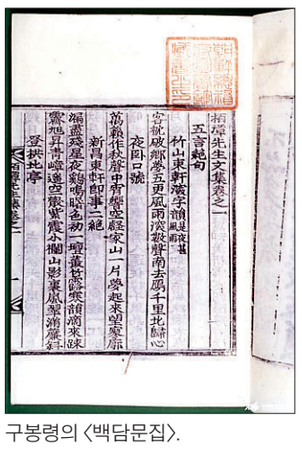
한때 백담(栢潭)의 아름다운 산수 경치를 사랑하여 그곳에 오두막집을 지어 놓고 장차 쉴 계획을 세웠던 그의 뜻은 이행되지 못한 듯하다. 말년이 되어서야 모든 관직을 사양한 채 문을 닫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서너 명의 학도(學徒)들과 경사(經史)를 토론하며 속진(俗塵)을 떠나 깨끗한 삶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선비들처럼 그가 교유했던 승려 수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특별히 시문에 밝았던 그는 함께 노닐던 승려들의 시축에 수편의 글을 남겼다. 대략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을 살펴보면 계선승(戒禪僧), 소백산 승려 사경(思瓊), 청량사 승려 옥징(玉澄), 영정(永貞), 삼각산 승려 보훈(寶訓), 행각승려 숭인(崇印), 백암산의 승려 경진(敬眞) 등이다.

특히 그의 〈영정 산인에게 주다(贈永貞山人)〉라는 시에는 당시 승려들 사이에서 퇴계 선생의 글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이 시의 말미에 "승려들은 반드시 먼저 퇴계 선생의 묘필을 받들고 뒤에 뛰어난 것들을 구하여 이어 쓴다. 그런데 영정승려만이 미치지 못했다. 그 모습과 말이 매우 슬펐기 때문에 그 생각이 넘쳐난 것이라(山人輩必先捧退溪先生妙筆 後邀諸勝 題 而貞獨無及 其色辭甚愴 故洩其思云)"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희방폭포. 구봉령은 소백산 승려 사경의 시축에 차운, 나이 50세에 소백산을 노닐며 소요(逍遙)와 은일(隱逸)의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구봉령의 〈백담문집〉.

계당의 선필은 연기와 노을을 뿌려 논 듯(溪堂仙筆灑煙霞)
명산에 떨어져 머물렀던 곳이 얼마였던가(散落名山定幾多)
어찌 홀로 후에 와서 찾을 곳이 없을까(渠獨後來無覓處)
다만 눈물을 머금고 구름 언덕을 지날 뿐이라(故應含淚過雲阿)

결국 그가 영정 승려의 시축에 글을 쓴 연유는 대부분 글깨나 하는 승려들이 자신의 시축 말미에 퇴계의 글을 받은 후 다른 명망이 있는 인사의 글을 받지만 영정 스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므로 마음에 느낌이 있어 글을 써준다는 것이니 그가 영정 스님에게 보인 성의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리라.

이밖에도 그가 〈소백 산승 사경의 시축에 차운하여 쓰다(次書小白山僧思瓊軸)〉라고 한 시에는 당나라 이백과 송나라 소식이 49세의 나이에 자극궁(紫極宮, 신선이 사는 곳)을 거닐었다는 것뿐 아니라 조선의 주세붕이나 퇴계 선생도 소백산을 주유했던 사실을 상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론 자신도 산수를 소요하려는 뜻을 "이백은 나이 49세에 자극궁을 노닐었고 소식 또한 나이 49세에 노닐었으며 이에 이백의 시에 화답하였다. 주진재(주세붕, 1495~1554)와 이 퇴계(이황, 1501~1570)는 이어서 풍기 군수를 지내며 소백산에서 노닐었다. (그들은) 모두 이백과 소식의 나이 때에 아울러 시를 창수하였다. 내 지금의 나이가 또한 50살이니 그 간격이 겨우 1살이다. 노닐고자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른다.(李謫仙年四十九 遊紫極宮 蘇子瞻亦四十九而遊 乃和李詩 周愼齋李退溪相繼守 基 來遊小白 皆李蘇之年 竝有和章 余於今年 亦隔五十僅一歲 有願遊之志故云)"고 밝혔다. 소백 산승 사경의 시축에 쓴 시 〈소백 산승 사경의 시축에 차운하여 쓰다(次書小白山僧思瓊軸)〉는 다음과 같다.

계산의 신선, 삼가여 푸른 산을 익숙히 유람하고(溪仙愼老踏蒼ø◊
자극궁의 맑은 유람에서 또다시 돌아왔네(紫極淸遊又一還)
어찌 지팡이 날리며 백악을 건널까(那得飛笻凌栢岳)
49세 틈새를 따라 잡으리(追攀四十九年閑)

계산의 신선은 아마 산승 사경일 것이다. 그는 적선(謫仙)인 이백이나 소동파처럼 산수를 노닐던 신선이며 그가 주석한 소백산은 풍기 군수를 역임했던 퇴계 선생이나 주세붕도 노닐던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봉령은 나이 50세에 소백산을 노닐며 소요(逍遙)와 은일(隱逸)의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한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백암사에 주석했던 승려 경진과의 인연을 〈경진의 시축에 금약봉에서 차운하여(敬眞軸 次金藥峯韻)〉의 모두(冒頭)에 "1554년 봄에 내가 병으로 평해 온천에 가서 휴식했는데 백암산이 그 근처에 있었다. 그때에 경진 스님이 백암사에 있었다. 내가 잠시 절에서 만났는데 올해로 19년이 되었다. 경진 스님이 나를 찾아오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한참만에야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해둔다.(甲寅春 余以病往沐平海之溫泉 白 W山在其傍 時眞住白 W寺 余暫接于寺 今十九年 眞訪余而來 遇於路 久而得知故云)"라 밝혔다. 경진 스님에게 써준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운의 깊은 곳, 백암산에(海雲深處白W山)
장실 스님은 그 해에 함께 웃고 얘기했지(丈室當年共解顔)
돌이켜 생각해 보니 20년이 꿈만 같아(回憶 齡還似夢)
흰머리 상대하니 서로 봄이 의아하네(白頭相對訝相看)

1554년 그가 백암온천에서 요양했던 것은 그가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기 6년 전의 일이다. 당시 경진 스님은 백암사에 있었기에 잠시 만났다는 것이니 구봉령과 경진의 교유는 1554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19년이 지난 뒤에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의 무상함 속에 서로를 알아 볼 수 없으리만큼 늙어 버린 것. 그래서 "흰머리 상대하니 서로 봄이 의아하네(白頭相對訝相看)"라고 한 것이다.

그는 차를 즐긴 선비였다. 육우의 〈다경(茶經)〉에 오묘한 골기를 이해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쓴 〈다경을 읽고(讀茶經)〉에서 "내 다시를 읊으려하니(我欲詠茶詩)/ 이뿌리에서 상쾌한 연무가 이누나(煙霞爽牙頰)/ 〈다경〉을 읽는 것만 못하니(不如讀茶經)/ 빙설 같은 맑음, 가슴에서 일어나네(氷雪生肺膈)/ 다시는 피부와 같고(茶詩狀皮膚)/ 다경은 혈맥을 더듬네(茶經搜血脈)/ 홍점(육우)은 진실로 기이한 선비라(鴻漸信奇士)/ 핵심을 보고 모색을 남겼네(相骨遺毛色)/ 처음 읽으니 신령해진 듯하고(一讀通神靈)/ 다시 읽으니 혼이 단련되네(再讀鍊精魄)/ 이어 다시 차를 마시니(因復啜玉乳)/ 스멀스멀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이누나(習習風生腋)/ 의연히 내 신선 멍에 하여(依然駕我仙)/ 상제가 사시는 청도의 달로 날아오르리(飛上淸都月)"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는 다시(茶詩)를 읊으려고만 하여도 이뿌리에서 상쾌한 연무가 일어날 만큼 차의 경지를 통달했던 선비였다. 아울러 〈다경〉을 읽으면 가슴에서 맑디맑은 청량함을 느꼈던 관료였던 셈이니 그는 조선 중기의 관료 문인 중에 차의 진미를 일이관지(一以貫之)했던 선비였음이 분명하다. 아무튼 그는 다시(茶詩)와 다경(茶經)의 지경(地境)의 차이를 선명하고도 확연히 이해했던 문인이었던 셈이다.

그는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혼천의기(渾天儀記)〉를 저술했고 〈백담문집〉과 속집을 남겼다. 사후 용산서원(龍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으며, 문단(文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화제의 신간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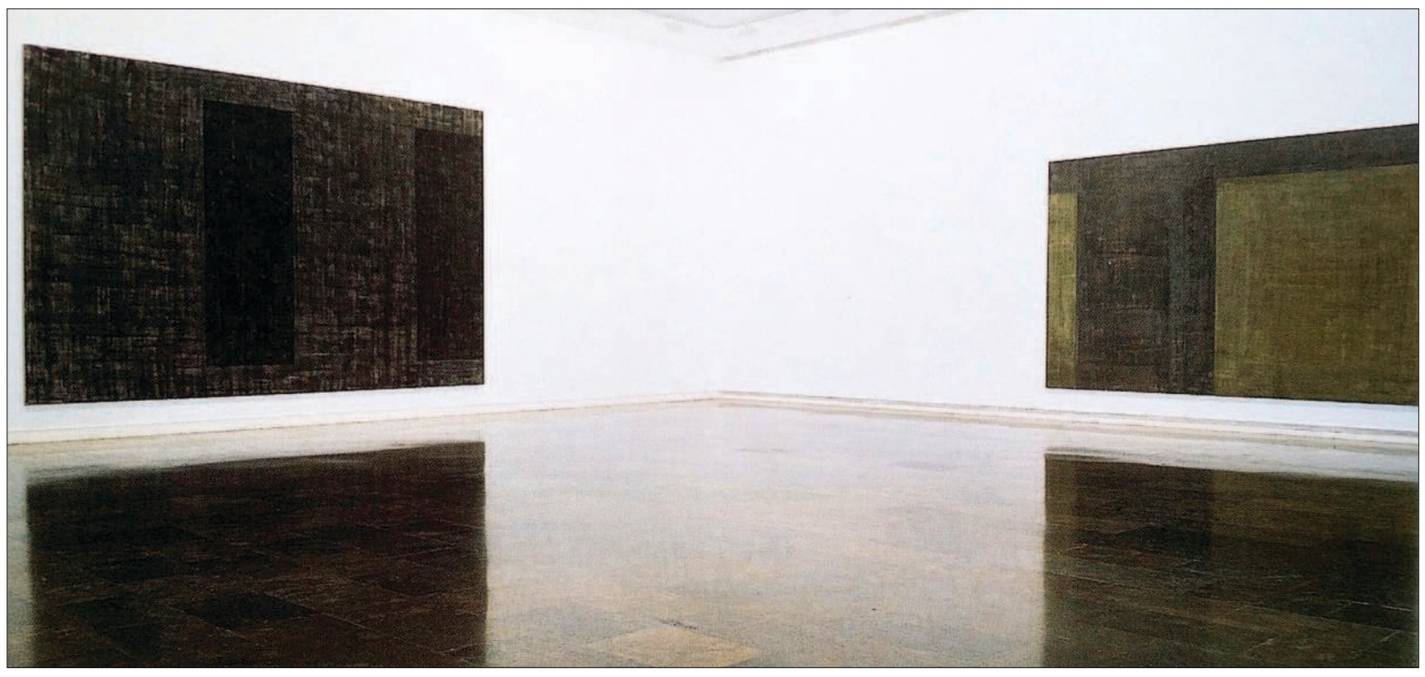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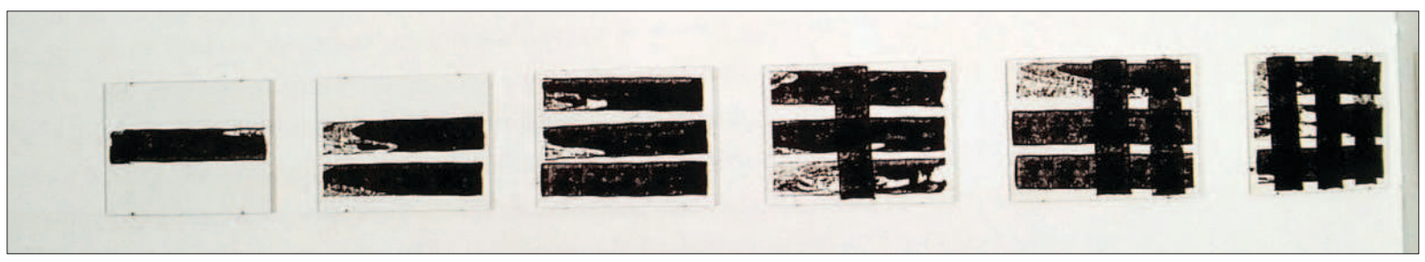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943-6882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 협 023-02-500940
우체국 310417-02-169082

철저한 구도심이 만든 자유의 조형들

禪과 현대미술
⑭ 헬무트 페덜레(Helmut Federle)


헬무트 페덜레의 작품 〈Untitled, Drei Formen(1996)〉은 화면에 크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면적을 연결하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Black Series X(1992)〉는 화면에 하나의 선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관점과 개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등 많은 다양한 요소들의 반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헬무트 페덜레(Helmut Federle, 1944~, 스위스)는 시대적 어려움을 몸소 겪으며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을 하고자 하는 작가이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의 고향인 졸로투른(Solothurn)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당시 어린 그가 체험한 경험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신의 마을에 한국에서 온 난민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며, 페덜레의 눈으로 본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필자의 독일 유학시절 지도교수였던 그에게서 직접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예술, 특히 선(禪)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헬무트 페덜레가 예술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하안리히 클로츠라는 평론가에 의해서 이다. 철학, 미학, 건축 등에 많은 지식을 가진 클로츠는 자신의 새로운 미학을 완성시키며 이를 '제2의 모던(Zweite Moderne)'으로 명명하며 새로운 미학적 개념들을 정립시켜 나아갔는데 그의 이론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작가가 페덜레이다.

페덜레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하학적 추상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이해한 선의 세계이기도 하다. 선의 세계는 정확한 관계(자연의 이치)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정형화된 사각의 틀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빈틈이 없어 보일정도로 정교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유분방함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마치 수행자가 수행할 때 엄격한 규율과 정해진 과정을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듯이 그는 자신의 수행적 모습을 정형화된 선(線)과 면으로 규정하며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관점들을 통하여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이다.

모던, 포스트모던, 제2의 모던으로 구분하는 클로츠의 철학적 관점에서 페덜레는 제2의 모던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술가이며, 포스트모던에서 지향하던 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심과 관념적 사고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구의 철학과 사상, 예술이 중심이고 그 밖의 문화와 예술은 변방이라는 모던적 관점에서 벗어나 탈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던 포스트모던 역시 모던이 가지고 있던 대상에 대한 관점들이 남아있었던 것에서 탈피해 절대적 개념의 개별적 특성과 정신적 사유와 깊은 사고를 작품에 도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둘을 모두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 방식이 수용이든 비수용적이든 중요한 것은 경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릴 적 고향서 한국 난민 만나
한국인과의 기억, 소중히 생각해
한국 문화 친숙… 불교 '禪' 관심

기하학적 추상주의로 정신 표현
빈틈없는 정교함 내면엔 '자유'가
"예술 정신 중요" 작품 전엔 명상

〈Untitled, Drei Formen(1/4, 1/6, 1/16, 3. Fassung, 1996)〉은 페덜레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화면에 크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면적을 연결하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생각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은 머물러 있지 않지만 또한 생각의 범주가 크게 확장되지도 않는다. 즉, 사람마다 생각의 굴레가 있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난 도형들은 모양은 변화하나 면적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도형은 생각의 또 다른 모습이다. 생각의 변화가 매 순간 일어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생각의 변화는 커다란 호수의 작은 파장에 불과할 뿐이다.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여 그 호수의 물이 변화하지 않듯이 생각의 파장을 관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서 생각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작가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다. 작가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흔적들을 만들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흔적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청정한 마음의 모습이다.

작가가 작품을 하는 과정은 청정한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정하다고 하여 나타나는 흔적이 모두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이다. 청정하니까 모두가 질서정연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청정함에 대한 관념일 뿐 청정함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나타나는 흔적이나 모습을 가지고 청정함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한 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청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보면 어떠한 청정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페덜레는 오랜 시간 선(禪)에 관심을 가지며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시간 스스로 수행자적인 생활을 하며 예술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하는 많은 작가들처럼 그도 예술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고자 한 것이다.

필자가 유학시절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바로 예술의 정신적 가치였다. 예술을 논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료나 대상, 기법 등이 아니며 작가의 생각과 그 생각의 깊이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술가의 길을 가는 필자인 저에게 지금까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큰 울림이다.

작가의 생각은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작가의 정신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가는 붓을 들기 전에 반드시 명상을 한다. 오로지 작가의 청정한 마음이 관객에게 전해져서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에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이다.

요즈음 한국미술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이다. 위작, 대작, 가짜 감정서 등 작가와 작품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모두 돈과 연관이 되면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부분들이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사건은 끊임 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작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며 작가들은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예술이 돈이 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페덜레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작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거액에 판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많은 작품을 하지 않는다. 주문이 들어오거나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 온 정신력을 모두 투사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그 작품의 가치가 돈과 연관되어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그가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적이 있다.

〈Black Series X(1992)〉는 그의 생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면에 하나의 선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 작품을 같이 보면 하나의 확대된 모습이 된다. 이를 통하여 생각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각각의 흔적들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호흡의 흐름처럼 반복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선을 한번 그으나 선을 여러 번 그으나 선은 하나의 선이다.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선을 긋는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해가는 것이며, 나아가서 마음의 청정함을 찾아가는 것이다. 청정함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행위일 뿐이며 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과 차이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페덜레의 예술적 특성은 조형적, 미학적, 아름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신성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조형적으로 아주 독특하다거나 표현력이나 색채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특히 그가 자주 사용하는 검정색은 모든 흔적의 종착점이다. 다시 말해 생각의 종결점인 것이다.

작은 흔적들이 모여 나타나는 커다란 도형은 기하학적이면서 수학적이다. 철저히 계산된 흔적이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수행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인지하는 깨달음은 철저함이다. 그 속에서 자유로움이 나온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고는 철저함이 바탕이 되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숨겨진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거의 무채색이거나 어두운 녹색, 연두색계열이다. 이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생명력은 빛이 어둠이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듯 그의 작품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어둠처럼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필자가 예술가의 길을 가는데 커다란 가르침을 준 스승 헬무트 페덜레의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작가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인등,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삼존불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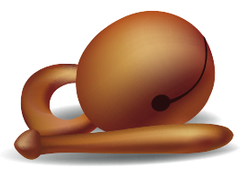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종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010-2125-4684
대구은행 087-13-03596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철거,견적,불교용품, 매입,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 다사팜
010-2395-3333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황제내경 의술전수

(침,단전호흡,음식)
만병통치의술
스님10분 모셔서 전수해 드림
blog.naver.com/phw4267
전수비 20만원
옥천 010-2274-4267

비구니 스님 초빙합니다

암자 운영하실 분
02-3436-0796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불심깊고 독신자 60대이상 보살님 찾습니다

(경북 울진)
010-8571-6559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아주 특수한 정법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

공간내 행동이 자유롭고 흡입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정도면 잘 나온다며 종교인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고 재공사로 마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제10-1317539호)
010-4440-868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기도 노장 스님 구함.
공양주 보살,
행자 구함.
절에서 청소할 처사구함
절에서 공부할 행자구함
010-3840-43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구미 도개)
010-3875-155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통영)
055-645-3060
010-4580-20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사진 3매 (여권사진 규격)
■ 주민등록등본 1통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진 이는 자기를 다스린다. 치수(治水)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大木,큰 건축물을 잘 짓는 기술을 가진 목수)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를 제어한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탁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 부근,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 충주시 부근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45㎡, 요사채 75㎡, 지장전, 산신각
- 토지 2600㎡, 면소재지 부근
- 50년 사찰, 전망좋으며 위치좋음
- 시설깨끗하며 정원 휴식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대지 : 22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 외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요사 : 60평
◎ 양도 : 7억8천 ◎ 양도 : 9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자 선원 안내

- 위치: 통도사 IC ~ 보라CC 부근
- 토지 : 대지 402평(주차 가능)
- 건물 : 통나무집 7동(멋진 정원)
※ 전통사찰, 식당, 찻집 가능
- 가액 : 2억 3천 인수 (은행 2억 7천만원)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방문 상담 요함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찰 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암자 안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010-7589-9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 양도

051)754-337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근교(지하철 1Km 부근)
- 총부지 320평
- 법당 : 목조건물(외 7포 내 11포) 32평
- 삼존불(목불), 원불(목불), 삼성각, 저온창고, 실내 외 주차장
- 요사채 : 목조건물 1,2층 100평
- 평생 사용가능한 땅 1,000평
- 가액 : 22억 5천만원

010-3561-43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현재 법회 중,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 불단, 신중단, 영가단 원목 제작 (90평)
- 요사채2, 서재1, 공양간1, 종무소1
- 가액 :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 월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
- 몽땅 2억(조정가능)

010-8861-17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대형 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 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 3층 건물 2,3층 (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 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일부 조정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미천면 미곡리
- 평수 : 7,465㎡(2,258평)
- 가액 : 평당 28,000원

010-3191-6683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포교원 안내

- 위치:울산 동구 대로변 사거리
- 평수:50평, 3층 엘리베이터 유
- 은행,마트,병원등 인구밀집지역
- 오존불(각3자,2자반),신중,영가단 냉난방완비,시설완벽
- 가액 : 보 500, 월65만원 시설비품 1700만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2896-668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모든 집기 일체포함
- 가액 : 2억 (절충가능)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시지동
- 3층건물 3층
- 법당 40평(순금도금 삼존불, 신중탱화)집무실,공양간,화장실
- 지하철2호선 고산역 1번출구앞 대중교통원만(버스노선 다량) 도심아파트 밀집지역(포교원활)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5백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0-3502-261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대현로
- 법당 : 22평 (삼존불)
- 사무실, 부엌, 방
- 후불탱화, 인등200불, 에어컨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010-2585-7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2575-9876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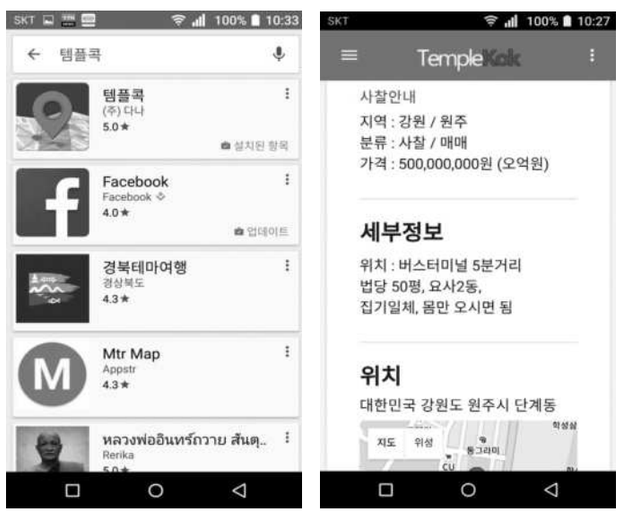
▶ 지역별, 항목별(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불교라는 자체는 영원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아마도 일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지원의 여러분이 딴 데보다 수백 배가 작다 하더라도 작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주처를 알아서 길을 걸을 때에 그건 한 우주를 산 거와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듯 불교라는 자체는 영원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이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같이 응용하고 상응하고 작용하는, 그 모든 통신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생의 원리도 일체 만법의 기준이 되며 모든 마음들이, 전구는 다 다르지만 저 전력은 한 전력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듯이,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생명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타의에서 구하는 이치가 많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부처님이여!' 하고 바깥에서 찾는 것, '하나님이여! 주여!' 하고 바깥에서 찾는 것, 티베트 불교나 통일교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만히 보면 타의에서 구하는 건 전체가 다 기복이에요. 그것을 기복이라고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집부터 전화를 놓고야 남의 집에서 전화 올 때를 바라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 법이죠?

나부터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벌어질 일도 없고 인과 법칙도 없을 거고 상대성 원리도 없을 거고 계발도 창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까닭에, 인연에 따라서 창조력을 기르면서 계발도 하고 성취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로부터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타의의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먼저 알아야 '타신'도 모두 둘이 아니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한 줄에 꿰여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세상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나의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참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 수, 화, 풍 이 자체의 근원이 아니었더라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대두해서 발전할 수도 없거니와 밝게 살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이 왜 지수화풍으로 근원이 돼 있는가. 바탕이 돼 있는가. 그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도 태양력, 태양열도 또는 전력도 자력도 모두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발전과 계발과 창조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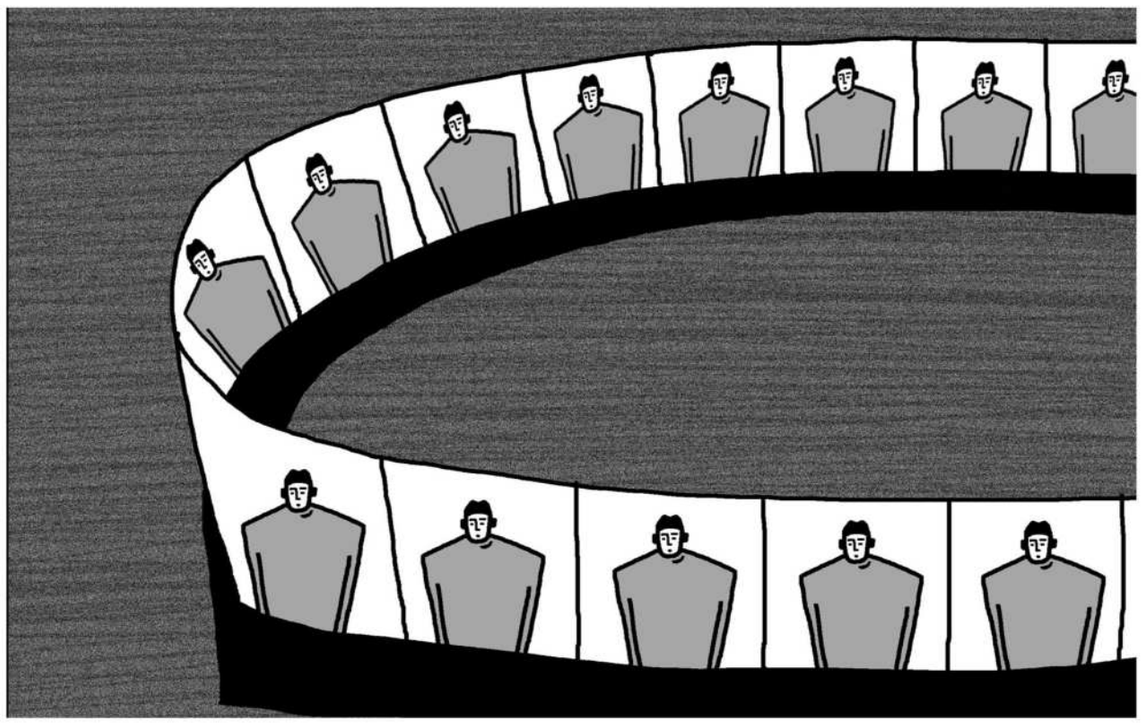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물과 흙과 불과 바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네 가지에 속한 물질입니다. 형상입니다. 그 현실의 몸, 육신이 아니었더라면 무효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낼 수가 없어도 목석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모두 바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귓결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것이 다 자유자재하게끔 주어져 있다고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걸 맛도 못 보고 이름도 듣지 못하고 작용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마디째입니다. 그게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천이통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무전통신기 역할을 합니다. 천안통, 이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그것을 비유할 때에 뭘로 비유를 해야 좋겠습니까? 천체망원경이라고 해도 그거는 거기에 가당치도 않지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천체를 보고도 남음이 있지만 육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마음의 눈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타심통, 이것을 탐지기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남의 속을 뚫어지게 아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또 신족통은 팩시밀리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숙명통,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내 걸망에 담아 가지고 나온 업식에 따라서 솔솔 나오는 걸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과 선업이,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여러분 몸속에 지금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나가는 데 솔솔 나오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그거를 비유할 때는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컴퓨터에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바로 현실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하하하….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그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은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 됐고 그것이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는 자력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진통입니다. 그거를 비유하자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책정을 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분류돼서 원자에서 입자가 쭉 많이 나가듯이, 바깥에서 그렇게 들어오듯이 그러는 거를 결정을 하고 책정을 하는 그런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통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를 그걸로 비유해도 됩니다.

누진이라 하면 바로 우리 혹성의 바른쪽 왼쪽 두뇌의 작용 핵심! 핵심처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자 세계에서 잘 쓰고 있는 이름,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래서 '주, 인, 공'입니다, 공(空)! 주인 주(主), 사람 인(人), 즉 공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왜 공이라고 했을까? 주인의 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먹는 거나 만나는 거나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 없습니다!

큰스님 고정된 게 없는 것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 즉 말하자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의 노릇을 하고 형님의 노릇을 하고 아들의 노릇을 할 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껄껄하게 돌아가지 않죠? "아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버지 노릇이 되고 "여보!" 하면 자연적으로 남편 노릇이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 노릇이 되고. 아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작용을 할 때에, 어떤 걸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한 건데 어떤 거를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노라' 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자꾸 변하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무' 했던 거고 '나는 한 게 없노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다면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서로 작용하고 돌아가는 이 세계 진리를, 우주 진리를 잘 아신다면 머리가 다리고 다리가 머리라고 해도 이거는 다 알게 됩니다. 지구가 돌아갈 때에 머리나 다리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우리 자체가 모두 지구의 한 벌레라고 할까, 한 인간이라고 할까. 지구에 붙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리문도 없는 버스에 타고 만약에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아무리 돌아도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갈

☞ A18면으로 계속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나부터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뿐입니다. 돌아가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진화력을 기르고 창조력을 기르고,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는 타신을 찾아서 빌면 꼭 잘된다는데, 모든 것을 태산같이 차로 실어다가 놓고 빌어 봐도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양 무제가 그렇게 절을 짓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시주를 많이 했는데, 달마 대사더러 물었어요.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서슴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무 몸체와 가지와 잎새 모든 것을, 열매를 위해서라면 어디다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죠? 뿌리에다 물을 줘야 이파리도 싱싱하고 모든 게 다 싱싱하고 열매도 열려서 굵고 크게 납니다. 뿌리에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 뿌리에다 주질 않고 항상 남의 이름을 찾고 모습을 찾고 온통 야단입니다.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고 칠성을 찾아서 명을 길게 해 달라고 빌질 않나, 또는 지장을 찾아서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또는 용신을 찾아서 물에 가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지신을 찾아서 길에 가다가 급살을 맞지 않게 해 달라고 하질 않나, 약사를 찾아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저 요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지 않으면 마음들이 개운치 않아서, 만약에 여기 놓고 저기 놓질 않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고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처럼 관습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한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인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도 한마음이 아버지요 남편이요, 한마음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동적입니다, 그게. 그러면 한 아버지에다가만 약속을 하면 됐지, 한 아버지와 약속을 했으면 그 아버지가 남편 노릇 할 때에 또 할 거고 자식 노릇 할 때도 할 거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할머니가 따로 있고 형님이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모두.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생각을 내셔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 휘달리는 데에 응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약사보살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단 말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한 부처님이 하시는 거나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는 거나, 이게 비유를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깐 다른 얘길 못해, 거기서. 부처님 앞에 다 얘길 해도 되는 건데 그만 요기 갖다 놓고 빌고 저기 갖다 놓고 빌고….

그것이 어디서 생긴 거냐. 이조 때에 불교를 탄압할 때, 중들이 도대체 먹고 공부할 수가 없어서 산신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남편이니 또는 아버지니 아들이니 친구까지, 신중당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쌀 한 말이면 큰 됫박 말이었죠. 정성을 들인다고 그거 한 말만 부처님 한테 갖다 놓으면 뭘 먹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갖다 놔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이상에는 그것을 알아서 좀 벗어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가 자유스럽고 한데도 말입니다.

허허, 나도 예전에 견진까지도 받고 고해성사를 할 때에 회개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딴 사람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모르면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해결이 나는 것도, 그 죄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럴진대 이 부처님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정신계가 있으니깐 물질계가 이렇게 있죠. 정신계가 없어도 아니 되고 물질계가 없어도 아니 됩니다. 양 개체에 바로 대두되는 인연의 법칙이니까요.

이 모두가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발전도 될 수 있고 물리가 터질 수도 있고 모든 면에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못나도 못난 걸로다가 내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났어도 아주 잘난 걸로 내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열두 번 변하고, 열두 번뿐 아니라 무한정입니다. 열두 번이다 하면 해우년을 따져서 얘긴데 그건 열두 번이 열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지혜가 딱 막혀서, 몰라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몰라서 죄가 있는 거지 알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업보니 죄업이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르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다 부인이다 부모다 자식이다 할 때 이 애로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애로 건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슬기롭게 방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당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고 댁의 가정에 들어가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댁네들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있으니까 부처님도 있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법도 있는 거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바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은 한 식구가 똑같습니다, 이 전력이 똑같듯이. 안 그렇습니까? 팔만대장경에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된 거를 지금 푹 내려 가지고 가정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부처님 법이니까.

지금 모든 생명은 똑같은데 모습은, 이 전구가 전부 다르듯이, 여기도 뭐 저런 거 저런 거 전부 다르네요, 한방 식구가. 하하하. 그런데 전력은 같아요. 크면 큰 걸로 전력이 조금 더 들어올 뿐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전력이 덜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식구다 하면 주인공이 다섯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만지려야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지 못하듯이. 그러나 틀림없이 전력은 있죠. 틀림없이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아유, 쟤는 쟤고 나는 나다.' 요렇게 각각 본단 말이야. 전력은 다 똑같은데도 '저건 저것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력이 어떻게 하나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또는 부모든 자식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돼서 나가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항상 부모 속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요놈의 새끼 가만 놔두나.' 이러고, 허허허, 또 남편이 잘못하면 '들어오기만 해 봐라. 그냥 두나. 그냥 박살을 내고 말지.' 요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어느 누구가 잘못돼 가지고 저거 하면 '죽일 놈' 소리가 허양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면 좀 따뜻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폭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럭하면 안 되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아이고, 추워. 따뜻한가 하고 들어왔더니 또 추워.' 그러니깐 또 나가. 하하하…. 그럽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저 마음도, 저 전력도 내 전력도 똑같으니까, 저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똑같으니까 당신만이 저 애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진정코 맡겨 놓을 때, 진정코 믿고 맡겨 놓을 때, 그러고 맡겨 놓고는 입으로는,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휴, 너 배 안 고프냐. 나갔다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으냐. 어디서 그렇게 지냈니?" 하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따뜻한 행동으로 따뜻하게 해 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때는 귀에 띄고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불이, 내 마음의 불이 거기까지…. 둘이 아니니까,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전력을 거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으니까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가정의 모든 애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똑똑히 잘 들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제삼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력이나 내 전력이나 똑같으니까요, 허허허.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떠한 경우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맡겨 놓고, 그렇게 아리땁게 또는 알뜰하게 잘 다독거리고 사랑해 준다면 그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식구가 어떻게 조건을 붙이고 사랑을 합니까? 식구라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 사랑하듯. 부모가 이익을 취해서 자식을 기릅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모는 자식이 잘돼서 잘 살기만 바라고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니 내내 그런 생각 변치 마시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어떠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어떠한 강도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색하질 말고 모든 거를 부드럽게 말을 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고 거기다 맡겨 주면, 내 마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걔 마음 전구에도 심지가 올라가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그것이 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면 벌써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이렇게 자꾸자꾸 해 나가니까 판도가 달라져. 사람이 벌써 달라져요. 사람도 달라지거니와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니까 화목이 와. 화목이 오니깐 돈도 들어와. 돈도 아주 잘 압니다. 그 집안이 살벌하고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돈이 오다가도 '에이그, 난 너희 집에 안 가!' 그러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있어도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그러고는 안 들어와요, 그건.

이 모두가 그런 업보에서…. 나에게 집의 주인이 없다면 그 모두가, 즉 유전성에서, 인과성에서, 세균성에서, 바로 영계성까지 첨보해서 그렇게 살벌하게 들고 나게 되고, 그러면 내 집은 망가지고, 내 집은 악해질 수밖엔 없고, 내 집은 그렇게 선후가 없이 천차만별로 변질이 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악한 마음을 지워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은 썩어 가고 그렇게 되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는가 하면, 나쁜 업보도 다 제거하고 애고도 제거하고 병고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몸뚱이 안에 수십억의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착하게 쓰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을 하고, 착하게 모든 식구들을 대하고, 바깥의 식구들을 착하게 만들고, 안의 마음도 그러니까 안의 식구들도 그 마음을 따라서 수십억의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 준다 이거야.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까 '아, 이렇게 된 사실이구나.' 하고선 속에서 알고는 전부 화해서,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의 화신이 돼 줘요. 보신이 돼 주고 화신이 돼 주고 법신이 돼 주고 부처가 돼 주고. 이렇게 하니깐 모든 게 이 한 의식이 전부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기둥이 돼서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벌어질 일도 없고 인과 법칙도 없을 거고
상대성 원리도 없을 거고 계발도 창조도 없을 겁니다.

※위 법문은 1992년 7월 5일 시카고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태징



◀ 대북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 세상보기

경비원 미담서 자비공동체를 보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대표적 주거 양식 아파트
층간 소음·경비 대한 '갑질'로
우리를 우울케 하지만 미담도

췌장암 경비원에 성금 답지
"우리는 가족" 초등생도 용돈 모아
'자리이타' 자비 정신 구현에 감동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요즘 세태를 보면 덕이 없어 이웃이 없는지, 이웃이 없어 덕이 없는지 어지럽기 만하니 어쩌랴.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도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화, 도시화되면서 이웃과 사는 주거 양식도 많이 변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이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제일 밀접한 이웃 관계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우울케 만든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을 하고, 주차문제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니 벌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가 벌보다 미개한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성 회복의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무슨 상쾌한 소식인가?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성금을 모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경비원은 지적장애인이며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을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성금을 내고 있다니 참으로 가슴 뭉클하다. "경비원 아저씨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해직대신 성금을" 이라는 성금 모금 글귀는 긴 가뭄 중에 소나기처럼 반갑기 만하다.

오늘날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치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제 공동체 구현의 문제는 향수와 이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의 틀 속에서 조건 지어진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각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아파트의 경비원 도와주기 운동은 우리의 공동체 구현에 희망의 빛을 주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공동체에 있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이다. 상생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상생적 삶의 양식은 공동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특징으로 호혜성이나 상호부조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공동체 실현의 첫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상생적 윤리관의 정립이다. 상생적 윤리관은 바로 붓다의 자비 정신이다. 자비 정신은 바로 연기론에서 나온다. 모든 존재는 한 그물코 안에 서로 얽혀 있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많은 경전에 표현되어 있듯이 자비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행위이다.

즉,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자비의 기능이다. 붓다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 자비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아파트 경비원 미담에서 보는 것이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즉, 자비 공동체의 구현은 구성원의 자비심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비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사회제도,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자비 공동체 실현은 많은 고뇌와 탐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제발 김용봉 경비원께서 쾌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우리 모두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자.

데스크 칼럼

사찰 숲길서 '녹색의 숨' 흠뻑 마시자



김주일
취재부 부장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다. 잠깐씩 일을 멈추고 며칠 쉰다는 것은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막상 휴가를 떠나보면 정작 휴가가 진정 자신에게 충분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업무와 연계돼 시시각각 울려대는 핸드폰 소리로 여기가 휴가지인지 사무실인지를 착각하게 한다. 사실 정작 필요한 것은 1년에 한번 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벤트처럼 주어지는 휴가가 아니다. 일상서 매일매일 충족되는 휴식이고 자기 시간이 더욱 효과적이다. 결국 하루의 일상서 여유를 못 챙긴다면, 그건 결국 평생 일에 끄달려 달콤한 쉼의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래도 열심히 일한 당신들은 멀리든 가까운 곳이든 떠나야 한다.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꽉찬 스트레스를 비워내고 털어내야 새롭게 충전된 새 것들이 들어 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보자.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쉼을 위해서 말이다.

차량 정체로 도로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산과 바다에 몰려든 관광객들에 치여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온다면 진정한 휴가라 할 수 없다.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진정한 육체적 쉼을 어떻게 찾을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마음의 정중동을 찾아야 한다. 쉼은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상생활서 더 수월하게 내적 고요를 경험하게 해준다. 일의 고통과 억압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핸드폰 스위치를 단 3일 만이라도 꺼놓자. 여기엔 일상의 착(着)을 잠시 털어내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필자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해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좀 늦어진 일처리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핸드폰의 노예에서 좀 벗어나보자. 정신적 쉼을 즐기기 위한 첫 준비절차다.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근의 산중 사찰을 찾아가 보자. 녹음이 우거져 산사의 숲길은 온통 초록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바라만 봐도 평안하고 즐겁다.

일주문서부터 긴 호흡을 관하며 녹색의 숨을 흠뻑 빨아들이며 걷자. 1시간만 걷고 나면 온통 몸에 땀범벅이 된다. 하지만 노폐물이 빠져 나가면서 느끼는 상쾌함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상으로 시원하다.

대중적 휴가지나 관광지를 다녀오면 단 며칠의 쾌락과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 휴가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신적 쉼과 성숙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산사의 숲길 걷기는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잔잔한 내적 울림과 여운을 준다. 일상도 번잡한데 굳이 휴가까지 가서 번잡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여름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여름나기의 최대 복병은 열대야다. 이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름에 잠깐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일상화 단계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 열대야 불면의 밤, 그리고 이글거리는 태양. 그러나 차면 비워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남은 더위, 냉방기에 매달려 임시로 모면하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자.

생전에 법정 스님은 "더울 땐 너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조언하셨다. 더위가 극성이지만 다 한 때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의미이다. 피할 수 없으면 이마저도 즐기자. 언제나 그랬듯이.

社說

불자 선수 선전을 기원한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24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 각국서 내로라하는 경쟁선수들과 각축을 벌인다. 금메달 10개와 종합순위 10위권 내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런던올림픽서 뛰어난 활약으로 종합 5위라는 성적에 큰 보탬이 된 불자선수들이 다시 한 번 금자탑을 쌓기 위해 나선다. 배드민턴·레슬링·사격·양궁·펜싱 등 다양한 종목서 4년간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함성이 무더위로 잠 못 드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불자선수들은 주로 사찰과 법당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등 각자의 신행방법을 통해 대회를 준비했다. 명상을 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곤 했다. 부모의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대다수이지만 직접 불교서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서는 모두 엄지를 추켜세운다.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일만 남았다. 성적을 떠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펼쳐 국민에게 인정받는 불자이자 선수로 각인돼야 한다.

얼마 전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선수들이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선수들 마음속에 굳은 의지를,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눈에 밝은 빛을, 시합을 마친 선수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호법신장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한 것처럼 후회없는 시합을 펼치길 불자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할 때다.

지자체 불교 순례 개발에 관심을

전라남도가 지역 사찰 및 불교유적지를 연계한 31개 성지순례 길을 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자체 담당부서가 직접 상경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치유와 상생의 땅, 전남으로의 초대'란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불교 순례길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17곳을 포함한 도내 사찰 24곳 및 먹거리 코스를 함께 제공, 숙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청 관광과는 먼저 전남 북부·동부·중서남부 3개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당일·1박 2일·2박 3일 코스로 나누어 총 31코스를 구성했다.

현재는 시범운용단계에 있지만 향후 31코스를 수정 보완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이다. 순례길 홍보자료 및 전자책 발간도 예정돼 있다.

사실 전라남도는 경상권에 비해 비교적 불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살펴보면 주요 천년 고찰들이 대거 위치한 곳이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관광 자원이 많아 순례 여행에는 최적지다.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남다르다. 어떻게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천년고찰과 불교 관련 문화재, 유적들은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포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불교계 역시 지자체의 이 같은 순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에는 지자체 대외홍보와 수익 창출을 가져다 주고, 불교에는 불교문화 진흥과 대중 포교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불교는 철저히 지역에 기반한다. 지역불교를 순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 사백만원정도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건강 약선 음식 전문점
곽가네 음식 통인동 통인시장 내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음식입니다.
불연으로 만난 건강음식을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양 구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지극정성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련한 꿈속에서 천태종 종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당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하신지 10여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던 조사님께서 제 기도에 감응하셨는지 나타나시어 저에게 건강을 치유하라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법을 알려주셨고 그 음식 조리법으로 식생활을 바꾸니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조리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7년전 부터 곽가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불자여러분이 편하게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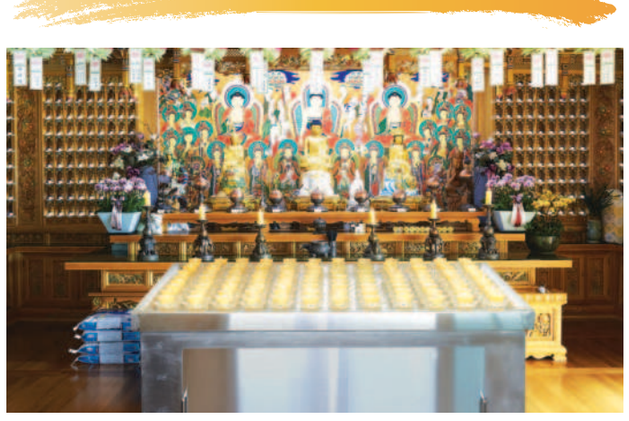


사찰음식 70% 일반음식 30%
◆불가음식 : 인삼견과류탕, 더덕견과류탕, 연근견과류탕, 우엉견과류탕, 버섯견과류탕
◆건강약선음식 : 정식A, 정식B, 정식C / 선식떡국, 선식냉모밀, 선식온국수, 선식냉국수, 견과류 누룽지탕 ◆일반음식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8 (통인시장 내) 곽가네음식
02)737-7949 / 곽정순 011-9762-7949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국내유통중인
모든양초제조·판매



실외 양초 공양집



new

연꽃(連花)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원기둥 (중) 테파초

日本精蠟 LOTUS 향초



원기둥 (중) 테파초

한봉밀납양초



천연쑥양초



전 사 지







야광용 양초 (호랑이 ·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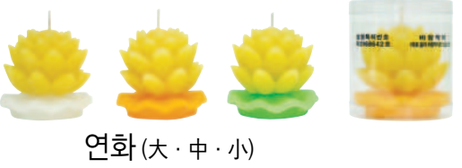
등大



육각초



칠성초 (연화 · 호랑이 · 반야)



연화 (大 · 中 · 小)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 담 문 의 :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쉬어라 맘껏 쉬자 다시 없을 것처럼

바야흐로 염천(炎天)의 계절이다. 여름이 왔다. 다시 한번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종교 의례처럼 휴가를 떠난다.

국내외 피서지는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대부분의 휴가는 중세 카니발(Carnival)과 같다.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긴다. 오로지 소비만이 존재한다. 이 같은 소비의 향연은 스마트폰을 통해 SNS로 전해진다.

이쯤에서 던지는 질문 한 가지. "당신은 정말로 쉬고 있습니까?"

'헐즉보리(歇卽菩提)'라고 했다. 쉬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란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쉼'의 본질을 만난다. 진정한 휴식 속에는 깨달음과 통찰이 있다. 이 속에서 빛나는 삶의 가치를 찾는다. 우리는 한가해져야 한다. 가속화된 사회일수록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음성에는 삶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쉼'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만날 수 있다. 쉬고, 쉬고 또 쉬어보자. 꽉 찬 것이 비워질 때까지 아주 실컷. 〈관련 기사 B2 · 3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작가 · 서체 디자인=외길 김경호 작가

B4·10·11  사찰서 보낼 수 있는 휴식
템플스테이 · 문화 축제 · 캠핑

B5·6·7  나를 위한 여름 산사
휴휴암(바다) · 홍룡사(폭포) · 반야사(계곡)

B8·9  기차로 떠나는 산사여행
산사와 연계되는 동해 · 서해 · 내륙열차들



지금 내 몸·마음이 원하는 것은… '休'

우리는 왜 휴식을 원하는가

휴식은 현대인에게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됐다. 성과와 경쟁, 가속화된 사회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휴식에 목말라 있다.

한병철 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의 제목처럼 현대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한다. 과거가 통제와 금기를 중시하는 '규율사회'였다면, 현대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을 강조하는 '성과사회'라고 말한다.

한 교수가 말하는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낳은 일종의 결과물이다. 성과를 올려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극대화해간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과의 주체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의 관심은 좋은 삶이 아니다. 이 경제는 더 많은 자본이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삶의 능력을 낳을 거라는 환상을 자양분으로 발전한다"며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생존의 히스테리에 밀려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로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교수는 △과잉자극에 맞선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 등을 역설한다.

>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다"
>
> 헨리포드

우리는 잘 쉬고 있는가

사색과 무위적 삶, 휴식은 피로사회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구와 같다. 그만큼 휴식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다. 문제는 '얼마나 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쉬는가'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잘 쉬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 5.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의 3.3시간과 5.1시간보다 각각 0.3시간과 0.7시간 늘어난 수치다.

반면, 여가 활동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TV 시청으로 51.4%에 달했다. 이어 인터넷·SNS(11.5%), 산책(4.5%), 게임(4.0%)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식 활동(62.2%)이 가장 많았다. 휴식 활동에 대한 응답률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결과를 보면 주5일제가 시작돼 여가와 휴식 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대부분은 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피로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과·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
'피로사회' 선 휴식의 가치 중요
"어떻게 쉬는가"를 고민해야

원함보다는 필요한 것을 찾고
오롯이 혼자인 시간을 즐겨라
명상 등 내면적 성찰이 필수

온전히 쉬는 법을 알아야

이런 한국사회상을 반영하듯 등장한 것이 '멍때리기 대회'와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같은 유행어다.

특히, '멍때리기 대회'는 혹사당하는 뇌를 쉬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뇌는 아무런 목표 없이 가만히 놔둘 때 더 많이 활동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신경생리학자인 볼프 징거 뮌헨대학교 교수는 "두뇌는 자기 혼자서 기막힐 정도로 잘 논다. 두뇌가 자신 안에서 산책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전한 휴식은 생산적이면서 창의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한 예로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마이스터(Stefan Sagmeister)는 7년마다 뉴욕에 있는 디자인 사무소를 닫는다. 1년 간의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다.

그의 말은 이렇다. "태어나 25년은 삶을 배우는 데 사용한다. 남은 40년은 일하는 데 바친다. 은퇴의 시간을 15년으로 본다면, 이 15년의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시간의 사이에 넣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자신이 정한 안식년을 통해 아시아 등을 방문했고, 휴식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거친 타이포그래피 등 일련의 디자인 작업은 그를 세계적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만들어 줬다.

휴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일련의 휴식 방법 중 하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고 쉬게하는 '명상'이다. 더불어 기도와 종교 행사 참여와 같은 '영적 휴식'도 쉼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독일 과학 전문 기자 울리히 슈나벨은 자신의 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에서 명상이 가져다 주는 휴식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명상에 대해 "단 하나의 대상에 그것도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는 훈련"이라고 정의하며 "신경과학자들이 증명하듯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경 네크워크도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명상에 대해서도 강한 예찬론을 펼친다. 울리히는 "인생의 소중함을 거듭 새기기 위해 '세계 안에 살아있다'는 각성을 해주는 간단한 연습은 황금보다도 가치가 있다"면서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명상은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식과 수면 전문가인 매튜 에들런드는 〈휴식: 내 몸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에서 명상과 기도 등 '영적 휴식'을 제안한다.

그는 "명상을 하는 데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 보상은 빠르게 오며, 지속적"이라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은 휴식과 회복을 준다. 이를 통해 정신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이것이 휴식이 주는 진정한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쉬는 것이 곧 깨달음

불교에서도 쉼은 매우 중요하다. 〈능엄경〉에는 '광심불헐 헐즉보리(狂心不歇 歇卽菩提)'라는 경구가 있다. 쉬지 않는 분주한 마음이 쉬게 되면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논문 '〈능엄경〉에서 쉼의 의미와 휴식형 템플스테이'에서 '헐즉보리'에서 휴식의 의미를 고찰하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호 스님은 "진정한 쉼은 자신의 불생불멸한 성품을 보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깨달음은 '얻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다"고 했다.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의 법문을 모은 〈쉬고 쉬고 또 쉬고〉는 쉼과 수행에 대한 명쾌한 지론이 담겼다.

무여 스님은 "현대인들은 일할 때와 쉴 때를 가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지적하며 "쉴 때는 아주 철저히 쉬고 놓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쉬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설했다.

이어 "쉬는 것이 참 공부다. 쉬는 것을 떠나 '무엇을 구한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참으로 쉬는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름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외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긴다. 휴가지에서 오롯이 휴가를 즐길 수 없다면, SNS와 인터넷 메신저에 매달려 있다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고, 먹고, 즐기는 소비를 통해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휴식 역시 진정한 쉼이 아니다.

진정한 쉼은 오롯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다. 매일 자신을 위해 몇 분이라도 비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각성큰스님 "종경록(宗鏡錄)" 고운사 특강

華嚴의 實敎로써 모든 經을 總攝하며 무궁무진한 圓宗을 모두 표현하여 萬法을 능히 총괄한다. 그는 곧 周邊하고 無礙하며 自存하고 융통하여 비로소 나의 마음을 나타내어 능히 宗鏡을 이루나니 마음으로써 宗을 삼는 것이 禪門의 正脉 이니라.



■ 일 시 : 2016년 8월 22일 (월) ~ 8월 26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 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문의처 TEL 054)833-2324 (고운사 종무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번지)



고운 꿈을 위해 쏴라!
고운사 중·고생 수련 캠프
8월 5일 ~ 7일 (2박 3일)
대 상 : 중·고생
참가비 : 10만원

가족간 화합을 위한
힐링 여름 캠프
8월 12일 ~ 14일 (2박 3일)
대 상 : 성인,누구나
참가비 : 10만원

Hello!

고운사 템플스테이 GOUNSA TEMPLESTAY ■ 신청 : TEL 054)833-6933 (템플스테이) / WWW.GOUNSA.NET

쉼,



“갈망하는 동안 쉼은 없다 내려놓고 ‘온전한 나’ 만나라”

서광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요즘 ‘번아웃(Burn-out)’이라는 말이 있지요. 불교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 한 절대로 ‘진정한 쉼’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마음이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진정한 쉼, 휴식이란 이루기 어렵다고 충고한다.

“바쁘게 사는 것은 1~2년 사이의 일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죠. 의식주를 비롯해 SNS, 미디어 등 우리의 환경이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바쁜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지적처럼 습관화 된 ‘바쁨’은 우리를 경주마처럼 한곳을 보고 뛰게 만든다.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여유는 없다. 이에 대해 서광 스님은 단절과 연결이라는 ‘모순적 두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디지털 시대, 바쁨은 생활양식

단절 · 연결, 모순적 두려움 존재

‘내려놓음’으로써 치유해보세요

“현대인의 관계 형성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먼저, 관계의 단절입니다. 잠시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SNS와 메신저를 놓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결의 두려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단절과 연결이라는 ‘모순적 두려움’은 온전히 소통하고 성찰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스님은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연민심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항상 ‘삶의 핵심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핵심가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순간순간 진실로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원하는 것만을 찾는 행위는 곧 ‘갈망(渴望)’입니다. 갈망이 있는 한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내 앞에 주워진 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를 ‘자각’하고 ‘음미’하면 온전하게 휴식하고 있는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본래 마음 회복이 진정한 쉼 ‘혼자 있음’을 즐겨보세요

문태준 시인·BBS 라디오제작부장

‘쉼’이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시인은 답했다. “차고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난다”고. 끼얹으면 몸과 정신이 시원해지는 청량감이 바로 휴식의 본질이라는 부연 설명도 돌아왔다.

문태준 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부장은 베테랑 라디오 PD이지만,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다.

불교방송 사옥 인근 찻집에서 만난 문 시인은 현대인이 잘 쉬지 못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니발 같이 무언가를 먹고 소비하는 휴가문화는 쉼을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현재 휴가문화를 보면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화려함을 휴가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은 지루하고 단순해지는 혼자만의 시간, ‘독거(獨居)’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휴양지에서 미뤄놨던 책을 읽는 ‘독서 경험’을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찰과 사색이 담긴 휴식은 온전히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쉬지 못하는 건 ‘집착’하기 때문

화려함만 있는 휴가, 쉼이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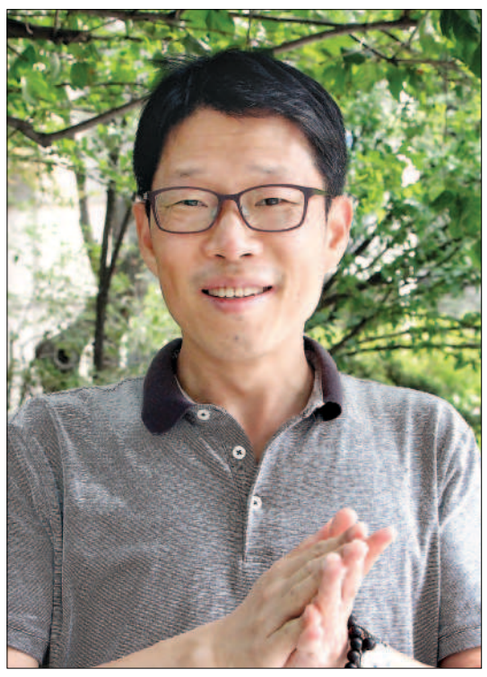
수행 · 성찰도 쉼의 좋은 아이템

문 시인은 곧바로 〈능엄경〉의 경구인 ‘헐즉보리(歇卽菩提)’를 말했다.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이 경구는 진정한 휴식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역시 “진정한 쉼이란 본래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박에 정의를 내렸다.

“집착과 망념이 많아 마음이 불편한 데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쉬기 위해서는 시비와 장단을 끊어내고 ‘일념불생(一念不生 · 한 가지의 망심도 생기지 않는 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헐즉보리’, 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른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결국 쉼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템플스테이나 단기출가는 쉼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문 시인은 평소 염불 수행과 108배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스스로를 온전히 다잡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 역시 직업이 있는 생활인입니다. 휴가를 받고도 말미가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평소 염불과 절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훈련과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면 내가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월호 스님 행불선원장

“바닷가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바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쉬어야 진정한 ‘쉼’입니다. 멀리 떨어진 것에 집착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려선 안되겠지요.”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어느 샌가 우리들 일상을 지배하게 됐다. 여행을 가서도, 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쉬러 온 나’를 망각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바로 지금 여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야 말로 ‘휴식(休息)’이라 강조한다.

월호 스님은 현대인들의 휴식 방법이 업무의 연장과 다름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일과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 폭넓은 인간관계는 맺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울 겁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숲 향기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청정해질 겁니다. ‘지금의 나’에 집중해야 해요.”

멀리 떨어진 것 집착하다

‘지금 바로 나’ 잃어버려

몸 · 마음 모두 쉬게 해야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언제부터 바쁨과 시간에 집착하게 됐을까? 월호 스님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 온 국가 정책서 원인을 찾았다.

“경제가 성장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이 여유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다름없는데 단거리 달리기 하듯 달리다보니 지쳐버리는 거죠. ‘번아웃 증후군’도 이 세태의 부작용입니다. 힘의 50~60%만 써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데 100%를 계속 쓰려고 하니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좀 쉬게 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스님은 진정한 휴식의 방법은 글자 그 안에 있다고 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을 표현한 ‘休息(휴식)’이란 글자 자체가 해답이란 설명이다. 경기도 이천 행불선원서 월호 스님이 매달 진행 중인 템플스테이에도 그 의미를 반영했다.

“저희 선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에서도 잣나무 숲에서 크게 소리 내 웃고, 걷고, 눕기도 하면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줍니다.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처음엔 찡그린 얼굴로 왔던 사람들도 3박 4일 후엔 전부 본연의 해맑은 미소를 찾아갑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현대인에게 휴식은 필요하면서도 부담되는 행위이다. 막상 휴식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쉬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스님과 문인들은 이 같은 휴식 문화와 진정한 쉼을 어떻게 정의내릴까. 모두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집착과 갈망을 끊어내고 스스로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명사들의 휴식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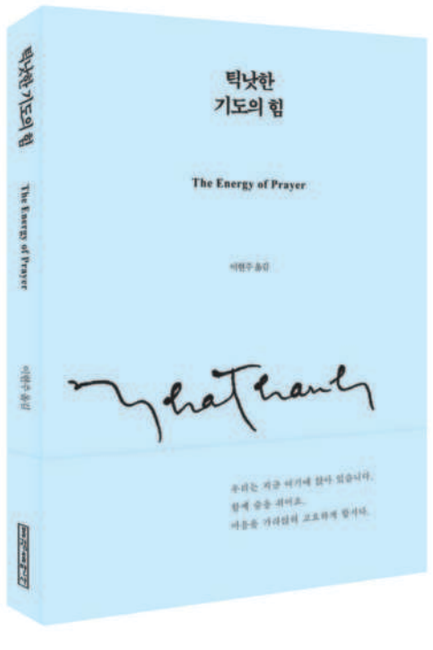
신성민 · 박아름 기자

그대를 바꾸고
그대를 살리고
그대를 근원과 이어 주는

틱낫한 스님의 정성 가득한 기도 이야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합시다.”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고
삶이 깊어지는
참된 기도의 세계로 안내한다



틱낫한
기도의 힘
The Energy of Prayer
이현주 옮김 | 208쪽 | 13,000원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

삶과 일과 예술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



프랑크 베르츠바흐 지음 | 정지인 옮김 | 256쪽 | 13,8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더운고? 하늬바람 부는 山寺로 오시게!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성 만점' 여름템플스테이

텁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찐다. 심신은 이미 넘쳐나는 정보들로 걸레짝마냥 축 늘어진 것만 같다. 재충전이 절실한 때다. 이럴 땐 에어컨보다도 시원한 툇마루와 우거진 나무그늘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눅눅한 기분을 달래주는 하늬바람, 풀벌레들의 작은 음악회, 은은한 풍경소리, 별 헤는 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다면 떠나라. 오래 전 유행했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카피에 기대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퍽퍽한 세상살이 하루하루 견뎌낸 모든 이들에게 고한다. "피서는 템플스테이가 답이다."

여름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수련회의 계절. 물론 매년 찾아오는 여름과 때에 맞춰 열리는 템플스테이가 조금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찌하리. 이보다 나은 피서가 없는 것을. 피서를 가려 하면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당신에게 조금은 이색적인 템플스테이를 권한다.

육지장사 '단식템플스테이' (8/3~7)

명칭부터 범상치 않다. 단식이라니…. 그저 더위만 피하려 했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다. 경기관광공사가 7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한 어엿한 템플스테이니까.

양주시 백석읍 도리산 깊은 곳에 자리한 육지장사는 수행정신을 배우면서 건강에도 이로운 독특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여름에는 '산사의 건강비전, 여름특별 단식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여타 사찰과 마찬가지로 108배와 명상 등 기본적인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육지장사만의 특징인 '온구체험'이 진행된다. 이 체험은 맥반석 옥돌을 천연 한방재료와 구워 배를 찜질하는 것이다. 오장육부와 내분비선 기능강화, 만성피로 해소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줘 많은 성인들이 선호하는 템플스테이다. 아울러 육지장사의 '선차'를 이용한 식이요법과 쑥뜸 등은 만병의 근원인 비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산사의 오랜 전통이 담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쉬면서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통 없이 단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031)871-0101

봉녕사 '여성단기출가' (8/11~15)

그래, 분명 휴가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머리 깎으라 강요하지 않으니 눈 여겨 봐도 좋다.

비구니도량 수원 봉녕사가 여성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편한 마음으로 출가를 잠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진짜 스님들처럼 엄격하게 다루지 않고, 불교문화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힐링 프로그램이 주다.

특히 참가자들을 위해 덕 높은 비구니스님들이 직접 법문을 하고, 청소년 심리치유 등 활동을 펼치는 전문가가 다도명상을 지도한다. 팔관재계 수계식은 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이 관장하며, 참가자들은 4박5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애니어그램부터 가치관 나누기, 붓다요가, 만다라 그리기, 나에게 쓰는 편지, 사찰문화산책 등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복잡한 사회생활에 지쳐 잠시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많은 남녀가 어울려 체험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에게 마음의 쉼표가 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다. (031)256-4127

백담사 '자기주도학습' (8/8~13)

'또 백담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 그렇다. 또 백담사다. 스테디셀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템플스테이 하면 백담사'가 괜히 나온 말이겠는가. 게다가 자녀를 위한 템플스테이다.

인제 백담사는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기주도적 학습력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전문코치 지도 아래 스스로 하루 일과를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심신을 맑히는 불교문화체험이 함께 이뤄진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내설악의 계곡에서 장래희망을 스님과 함께 나누고,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한창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계곡 물놀이와 범종을 직접 쳐보는 맥놀이도 진행된다. 밤에는 수심교 위에 누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감수성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정화된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시심즉불' 시간도 보낼 예정이다. (033)462-5565

문수암 '멍 때리기 템플스테이' (8월 중)

이름만 보면 '갈 데까지 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뭔가를 해야 하는 템플스테이를 벗어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함이 있다.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에겐 안성맞춤이다.

산청 문수암의 '멍 때리기 템플스테이'는 1박2일 이상으로 진행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오로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표방할 뿐이다. '바보 문수암'이라는 별칭과도 퍽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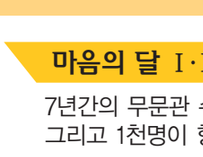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라온 사람에게 건네는 물 잔에는 나뭇잎 하나 띄워주기 마련이다. 급하게 물을 마시다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세심한 배려다. 멍 때리기 템플스테이도 이와 비슷하다. 숨 가쁘게 살아온 당신이 겨우 찾은 휴식이 도리어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 마음 편안한 템플스테이다. (055)973-5820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 여름 계곡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지역	사 찰	일 정	템플스테이명	대 상	연락처
경기	신륵사	~8월(주말)	神(신)나는 黎(여)름	누구나	(031)885-9024
	묘적사	~8월(수목 · 토일)	내 꿈을 이뤄봐!	누구나	(031)577-1761
강원	월정사	8/4~7, 11~14	月래, 괜찮아	누구나	(033)339-6800
	건봉사	8/1~3, 5~7	괜찮아!	누구나	(033)682-8103
	신흥사	~9월(1박2일부터)	여름, 설악의 향기	누구나	(033)636-7044
경북	축서사	~8/21(1박2일부터)	쉬고 쉬고 또 쉬고	누구나	(054)673-9962
	심원사(성주)	8/1~4	검정고무신동심체험	초3~6	(054)931-6887
경남	대원사(산청)	7/30~31	몸생생 마음생생	누구나	(055)974-1112
	용화사(통영)	8/5~7	성인 명상 템플스테이	대학생 이상	(055)645-3060
대구	동화사	8/5~7	여름템플스테이	누구나	(053)980-7979
전북	내소사	8/5~7	여름 바닷가 트레킹	초등생 이상	(063)583-7281
전남	백련사(강진)	8/12~14	남도기행 템플스테이	누구나	(061)432-0837
	미황사	8/13~20	참사람의 향기	성인	(061)533-3521
	흥국사(여수)	7/31~8/2	의승수군 템플스테이	초중등생	(061)685-5633
충북	영국사	~8월(1박2일)	천년계곡 트레킹	누구나	(043)743-8843
	법주사	8/12~14	풍당 여름에 빠지다	성인	(043)544-5656
충남	마곡사	8/13~14	수리수리 숲소리 가족캠프	누구나	(041)841-6226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판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옴 그림천수경

42개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과 역할이 녹아있는 천수경!
그림을 통해 마치 불보살님을 친견하듯
그 진실어의 위신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유학당 | 대명스님 엮음 | 349 쪽 | 신국판 | 값 15,000원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12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대유학당 | 설정스님 | 192 쪽 | 가로 9.5㎝ × 세로 15.5㎝ | 값 10,000원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CD


하락리수는 사주를 주역의 괘효로 환산하여, 주역으로 풀이한 평생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하락리수 CD는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일일운세와 궁합을 일까지 확대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유학당 | USB락, 프로그램메뉴얼 | 가격 550,000원

대유학당 ☎ 02)2249-5630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바다 갈매기도 머무는 매혹적인 '觀音聖地'



쉬고 또 쉬고 싶은 절, 몸과 마음 모두 놓고 편안히 쉬는 절, 휴휴암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순례객들의 휴식을 독려한다.

'동해의 황홀경' 휴휴암(休休庵)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지친
어느 무더운 여름,
휴휴암 관세음보살님과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동해를
마주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휴휴암이 얼마나 매혹적인
해수(海水)를 품고 있는 도량인지를 말입니다.
전국 상위 1%안에 족히 끼고도 남을
명품 풍광과 기도발의 영험으로
불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휴휴암은 이제 우리에게
큰 휴식을 선물해 줍니다.
휴휴암은 수행처로서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진 매혹적인 풍경도 두루 갖춘
8등신 사찰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휴휴암에는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번잡스런 일상서 탈출해 동해의 푸른 파도와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휴휴암을 굳이 작렬하는 태양속
무더위에 찾은 것은 홍진에 묻힌
온갖 번뇌를 털기 위함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기 풀어놓는 것은
동해의 작은 암자 휴휴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김주일 기자**

바닷가에 누워계신 '관세음보살'

쉬고 또 쉬고 싶은 절. 몸과 마음 모두 놓고 편안히 쉬는 절. 인간은 물론 바다갈매기, 바위, 물고기도 쉬어가는 템플. 이름만 들어도 쉬고 싶은 절. 바로 휴휴암(休休庵)이다. 서울서 잘 닦여진 경춘고속도로를 타고 속초로 나와 7번 국도를 따라 양양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하조대 근처에 위치한 동해의 '황홀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경내 높은 곳서 내려다 본 휴휴암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휴식을 독려한다. 암자와 맞닿은 너른 바위는 바다 물위 평상(平床)처럼 펼쳐져 있다. 너른 바위를 호위하는 듯한 주변 바위들의 각종 형상은 방문객의 탄성을 연발시킨다.

이 곳에는 다른 해안가 사찰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다. 해수관세음보살상이다. '바다'로 상징되는 사바세계서 번뇌속에 헤매는 대중들을 구원하는 존재다. 경전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낙가산 해안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 사찰에는 거의 해수관음상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휴휴암에는 이 관세음보살이 석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해안가 절벽에 편안히 누워 계신다. 사명(寺名)이 휴휴암인 것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바닷가에 편안히 쉬고 계신다는 것에서 유래됐다.

기이한 형상 바위도량과 절묘하게 조화

휴휴암의 회주 홍법 스님이 이곳에 암자를 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지 4년째 되던 해, 무지개가 뜨는 해변에 누워 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넘실 거리는 파도 사이에 환하게 드러난 형상은 그대로 '관세음보살상'이었다. 멀리서 본 바위는 해수관음상의 모습과 너무 닮았고,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바위는 기이하게도 거북이 형상을 한 채로 관세음보살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와(臥)불상 우측에는 관세음보살상을 향해 기어가는 모습의 거북바위와 선명한 발가락 모습의 발 모양 바위, 그리고 손가락을 가만히 말아 쥔 모습의 주먹바위 등이 어우러져 머릿속에서 해수관음도량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휴휴암에서는 그 바위를 동해에 나투신 관세음보살님이라 여긴다. 관음성지가 된 연유다.

먼저 휴휴암에 들어서면 암자치고는 제법 규모가 있는 절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묘적전과 다라니굴법당, 비룡관음전, 요사채, 종무소 등 제법 당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력이 20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천년고찰처럼 고즈넉하지는 않다. 하지만 눈을 오른쪽으로 돌려 해안가 쪽을 바라보면 창건주가 왜 이곳에 휴휴암을 세웠는지 고개가 끄덕여 진다. 풍광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도량의 분위기가 기이한 형상의 바위와 어울려 신비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려불화 형태로 조성한 다라니굴 법당

휴휴암 교무 무착 스님의 안내로 처음 들어 간 곳은 묘적전이다. 휴휴암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법당안에 들어가니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이 반긴다. 화려한 금빛색이 눈에 확 들어온다. 창건주의 창건 설화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묘적전 옆에는 다라니굴법당이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나오는 부처님들과 보살님들, 천왕님들을 고려불화로 그려 모셔 완공했다. 휴휴암서 빼놓지 말고 친견해야 할 불상이 있다. 바닷가 절벽에 위치한 비룡관음전을 가야 만날 수 있다. 푸른 용 위에 현현하신 금박의 관세음보살상이다. 1962년 6월 19일 중국과 대만 동북부 해협서 미국 공군 조종기에 공중 촬영된 관세음보살 성상을 그대로 재현해 제작해 모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영험한 불상의 조성 경위를 알아서 인지 기도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문다.

휴휴암에는 재미있는 석조물이 있다. 바로 멧돼지 석상이다. 휴휴암 묘적전 법당에 모실 천수천안상을 조성할 때 시주자가 운영하는 강릉 관광호텔서 마주한 산돼지에 얽힌 경험을 토대로 창건주가 관세음보살이 멧돼지로 화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조성했다고 한다.

웅장한 '대형 황금 범종'… 일반에 개방

발길을 돌려 사찰 우측 언덕 야외에 조성된 '지혜관음전'으로 향했다. 3천3백3십관으로 제작된 금빛 대형 범종이 눈에 띈다. 일명 '관음 범종'이다. 크고 웅장하며 전체 순금을 입힌 황금종이다. 업장 소멸을 위해 누구나 세 번씩 치고 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휴휴암 동쪽 끝자락에는 '지혜관세음보살님'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굽어보고 계신다. 자애로운 형상에 바라만 봐도 걱정 근심이 눈녹듯 사라진다.

경내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5분 정도만 내려가면 바닷가에 일명 '연화대'라고 불리는 널찍한 바위 마당이 있다. 족히 100평은 돼 보인다. 너럭바위에 서 있으면, 그대로 바다 위에 떠있는 느낌이다. 바다와 내가 둘이 아님이 느껴진다. 내 안의 미움 분노 질투 탐욕 증오 등 백팔번뇌가 바람에 그대로 씻겨내려 가는 듯하다.

연화대 중앙에는 부처상이 하나 있는데, 그 왼편에는 일명 '발바닥 바위'라 이름 붙여진 바위가 하나 있다. 흡사 거인의 발바닥인양 거대하다. 수년 세월동안 파도와 비바람을 무던히 견뎌낸 바위답게 장중하다.

이외에도 휴휴암에는 여의주바위, 태아바위, 얼굴바위 등 갖가지 이름 붙여진 바위들이 많다. 휴휴암이 가족 휴양지로도 안성마춤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연화대서 걸어나오면 오른쪽에 작은 미니 해수욕장이 있다. 가족용 해수욕장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군사보호지역이라 해가 지는 오후 7시경이면 출입을 금지 시키니 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겨 그동안 눈이 호사스러웠다면 비룡관음전 건물 아래층에 생긴 카페서 차를 한잔 음미해 보자. 차향과 바다 내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기분을 한껏 돋워준다.

휴식형 에코 템플스테이 '마이 데디' 오픈

한가지 더 소개한다. 올 여름 휴휴암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휴휴암서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모텔을 개조해 만든 '마이대디'란 숙소가 새로 오픈했다. 휴휴암이 운영하는 휴식형 에코 템플스테이 숙소다. 그리스 풍으로 운치있게 리모델링 했다. 숙소 겸 힐링 템플스테이 장소로 적합하다. 이용을 원하면 휴휴암에 문의하면 된다. (033)671-0093


휴휴암 전경. 중앙에 묘적전이 보인다.


묘적전 옆에 위치한 다라니굴법당.


비룡관음전 안에 모셔진 비룡관음상.


휴휴암이 운영하는 에코 템플스테이 숙소 마이대디.

폭포수 속에는 설법의 메아리가…





1. 홍룡사 관음전 옆 폭포가 세속의 번뇌를 모두 씻어버릴 듯 흐르고 있다. 양산 8경 중 4경으로 물이 많을 때는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

2. 쉼터에서 보이는 대나무 숲이다. 여름철 대나무 소리는 청량하다 못해 시리다.

3. 일주문을 지나면 아담한 쉼터가 있다. 산행 중 흐른 땀을 식힐 수 있다.

4. 계곡속에 웅장함을 보여주는 홍룡사 대웅전의 모습.

경남 양산

홍룡사

"부채질하기도 나른하여 / 푸른 숲속에서 웃옷 벗고 / 두건도 벗어 바위에 걸쳐두니 / 드러난 이마를 솔바람이 씻어낸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하일산중(夏日山中)'이다. 시인은 더위를 잊기 위해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더위가 시작된 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문명의 발달로 간단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된 오늘날이지만 더위를 잊기 위해 자연을 찾는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자연을 찾아간다. 육체의 땀을 흘려서라도 기어이 푸른 숲을 찾는 것은 육체에 쌓인 더위와 아울러 마음에도 더위가 쌓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더위는 문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마음속의 더위를 끊어내야 한다면 눈앞에 죽비가 걸려있고, 길목마다 향 내음 가득한 산사로 가자.





폭포가 있는 홍룡사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 기슭.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관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지는 관음전 불단 위에선 맑은 향이 타오르고 문밖으로 날아간 향 연기 끝엔 한줄기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홍룡폭포가 있는 홍룡사다.

일주문을 지나 올라가는 길에 정자가 하나 있다. 1918년에 가선 대부 석은 이재영과 죽우 권순도가 함께 세운 가홍정(駕虹亭)이다. 원래의 건물은 아니고 1970년대에 복원한 건물이다. 당시 이재영은 한가한 자리를 찾아 자취를 끊고 이름을 숨기고자 했다. 그가 찾은 은거지가 지금의 가홍정이다. 이재영이 저술한 〈가홍정원병서〉에 시가 한 수 있다.

"천성산 그림 같고 골짜기는 푸른데 / 한 물결 무지개 폭포 신령한 구역을 깎아냈네 / 특별한 곳에 우레 울리니 맑은 낮에 비가 오고 / 위태한 바위에 꽃이 피니 저녁 구름이 가리네 / 몇 칸 엉성한 건물 누가 될 법하지만 / 반세상 찌든 근심 일깨워 줄 만하다 / 고마워라 동남지방 지나가는 과객들 / 올라오는 패옥 소리 모두가 난초향기로다."

정자에 앉아 지친 무릎 위로 시 한 수를 떠올리면, 시원한 바람이 구름을 몰고 지나간다. 가홍정 옆으로 아담한 쉼터가 있다. 벤치에 앉으면 작은 숲과 마주하게 된다. 나무는 매순간 자라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린 산새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생이 아쉬운 매미들은 나무 등에 업혀 쉴 새 없이 운다. 산다는 것은 쉴 틈이 없는 것이며, 쉴 새 없이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것이며, 하루하루를 아쉬워하며 울어야 하는 것이리라. 한 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음이다.

숲을 지나면 대웅전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두 손을 모으면 이마가 지고 온 땀방울은 비로소 뜻을 가지게 되고, 힘겨웠던 두 다리는 비로소 읽힐 수 있는 문자로 남는다.

법당 옆으로 난 돌계단을 오르면 앞서 말한 관음전과 홍룡폭포가 나온다. 벼랑 끝에서 시원하게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쌓인 물 위에는 관음전이 있다. 원래 홍롱(虹瀧)폭포였던 홍룡폭포는 천룡(天龍)이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무지개 '홍'자를 쓰는 홍룡폭포는 물이 많을 때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고 한다.

홍룡사는 신라 문무왕(661~681) 때 원효(元曉 · 617~686) 스님이 세운 절이다. 원효 스님이 세운 많은 절이 있지만 홍룡사는 조금 특별한 불사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당나라에서 건너 온 천 명의 대중을 위해 지어진 절이다.

수많은 불교설화가 있는 천성산엔 한줄기 폭포 품은 사찰 홍룡사가 임란 당시 전소… 1910년 중창돼

양산 8경 중 4경 홍룡폭포 '매료' 무지개 타고 하늘 오른 天龍은 물이 많은 날엔 무지개를 만든다

원효 스님이 지금의 부산시 기장군 불광산에 자리한 척판암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공양 때 스님은 혜안으로 당나라의 태화사를 보게 된다. 절은 곧 산사태로 매몰될 지경이다. 마침 태화사는 천 명의 대중이 저녁 공양 중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간 대중 모두가 죽게 될 판이었다. 원효 스님은 공양 중이던 밥상의 그릇을 모두 내려놓고 상다리를 접어 밥상을 태화사를 향해 던진다. 태화사 허공에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신이한 소리가 도량에 퍼져나간다. 바람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나온 대중은 허공에 맴돌고 있는 밥상을 보게 된다. 대중이 밥상을 따라 절 밖으로 모두 나오자 산이 무너지고 태화사는 매몰된다. 절은 매몰됐지만 대중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원효 스님의 밥상이 땅에 내려앉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태화사 대중이 땅에 떨어진 밥상을 들어보니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擲板救衆 · 신라의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라를 향해 절을 한다. 원효 스님의 밥상이 다시 허공으로 솟아올라 신라로 향하니 태화사 대중이 그 밥상을 따라 신라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천 명의 대중은 원효 스님의 제자가 된다. 원효 스님은 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천성산에 89암자를 짓는다. 그 중 하나가 홍룡사이다. 당시 스님은 화엄벌이라 불리는 벌판에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제자들은 원효 스님의 설법을 듣기 전에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엔 낙수사(落水寺)라 했다. 천 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불한다. 천성산의 본래 이름은 원적산이었으나 이때 천 명의 제자들이 모두 득도하여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천성산(千聖山)으로 바뀌어 불리게 됐다.〈송고승전〉에서 전한다. 홍룡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절터만 있다가 1910년대에 법화 스님이 중창했다. 1970년대 말 우광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성산과 내원사, 원효암까지

홍룡폭포는 양산 8경 중의 4경이다. 그리고 홍룡폭포와 홍룡사를 품고 있는 천성산 역시 양산 팔경 중의 하나다. 홍룡사에 간다면 천성산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다. 천성산 산행은 홍룡사 입구를 출발해 삼거리, 쉼터바위, 화엄늪 삼거리, 원효암 삼거리, 천성산 제2봉, 원효암, 전망대, 쉼터바위 편백숲을 거쳐 다시 홍룡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약 10km의 산행으로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높이 922m의 천성산은 많은 계곡과 폭포 등 수려한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린다. 제2봉의 북서쪽 사면(하북면 용연리)에는 내원사(內院寺)가 있다. 희귀한 꽃과 식물 · 곤충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을에는 울창한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산 정상은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원사 계곡 역시 양산 8경 중의 하나다.

원효암에서 홍룡사쪽으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천성산 절경 중의 하나인 편백숲을 볼 수 있다. 홍룡사에 가면 천성산과 원효암, 내원사까지 함께 다녀올 수 있다.

홍룡사의 유물

홍룡폭포의 폭포수는 그 옛날 설법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화엄벌을 지나왔다. 아득한 사연으로 패인 골짜기의 단면을 흐르며 그 시절이 남긴 설법의 메아리를 실어 나른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물소리엔 아득한 문자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옛날의 흔적을 읽어주는 홍룡폭포는 진정한 유물이다. 폭포수에서 들려오는 오래 된 문자의 메아리를 듣고, 숲에 깃든 삶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제 등에 지고 온 땀방울이 비로소 뜻을 가지게 된다. 끊어낸 땀방울이 법당에 가득하다.

글 · 사진=박재완 여행작가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양산 IC로 나가 통도사 방면 35번 국도로 진행한다. 고려제강 양산공장 옆길로 우회전해서 대석리 마을 저수지를 지나면 홍룡사, 홍룡폭포로 가는 길이다.

1.5㎞ 정도 가면 공영 주차장이 있고, 800m 전방에도 주차장이 있다.

〈주변 가볼 만한 곳〉

▲배내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선리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가지산 고봉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맑은 계곡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이천동(梨川洞), 우리말로 배내골 이라한다.

▲내원사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6.25때 불탄 것을 1958년 수옥 스님이 중건했다. 절 아래 4km정도 뻗어있는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원효암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6-1번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원적산에 있는 암자다. 646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1905년 효은 스님이 중창했다. 내원사 부속 암자다. 원효 스님의 89암자 중 하나다.



박재완 작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현대불교신문사서 사진기자로 일했다. 2008년과 2010년 한국불교기자상(사진영상 보도부문)을 수상했다. 2012년 〈에세이스트〉에 수필로 등단했고, 2016년 5월 산문집 〈산사로 가는길〉을 출간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여행작가 및 전문사진 작가로 활동중이다.

첩첩산중 문수동자가 내 어깨를 다독이네





1. 반야사 앞 반야호수에서 참선하는 불자들의 모습. 호수에서 눈을 감고, 자연을 음미해보자

2. 문수전 앞 절경,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가슴 속 묵은 때를 벗겨낸다.

3. 소박한 반야사 대웅전 모습. 대웅전 앞 푸른 잔디밭은 포행에 적합하다.

4. 문수전의 작은 불상들, 동전을 이 불삼아 편히 쉬고 있다.

영동 **백화산** 반야사

절은 혼자가야 한다. 오로지 나를 위한 여행의 로망을 품고 있는 당신이라면 꼭 작은 절을 찾아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절에서 그저 천천히 나를 위로하다보면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던 깊고 진한 여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한 힐링여행은 모두에게나 절실하다. 그러나 큰 맘 먹고 도시와 일터를 떠나면 여행이 주는 또 다른 긴장과 스트레스에 부딪히기 마련. 여행지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그저 지칠대로 지친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곳은 없을까. 그렇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진정한 힐링여행이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여행, 가능하다.

山에 안긴 작은 절, 운치 매력
이를 찾는 길은 절여행의 백미
고요·경건함에 머리 숙여진다

백화산 석천골에 감춰진 반야사
오솔길 걸으면 만나는 문수 설화
나에게 말을 거는 호젓한 시간

힐링여행은 생각보다 가까이

산자락 곳곳에 둥지를 튼 산사는 화사한 햇볕 한줌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힘이 있다. 절에 가면 차분해지고 내면을 반추하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다.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휴식처인 셈. 그렇게 본다면 수천 개의 절과 암자를 가진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라 할 수 있다.

풍덩풍덩 물이 흐르는 계곡이 반야사 초입을 알린다. 미완성을 위한 변주곡처럼 조금은 휘청거리면서 계곡을 흐르는 물길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여본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문득 놓쳤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매력. 녹음이 무성한 오솔길을 느리게 걸으면서 슬며시 마음을 열어본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곳들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더위를 피해 찾아간 반야사에는 작지만 특별한 선물이 있다.

반야사를, 나를 찾아가다

반야사는 혼자 가면 더욱 좋다. 혹 볼거리에 무게를 둔 여행일지라도 절에 들어섰을 때는 최대한 눈을 감고 자연을 음미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풍경 소리며, 바람 소리, 산새 우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꽃잎이 날리고 하늘 그림자 내려앉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아예 주저앉아 몇 시간을 보내도 좋다. 명찰, 대찰, 삼보 사찰보다는 작은 규모의 절이 더욱 운치 있게 마련. 그래서 작은 절을 찾는 길은 절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작은 절은 산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산속에 콕 안긴 절이 많기 때문. 산 속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그 고요함과 경건함에 머리가 숙여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절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구도의 여정인 셈이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말 붙이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작은 절에서는 자연스럽게 다가가기가 가능하다.

사색에 젖게 하는 굽이굽이 길

반야사의 아름다운 경치와 녹음이 동시에 내려앉는다. 구부러진 길처럼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굽어서 가거나 그 길옆으로 흐르는 계곡처럼 고요하기도 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백화산 석천계곡 굽이 지점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는 여름철 장마가 져서 계곡의 물이 불어나면 없어졌다가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아름다운 다리로 모습을 드러낸다한다. 그런 모습이 마치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 문득 관음전의 부처를 만나고 싶어지게 만든다.

반야사에 도착하면 자연스레 약수를 찾게 된다. 약수터 한편에 "용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 한 모금 마시고 부디 성불하세요"라는 예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충청도 첩첩산중에 숨어 있는 절

소백산맥 줄기인 백화산은 충북과 경북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백화산에서 흘러내리는 큰 물줄기가 태극 문양으로 산허리를 감아 돌면서 연꽃 모양의 지형을 이루는데, 영동의 깊은 산이 감싼 연꽃의 중심에 반야사가 위치하고 있다. 반야사는 법주사의 말사이다.

반야사는 신라 성덕왕 19년인 720년에 의상대사의 십대제자 상원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며 일설에는 문무왕 재위 기간인 661년에서 681년 사이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가지 창건 설화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무염국사가 황간 심묘사에 계실 때에 사미승 순인을 이곳에 보내 못의 악룡을 몰아내고 못을 매워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에 고려 충숙왕 12년(1325년) 학조대사가 중수하였고, 조선 세종대왕 때에는 신미대사의 주청으로 절을 크게 중건 하였으니 문수보살과 세종대왕의 설화도 이때의 일이다. 한국전쟁 때 불탔던 것을 근래 2~30년 전부터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 반야사에서 수행했던 유명한 스님으로는 고려 충숙왕 때 무이국사가 이곳에서 출가를 했고 조선 초기 큰 도인이었던 벽계정심선사도 이곳에 주석했으며 또한 이곳 반야사를 배경으로 한 사명대사의 시도 전해 내려온다.

반야사는 도량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문수전과 관음전이 떨어져 있어 전각까지 가는 길이 산책로이자 등산로가 된다. 산마루에 있는 문수전까지 가는 길은 사계절 내내 아름기로 유명하다. 절벽 아래에 흐르는 강이 제법 넓고 커다란 바위가 군데군데 평평하게 펼쳐져있다. 그리고 문수전은 절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오솔길 따라 문수동자 만나다

반야사를 찾았다면 문수전은 꼭 봐야 한다. 문수전은 수십 미터 높이의 아찔한 절벽 위에 지어진 가람인데 정묵당 뒤로 개천(석천)을 따라 5분쯤 걸어가면 문수전으로 가는 계단이 나온다. 방생 장소로 유명한 수월대를 지나고, 넓은 반석에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돌계단이 이어지는 벼랑길을 올라야 한다.

산꼭대기 절벽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문수전이다. 석천계곡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정사와 같이 세조가 대웅전에 참배를 하자 문수동자가 나타나 세조를 절 뒤쪽에 있는 망경대 영천으로 인도한 후 목욕을 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세조가 목욕을 하자 문수동자는 왕의 불심이 지극하기에 부처의 자비가 따를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자를 타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반야사 극락전에서 오솔길을 따라 약 300m 정도 걸어가면 평평한 바위가 나오고 그 바위 옆 우측으로 돌계단을 따라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다. 문수전에서는 스님의 낭랑한 염불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고 목탁 소리가 유독 청아하게 들린다. 계곡이 둘러싼 곳에 둥지를 틀어 소리가 모아져 목탁 소리가 더욱 청명해지는 것이다. 문수전에서 학이 울면 학소대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바위와 어우러진 문수전은 쳐지고 지친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를 모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반야' 라는 글이 포함하고 있는 상징성이 문수보살이다. 또한 백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장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명 덕에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이 머물고 있어 기도가 영험하다고 한다.

반야사를 둘러싼 녹음을 곁에 두고 오솔길을 걸으면 무거웠던 마음에 들어찬 고통이 서서히 씻겨 내려간다. 누군가의 위안을 바라기보다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게 말을 걸게 하는 호젓한 시간이다. 반야사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위로해본다. **글·사진=유철상 여행작가**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황간IC를 나와 마산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다. 월류교를 지나 신촌리감서리에서 우회전 하면 반야사 이정표가 나온다.

주소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다. 043)742-7722

〈주변 가볼만한 곳〉

▲월류봉 첩첩산중인 영동은 그 첩첩마다 아름다운 경치들을 꼭꼭 숨겨두고 있다. 반야사에서 자동차로 십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월류봉도 비경 중 하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맑은 물줄기 가에 깎아 세운 듯 세모난 봉우리가 우뚝 서 있다.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 라는 뜻의 월류봉(月留峯)이란 이름처럼 달밤의 정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난계국악박물관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추앙받는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 영동이다. 박연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국악의 맥을 잇기 위해 230평 규모의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제작촌이 자리하고 있다. 난계실에서는 박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국악연표, 연주모습, 국악기 제작과정 등 국악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관이 있다.



유철상 작가는
〈광주매일〉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됐고, 동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다수의 잡지와 신문사서 여행전문기자로 일했고, KBS, EBS, YTN, BBS, 불교TV, MBC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여행 패널로 참여해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위한 사찰여행 55〉 〈천국보다 멋진 럭셔리여행〉 〈괌 사이판 셀프트래블〉 〈주말엔 서울여행〉 〈우리나라 가족여행 바이블 100〉 등이 있다.

휴~ 이번 여름 운전대 놓고 떠나볼까?

기차타고 떠나는 사찰 여행 3選



휴~여름이다. 몸과 마음이 지친 당신에게는 산사의 청량함이 약이다. 하지만 산사로 떠나기 전 교통체증으로 당신은 이미 탈진 상태. 올 여름 휴가에 기차여행은 어떨까? 기차여행은 낭만이 있어 좋다.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여행 방법으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알뜰 여정을 꾸릴 수가 있어 인기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휴가철 자동차 핸들을 놓고 기차에 오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산사의 풍광과 동반자들과의 오순도순한 대화까지 즐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다. 이제 기차타고 사찰로 떠나자. **노덕현 기자**

담앤북스
여름 추천 도서

여름휴가지에 챙겨 가면 좋은 명상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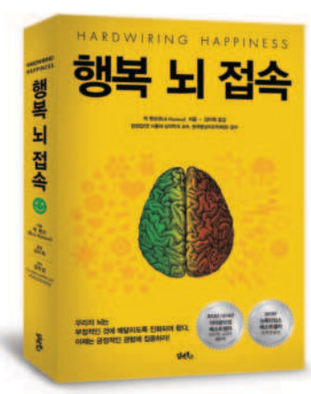
놀 때는 그냥 신나게 놀아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 그림책
로렌 알더퍼 지음, 케리 리 맥린 그림
김선희 옮김 | 32쪽 | 12,000원



도담도담 임산부 명상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좋은 엄마를 꿈꾸는 당신에게
앤디 퍼디컴 지음 | 김미옥 옮김
264쪽 | 15,000원



젠(Zen) 만다라 컬러링북
명상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100가지 색칠하기
Dessain et Tolra 엮음
128쪽 | 13,000원(양장)



행복 뇌 접속
10초,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간
릭 핸슨 지음 | 김미옥 옮김
368쪽 | 18,000원



명상에 답이 있다
뇌를 움직이는 마음의 비밀
장현갑 지음
220쪽 | 13,800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다채로운 만다라 패턴 138가지 색칠하기
Carlton Books 엮음
128쪽 | 12,000원

담앤북스 02)765-1251

TRAVEL = TRAIN + TEMPLE

시원한 바닷바람에 번뇌가 씻긴다

푸른 바다열차 타고 '동해 삼화사'로

여름 휴가철에 이용하면 가장 좋은 열차는 '바다열차'다. 코레일에서 이번 여름 휴가철 기차여행으로 적극 추천한 '바다열차'의 매력은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바다열차에서는 바다 경관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 이동노선이 정동진역부터 목포역, 추암역, 삼척역으로 이뤄진 덕분에 동해 경관의 끝을 볼 수 있다. 바다열차는 특실 2칸, 일반실 1칸, 가족실 1칸으로 총 4량의 열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량, 2량 열차는 특실로 창 측을 바라보는 커플좌석이 준비돼있다. 3량은 가족석으로 구성된 테이블좌석, 일반 전철 좌석,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4량은 단체석으로 3인용 의자와 2인용 의자로 넓게 구성되어 있다.

바다열차는 넓은 창 너머 보이는 바다의 시원한 풍경은 물론 불가사리, 조개 등 바다 생물들과 상어 트릭아트 등 열차 내부를 바닷속처럼 꾸며 놓아 볼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모션게임과 함께하는 음악방송이 나와 객실 내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 즐길 수 있어 지루하지 않은 여정을 만들어 준다.

바다열차는 매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 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차 이용 가격은 13,000원부터 판매되며 어린이,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일 경우 할인가격이 적용된다.

바다열차가 지나는 지역은 '관광명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해가 뜨는 마을 정동진은 바다와 역사가 가장 가까워 기네스북에 오른 '정동진역'이 바다열차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다. 또한 묵호등대와 논골담길이 아름다운 모고역, 애국가 첫 소절 배경인 촛대바위와 형제바위가 자리한 추암역,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삼척해변역과 삼척역까지 각 정착지마다 명소가 마련돼 있다.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다양하다. 많은 여행사에서 서울을 출발해 강릉역에서 추암촛대바위, 무릉계곡, 삼화사, 천곡천연동굴 등을 둘러보는 당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삼화사는 인근 천은사, 영은사, 지상사 등과 더불어 영동 남부지역의 중심 사찰로 선종의 종풍을 가진 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볼만 하다.

삼화사는 본래 동쪽 약 1.3km의 반릉 부근에 있었던 것을 무릉계곡 내에 있는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그리고 전설이 깃들어 있는 명승지인 두타산성(頭陀山城) · 오십정(五十井) · 용추폭포 · 학소대(鶴沼臺) 등이 유명하다.

기차여행과 함께 무릉계곡의 시원함과 넓은 바위, 그리고 삼화사에서의 고요한 사찰 산책은 머릿속까지 맑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구불구불 절경을 감상해보자

O · V트레인 타고 '봉화 청량사'로

바다를 배경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면 중부산간 지역을 관통하는 열차도 있다. 바로 중부내륙순환열차(O트레인)와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가 그것이다.

중부내륙순환열차는 우리나라 허리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한다. 빨리 달리는 기차와 달리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의 풍광을 느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O트레인만의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영주역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거꾸로 달려 색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제천에서 태백, 영주를 순환하는 O트레인도 그렇지만, 특히 강원 태백의 철암역에서 경북 봉화의 분천역까지 백두대간 협곡을 운행하는 V트레인의 인기는 매우 높다.

열차여행은 이동 비용이 저렴한 데다 운전부담을 덜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점이 훨씬 많지만, 이른바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약점이다. 이동의 편의는 알지만 열차여행을 망설이게 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O · V트레인을 이용한다면 다르다. 코레일이 협곡열차 출 · 도착 역인 철암역과 분천역에서 카셰어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셰어링서비스란 차량을 대여해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철암역과 분천역에는 카셰어링서비스를 위해 기아차 레이가 배치돼 있다. 이용 요금은 10분당 1000원. 3시간 정도 이용하면 1만 8000원 가량의 요금이 나온다.

분천역에서 봉화 청량사는 차로 1시간 가량 걸린다. 이 1시간 드라이빙 코스가 기가 막히다. 낙동강 상류 협곡을 끼고 계곡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세상의 시름이 모두 잊혀진다.

청량산 도립공원 내에 자리한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형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봉우리)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자리이다. 뒤로는 거대한 금탑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이다. 바위가 마치 9층으로 이뤄진 금탑모양을 하고 있고 층마다 소나무들이 테를 두른듯 암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름이면 청량사 절벽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

세계 최초 온돌마루에 족욕시설까지 명품여행

서해금빛열차 타고 '군산 동국사'로

서해금빛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장항선을 따라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 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보석 같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관광전용열차다. 서해금빛열차는 특히 복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온돌마루실과 습식 · 건식의 족욕카페 등을 갖추고 있어 시승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온돌마루실은 가로 180cm, 세로 2m정도 크기로 황토와 대리석을 깐 객실로, 각 방별 전통 창호 느낌의 칸막이가 설치돼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또 등받이 의자와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탁자, 그리고 편백나무 목침이 준비돼 있어 안락한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여독이 쌓였다면 누워서 잠시 눈을 붙여도 좋겠다. 서해금빛열차는 용산역을 오전 8시 27분 출발해 익산까지 1일 1회 왕복하며(3월까지는 목~일요일 운행), 다음달 5일부터 정식 영업 운행한다. 승차권만 구입해 자유여행을 할 경우 이용 가격은 용산~익산 기준으로 편도 2만7400원이다. 온돌마루실은 한 실에 3인에서 6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당 운임 외에 4만원의 요금을 더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족욕카페 이용 요금은 습식(30분) 5000원, 건식(20분) 4000원. 차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감상하며 족욕을 즐기는 맛이 쏠쏠하다.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주변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패키지 당일여행 상품은 ▲금쪽같은 예산의 하루 ▲홍성으로 떠나는 힐링 기차여행 ▲보령이야기 ▲서천 Eco Tour Train ▲해뜨는 서산,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지 해미읍성 & 개심사 당일여행 코스 등이 있다.

특히 근대문화의 보고인 군산을 둘러보는 일정을 추천한다. 근대문화의 보고 군산은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다. 일제 미곡 수탈의 상징적 도시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최근 월명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중 동국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4호로, 경술국치 1년 전 일본 조동종 승려 우치다가 일조통에 '금강선사'라는 이름의 포교소를 개창, 1913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와 대웅전과 요사를 신축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정부로 이관됐다가 1955년 김남곡 스님이 동국사로 개명했다고 한다.

동국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 정방형 단층팔자지붕 홑처마 형식의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소박한 느낌을 준다. 단청이 없고 용마루가 일직선이라는 점도 전통한옥과는 다른 부분이다. 또 특이한 부분은 복도를 통해 법당과 요사가 연결돼 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물로써 식민지배의 아픔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차 여행 TIP

이것 알아두면 유용

여성이 셋 이상 모이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365미즈레일 패스'는 비무장지대(DMZ)를 제외한 5대 벨트 관광열차(O · V · S · A · G-train)를 편도 2회(왕복) 이용할 수 있는 패스다.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이면 열차 내 커피 50% 할인, 도시락 구입 시 무료 커피 제공, G-train 온돌마루 무료 체험(5인 이상)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만원에 열차 내 족욕과 커피 1잔, 도시락을 세트로 판다. 3인권은 9만9900원, 4인권 13만3200원, 5인권은 16만6500원이다. O-트레인을 탈 경우 편도 4만3400원(왕복 8만6800원)이지만 미즈레일을 사면 1인당 3만3300원에 다녀올 수 있다. 5만5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여행객들을 위한 티켓으로는 가격 혜택이 큰 '나드리 패스'를 기억하자. 관광전용열차는 물론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등 일반열차(KTX · 서울~천안 구간 제외)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좌석 지정과 자유입석 2가지로 2일권과 3일권이 있다. 2일권은 편도 4회, 3일권은 편도 6회까지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가격은 성인 7만원, 어린이 5만원부터. 잔여석이 없는 경우 자유석 및 입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이 돼 성인 5만원이다. 노덕현 기자





음악과 꽃향기에 취해… 한여름 밤의 '낭만'

전국 사찰 및 문화축제 행사



봉은사 경내를 장엄한 연꽃과 백색등



지난해 월정사 여름 산사음악회 모습



지난해 봉원사 산사음악회 모습



'빛마루 축제' 진행 중인 제주도 선운정사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나뭇잎들이 부딪히며 쉬이쉬이 만들어내는 합주, 살갗에 와 닿는 선선한 밤공기, 도심 한가운데선 들을 수 없었던 터벅터벅 흙 밟는 소리까지. 한여름 밤 산사는 특별한 것들로 가득하다.

시끌벅적한 바닷가도 좋고 음향시설이 완비된 공연장도 좋지만, 올 여름은 가족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선선한 바람, 그리고 '음악'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여름 한 철 동안 재즈, 국악, 클래식 등 음악으로 경내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우리 삶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2016 월정사 여름'을 테마로 7월 30일~8월 22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월정사 난다나 야외 데크서 음악 공연을 마련한다.

7월 30일은 팝과 재즈를 기반으로 국악과 현악 등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는 5인조 그룹 이태영 밴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태영밴드는 이날 'Let me go', '그중에 그대를 만나', 'All the things you are', 'Fly me to the moon', '쥬땜므', '청량리 블루스', 'Woman', '아리랑 연가' 등 싱글앨범 수록곡을 연주한다.

8월 6일은 추정현 가야금 연주가와 유현수 피리 연주가, 윤호세 명인이 △피리독수 '상영산풀이' △영산회상 '하현도드리' △황병기 '침향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등 우리소리 무대를 펼친다.

8월 13일엔 이서현(바이올린) · 유종한(첼로) · 조강은(피아노) 연주자가 클래식-실내악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마지막 날인 8월 20일엔 '책 읽는 음악공연'이 진행된다. 월정사 주지이자 〈출가학교-처음 만나는 자유〉를 저술한 정념 스님이 직접 나서 대중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소통하며, 해금 랩소디 · 리베르탱고 · 비에 젖은 해금 등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연주자로는 강은일(해금), 채지혜(피아노), 고검재(베이스)가 나선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음악이 울려 퍼지는 산사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신촌 봉원사(주지 선암)는 7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사물놀이로 시작하는 이날 행사는 가수 배일호 · 김태혼 · 나현 · 유하주 등의 무대와 함께 페리치타 앙상블 · 퓨전국악팀 여실 락(樂) · 승무 김승애 씨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산사음악회와 더불어 연꽃 페이스 페인팅 및 캐리커처, 한지공예, 목판화, 차 시음 등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02)392-3007

밤하늘 밝히는 산사의 불빛

이번 여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다면 산사의 밤을 환히 비추는 빛무리서 소원을 빌어보자.

제주 올레15코스 내 **선운정사**는 제주도 내 숨겨진 야경명소로 유명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빛마루 축제' 때문이다. 늦가을까지 진행되는 선운정사 빛마루 축제는 LED 장미등으로 경내 전체를 장식해 화려한 연등 빛과 조화가 화려하기 그지없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올레길 뚜벅이 여행객들이나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다. (064)799-8588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방을 실시 중이다. 특히 여름의 끝자락 8월 24일까지는 연꽃축제와 더불어 백중을 맞아 경내에 장엄한 백색등의 향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연꽃공양도 함께 진행된다. 접수는 전각불사연 등 접수처서 가능하며, 동참금은 10만원이다. (02)3218-4825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 락 처
010-5904-2406
031-429-1077
불교조각연구원

유명 캠핑장 옆 山寺

캠핑은 낭만이다. 텐트 밖으로 흐르는 자연의 소리에 내던진 감성은 금세 초록빛으로 물든다. 해가 저물고 찾아온 적막에 귀 기울이다보면 내 마음도 고요히 잠들고, 별 헤던 손가락도 살포시 내려앉는다. 풍경소리 은은하게 들리는 사찰마저 가깝다면 금상첨화. 한여름 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저녁이 아름다운 캠핑장과 인근 사찰을 소개한다. **윤호섭 기자**



웅포 곰개나루캠핑장



몽산포 오토캠핑장



영덕 해맞이캠핑장

夜한 Camping 잠은 '쿨쿨' … Temple은 언제나 'COOL'

익산시청이 운영하는 웅포캠핑장은 금강을 배경으로 한 낙조가 장관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서해 7대 낙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저녁식사를 일찍 끝내고 금강변 산책코스를 걷다보면 걸음을 멈추게 하는 느티나무와 어우러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2011년 개장한 웅포캠핑장은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해 현재 총 6면의 오토캠핑장(10m×6m)과 58면의 일반캠핑장(8m×7m)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캠퍼들의 숙원인 샤워장을 신축했다. 온수는 덤.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와 족구장 · 농구장 등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캠핑장 요금은 주말 1만5000원, 평일 1만원. 오토캠핑장은 5000원 더 비싸다. 전기요금은 무료. 인터넷 예약(camping.iksan.go.kr)만 가능하다. (063)862-1578

인근에는 신라 천년고찰 **숭림사**가 있다.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좌선한 것을 기리는 뜻에서 숭산의 '숭'자와 소림의 '림'자를 따서 지었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는 뇌묵당 처영대사가 이곳과 금산사를 중심으로 승병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보광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탔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각을 중수했다.

바다 옆 소나무 군락, 그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 만리포 · 천리포 등 유명한 해변이 줄지어 있는 태안반도에서도 몽산포는 '해송노을'로 잘 알려져 있다.

몽산포 오토캠핑장은 삼림욕과 해수욕이 동시에 가능한 특별한 캠핑장이다. 1969년 몽산포 해수욕장과 같이 개장해 긴 역사를 자랑한다. 텐트 안에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발만 뻗으면 닿을 듯 지척이다. 날씨만 맑다면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서 세상을 붉게 수놓는 노을을 만날 수 있다. 다만 텐트자리 선정과 전기사용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돗가와 샤워실, 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업소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캠핑장 요금은 텐트 1동당 3만원, 타프 1만원, 소형 기준이다. 타프는 텐트에 붙여서 구축해도 각각 계산된다. 텐트 등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장비를 챙겨야 한다. 010-5408-6868

인근 사찰로는 **안면암**이 있다. 1998년 창건돼 역사는 길지 않지만 사찰 앞에 펼쳐진 바다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명소가 됐다. 앞바다에는 여우섬과 조구널섬이라 불리는 2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사찰서 가는 부교가 놓여 있어 물 때에 따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저녁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하지만 영덕 풍력발전단지 안에 자리 잡은 해맞이캠핑장은 일출뿐만 아니라 일몰도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 만큼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감성을 자극한다.

해맞이캠핑장은 하늘과 바다 모두 가깝다. 지대가 높다보니 푸른 동해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다. 오밀조밀한 산자락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높게 솟아오른 흰 바람개비들은 하염없이 돌아가고, 영롱한 별빛이 머리 위로 쏟아진다. 이곳에는 캠슐모양의 하우스 10동이 바다를 향해 설치돼 있다. 캠슐하우스는 산호초 · 돌고래 · 잠수함 등 각양각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내부에는 인덕션 레인지를 비롯해 싱크대, 욕실, TV,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없는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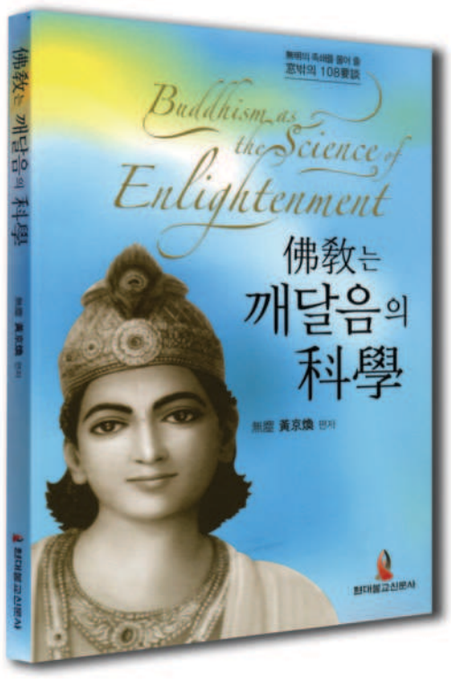
이용요금은 성수기 주중 6만원, 주말 8만원이다. 비수기는 각각 4만8000원, 6만4000원. 캠슐하우스는 4인 기준이며, 개인 위생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동반할 수 없다. (054)730-6337

인근에는 음악포교를 통해 '문화공양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명 스님이 주석하는 **가원정사**가 있다. 아직 여법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진 못했지만 현재 대웅보전 건립불사 성취발원 천일기도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 웅포캠핑장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주문
054) 744-8211~2
팩스 054) 744-8213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사찰의 감로수 집에서도 느끼세요!!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